



3

1996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6. 3호

(루게 581)



◆◆◆◆◆◆◆◆◆◆ 차 례 ◆◆◆◆◆◆◆◆◆◆

수령님 여기 제신다	4
우리가 책임진 세월속에	6
봄빛	7
불타는 심장의 노래	9
백학봉에 내린 어린 장수.....	10
청춘과 용감성은 하나의 이름.....	12
한치의 간격도 없이	13
위인의 천품	15
소중한 흙 한줌	16
작가들이 현실체험을 잘하도록 이끄시여	17
고향집 터밭	19
새로운 민족적성격형상에 이바지한 랑만주의수법.....	20
녀전사의 길	23
묘향산의 국제친선전람관에서.....	32
《동지애의 노래》를 들으며	33
유산	34
그들의 마음	35

바다여, 나를 부르라	46
바치는 사랑속에 꽃피는 삶	48
봄소나기	54
통일	54
속도	55
살인자는 칼을 놓지 않았다	59
보조금에 비끼는 생각	60
한룡운의 문학창작과 《님》에 대한 사랑	62
농민영웅의 고향에서	68
일군날	70
나는 부럽지 않아	71
민지주의 꿈	71
감방맛이 어때?	72
웨벨의 경악	73

시조

수령님 여기 계신다

홍문수

그 주추돌에 받들리시여

마음은 서둘러
문을 열고 들어서길
재촉하건만

수령님 여달으시던
현관문의 손잡이를 어루만지며
나는 뜨거운 생각에 젖어
금수산기념궁전 지붕아래 서있다

지금도 조심히
저 정원의 숲을 지나는 바람소리
수령님 집무실에 불이 밝던 그때처럼
휘날림에 변함없는 하늘가의 저 국기

그저 크기만한 궁전이라면야
그저 넓기만한 궁전이라면야
어찌 이 모든것이
우리의 마음 달래일수 있으랴

인민이 재부이시였고
인민의 희망이 리상이시였고

인민을 자신의 심장으로 안고사신
자애로운 어버이 우리 수령님

승엄함의 절정에만 모시면 되었던가
웅장함의 절정에만 모시면 되었던가
인민과는 순간도 헤어질수 없는분이어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인민의 마음속에 주추돌을 놓아
이 궁전을 세워주셨나니

솟아 그 이름 자랑하는
세상의 이런저런 궁전들처럼
땅에만 놓이지 않은
땅에만 놓을수 없던
주체의 최고성지의 그 주추돌

그 주추돌에 받들리시여
수령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민족의 어버이로 영생하시네
혁명의 태양으로 불멸하시네

노을

잠시라도 만시름 잊으시는데는
얼마라도 피로를 더시는데는
산수좋은 풍경이 좋으시련만
노을속에 서계시네 우리 수령님

밝고 서신 단우에도
노을은 불타고
근엄하신 안팎에도

그 빛은 어리고

허물없이 농사일 의논하시려
이슬내린 포전길 찾으셨던 그날도
저런 노을 어릴 때 오셨더랬지

쏟아지는 비단필 만져보시며
만족하여 끼니조차 잊으셨던 그날도

저런 노을 비길 때 떠나가셨지
새벽이면 피는 노을 맨먼저 맞으시고
저녁이면 지는 노을 맨늦어 바라시며
온 세상에 빛내주신 이 강산이어서
노을속에 수령님 우리러모셨는가

이제라도 푸른 숲의 향기를 모아
이제라도 도란대는 물소리를 모아

못다 푸신 피로를 덜어드리고싶건만
못다 더신 시름을 가셔드리고싶건만

아직도 주셔야 할 사랑이 있으신듯
현지지도 먼길우에 어려있던 그 노을
오늘도 변함없이 한몸에 받으시며
수령님은 영생도 인민 위해 바치시네

보통날일수 없다

조포소리 울리던 그날이
수령님 뵈옵는
마지막 날인줄 알았더니

기나긴 백리 연도가
수령님 가시는
마지막 길인줄 알았더니

허리 굽혀
머리 숙여
내 생전의 그 모습앞에
경모의 정 쏟게 될줄 어찌 알았으랴

지금도 달력에는
수령님 영원히 모실데 대한
뜻깊은 결정 채택된 그날이
보통날처럼 표시되어있더라만

인민의 마음속 달력에는
감격이 비통함을 달래주던 그날이
슬픔을 용기로 바뀌준 그날이
결코 보통날일수 없었나니

그 영상 뵈고픈 간절함을
더는 달랠수 없을적에
그날이 아니라면 그 어디 가서
생전의 그 모습 뵈울수 있었으랴

우리 당이 첫 자옥을 땀 기념일에
공화국이 창건된 그날에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를 찾아
뜨거운 감사를 드려야 할적에
그날이 아니라면 그 어디 가서
생전의 모습을 우리를수 있으랴

대지여! 들에 오곡을 한껏 익히라
렐차여! 기적소리 더욱 우렁차게 울리라
우리 수령님 여기 계신다
여기서 번영하는 조국을 지켜모시고
심장의 말씀으로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신다

보통날일수 없다
평범한 날일수 없다
아, 그날은

뜻깊은 그 결정이 채택된 날은

수령님의 탄생을 영생으로 이으시여
태양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여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그 고귀한 의리에 대한 기념일로
그 뜨거운 충효에 대한 기념일로
대를 이어 빛나고빛날것이다

우리가 책임진 세월속에

김석전

참으로 생각깊은 가슴들이
너를 껴안고 들먹이고있노라
참으로 무게있는 발걸음들이
너를 흔들며 나아가고있노라

굽이치는 세월의 흐름속에
더해가는 나이들과 함께
언제나 맞고 보내는 나날이건만
올해의 진군길을 다그쳐가는 이 심정
어이하여 이리도 류다른것이냐

아, 우리 조국이
준엄한 시각에 놓여있을 때
이 세상에 오직 하나
우리의 사회주의를 고립질식시키려는
제국주의 원썬들 칼을 버리는 이 세월에
우리 가는 이해의 진군길은
참으로 뜻깊구나

모르지 않노라
오리 알아도 잘 알고있노라
이해의 날과 달들에
즐거운 웃음과 노래만 있지 않음을
순탄한 대로만 열려있지 않음을

각오하고있노라
혁명의 첫 세대가 겪은
처창즈의 엄혹한 시련
고난의 행군길도 있을수 있음을

하지만 우리
신심에 넘쳐 락관을 안고 나가노라
나가는 우리앞엔 여전히
주체의 붉은 기발이 휘날리고있어라

성스러운 백두의 기상을 안고
준엄한 혁명의 년대들을 헤쳐넘으며
오직 한길
승리와 영광의 한길만 열어주며
조국과 인민을 이끌어온 붉은기

천만의 눈길이 해와 같이 바라보는
그 기발이 오늘도 우리앞에 있어라
이해의 날과 달들에
우리 살아야 할 생활의 방식

장엄한 진군길에서
우리 지녀야 할 걸음새를 깨우쳐주며

오, 다르게는 못산다!
다른 길은 못간다!
지켜야 우리가 살고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숨줄이 끊기는
이 사회주의조국을 위해
우리는 붉은기와 더불어 살고
붉은기에 의지해나가야 하거니

고난이 두려우랴
시련이 두려우랴
우리에게 이 기발만 있으면
처창즈의 엄혹한 시련도 이길수 있고
광풍이 몰아치는 고난의 행군도 웃으며 넘으리

이 기발만 있으면
이해의 날과 달들에
더 유족한 살림이 꾸려지고
더 높아가는 행복의 탑들
더 부강한 조국이 일떠서리라

그때문에 더 뜨겁게 바라보는
주체의 붉은 기발이여
이 붉은기의 사상으로 가득 채우며
이 붉은기의 진한 빛갈로 물들이며
이 붉은기의 우렁찬 노래로 진감시키며
이해의 날과 달을 값있게 이어가리라

오, 시대앞에
력사앞에
우리가 책임진 세월이여
사회주의운명을 걸머진 그것으로 하여
가벼운 마음으로 보낼수 없는 우리의 세월

살아가리라
나아가리라
준엄한 이 세월에
위대한 **김정일**동지 높이 추켜드신
이 붉은기와 함께
이 붉은기와 더불어
우리는 이해도 책임지리라
영원한 조선의 존엄을 세계에 보여주리라!

봄 빛

봄, 봄이 왔다.

눈석이물로 한껏 가슴을 추기고 따스한 기운에
기지개를 펴는 대지우에 처녀들의 노래소리마저
후더웁다.

...

길없는 초행길 남먼저 헤치시며
바람부는 험한 길 많이도 걸으신분

...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오셨던 잊지 못할 그날을
생각하는가. 아지랑이 아물대는 휘우듬한 큰길
을 바라보며 잠시 일손 멈춘 청산벌에 감격의 노
래가 흐른다.

비스듬히 삽자루를 무릎앞에 세워잡고 앉은 젊
은 농장원의 눈가에도 분홍빛 머리수건을 두손에
포개잡고 숙보관결에 서있는 처녀의 눈빛에도
그날의 감격이 아롱진다.

붉은 기발들이 봄바람에 펄럭이는 논두렁우에
가지런히 앉아 부르는 처녀들의 노래소리에 갈아
엮은 이랑들도 하고싶은 말이 있는듯 봄들판에
더운 김을 피워올리며 추억의 이랑을 번저준
다....

그날은 류달리 안개질은 이른새벽이었다.

차창에 비껴 따르던 별무리도 푸르스름히 동터
오는 하늘가에 차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안개가 발목을 휘
감는 논머리에 조용히 내려서시였다.

쪽잠도 뒤로 미루시며 차안에서 보시던 문건을
한손에 드신채 어렴풋이 드러나는 농장벌을 바
라보시던 그이께서는 마을쪽으로 눈길을 돌리시
였다.

안개가 짙어 시야에 안겨들진 않았지만 분명
한껏 봄물에 부풀고있을 사연깊은 버드나무를 바
라보고계시였다.

해방직후부터 어버이수령님의 령도의 자욱이
수없이 찍혀져있는 력사의 고장에 뿌리내리고 어
버이수령님을 모시였던 영광을 안고 년륜을 아로
새겨가는 버드나무였다.

마치도 메마른 논밭에 생명수를 준것처럼 당,
국가, 경제기관의 사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나
서는 지도의 근본문제에 전면적인 해답을 준 위대
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창조되던 잊지 못
할 그 나날을 생각하시는듯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께서는 오래도록 마을쪽을 바라보시였다.

정말 우리 수령님처럼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위해 논두렁, 밭고랑길을 많이 걸으신분은 세
상에 없었다.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는 친애하는 지
도자동지의 눈앞에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
터 한평생 인민행렬차를 몰아가시는 수령님의 위

대한 자욱자욱이 밝혀왔다.

항일의 그날에 이어 광복된 조국땅 그 어디나
인민행렬차의 그 기적소리 아니 울린곳 있으랴.

토지개혁의 발머리로부터 협동화의 전야에서
농민들과 함께 모도 내시고 김도 매시며 위대한
사랑과 령도의 자욱을 이어오신 어버이수령님이
시였다. 여기 청산리에만도 한해에도 몇차례씩
찾으시며 사회주의농촌진지 강화를 위한 사업에
그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시였던가.

어버이수령님께서 여기 청산리에 대한 현지
지도를 통하여 사회주의하에서의 대중지도에 관
한 주체적인 지도사상이며 지도방법인 위대한 청
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시였다.

수수한 명석우에 농민들과 함께 앉으시여 인민
들의 마음속깊이까지 료해하시고 철두철미 인민
을 위한 정책을 구상하시였으며 인민대중의 지향
과 현실을 전면적으로 료해장악하신데 기초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수립하시고 그 관철을 조직
지도하시며 전당적, 전국가적 사업도 전개하시였
다.

인민을 위한 희생을 락으로 여기시며 눈이 오
나 비가 오나 인민을 찾아 떠나시는 어버이수령
님을 생각할수록 밤잠을 잇고 때식을 건네시며
시간을 쪼개 일하시여도 항시 시간이 모자라는
것이 안타까운 그이이시였다. 모든 일을 오로지
어버이수령님을 위하여 어버이수령님식대로 해나
가시는 령도의 나날에 사랑으로 이어진 인민행렬
차의 궤도를 먼저 헤쳐가시는 그 로고속에 이 아
침도 밝아오고있었다.

누가 논고를 손질하는지 고르롭던 논물소리가
도간도간 끊기는 기척을 느끼시고 그이께서는 그
쪽으로 시선을 보내시였다. 안개는 걷히기 시작
했지만 아직은 몇발자욱알도 잘 보이지 않았다.

그이께서는 미끄러운 논쪽길로 걸음을 옮기시
였다.

얼마 멀지 않은 앞에서 논배미의 물고를 손질
하는 어렴풋한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신 그이께서
는 그에게로 다가가시며 말씀하시였다.

《논물관리공입니까?》

그의 수고를 다정히 헤아려주시며 그이께서는
물으시였다.

《논갈이는 다 끝냈습니까?》

《다 끝내고 씨레질이 얼마나 드달구는지 논물
관리에 담배맛 잃을 처지웨다.》

논물관리공은 지나가던 사람으로만 생각하는지
고개를 들지 않은채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올해는 얼마나 논을 깊이 갈았습니까?》

《35센치는 보장했지요.》

《35센치라. 지난해보다 5센치는 더 깊이 갈았군. 거름은 얼마나 냈습니까?》

《정당 20톤씩은 내야했는데 겨우 15톤밖에 못 냈지요.》

《지년대보다는 많이 냈구만. 수고들 했겠습니까.》

《수고가 없습니다. 수령님 교시대루 내지 못했는데 무슨 수고겠습니까?》

서슴없이 대답을 하다가 논물관리공은 주춤거렸다.

(늪시길래 이처럼 우리 농장 사정을 잘 알까? 군의 책임일군인가? 그런데 이처럼 이른새벽에 논둑길을 걸어와 이렇게 소상히 알아본 간부는 아직 없었는데... 안개때문에 모습은 딱히 가려볼 수 없구, 아무래두 청산리농사경험을 알아보려온 타곳 농장의 기술일군이 분명해. 그러길래 논 같이나 퇴비수자까지 구체적으로 잘 알지...)

논물관리공이 생각을 굴리며 삽질을 계속하자 그이께서는 또다시 말씀을 건네시었다.

《모는 실하게 자라왔습니까?》

《여부가 있습니다. 바늘모를 키워 우리 수령님께 걱정을 끼쳐드린 다음부터는 모두가 정신을 버쩍 차렸지요.》

《지금 몇잎이나 자랐습니까?》

《대여섯잎씩은 되지요.》

《맛춤하구만. 그래 모내는 기계는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논물관리공은 말이 막혔다.

(참, 깐깐도 한분이로군.)

그는 농장 전체 실정을 잘 모르기때문에 모내는 기계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고 하던 삽질을 계속 하였다.

자욱했던 안개가 점차 가셔지기 시작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물대는것을 좀 구경하자고 하시면서 보도랑을 뛰어넘어 그에게로 가까이 다가가시었다.

고개를 쳐들던 논물관리공은 눈을 크게 떴다.

(아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가 아니신가?)

그제야 그는 농립모를 벗으며 어쩔바를 몰라했다. 방금 그이께 무람없이 대답한것이 죄송스러워 고개를 들수 없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다정하게 미소하시며 《새벽부터 수고합니다. 청산벌이 보고싶어 나왔습니다.》라고 손을 내미시었다.

흙탕물이 묻은 손을 어찌지 못하고 엉거주춤 서있는 그에게 바루 다가가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덥석 그의 손을 잡으시었다.

《일하는 사람의 손이 그럴지요. 무슨 허물이 있습니까.》

그이께서는 다시 다정하게 말씀을 건네시었다.

《그래 모는 언제부터 났습니까?》

《3~4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내려고 일손을 다그

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허리를 펴시고 안개걸히는 청산벌을 휘-돌러보시었다.

모내기를 서두르는 벌을 만족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그이께서는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청산리는 모내기도 제철에 잘하여 전국에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올해에도 날씨가 좋지 않을것이 예견되니 모내기때부터 단단히 잡도리를 하고 농사일을 잘해야 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논물관리공과 함께 논둑길을 걸으시었다.

풀잎에 맺힌 이슬이 그이의 신발과 바지가랭이를 축축히 적시었다. 봄같이를 하느라고 트랙포르가 뭉개놓은 두렁길은 여간만 질벽하지 않았다.

《길이 험합니다.》

논물관리공은 송구스럽게 그이를 우려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주저없이 진창길을 걸으시며 유쾌하게 말씀하시었다.

《수령님께서 늘 걸으시는 길이 아닙니까. 이런 길을 매일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이께서는 자신의 신발에 두렵게 진흙이 묻어 오르는데도 아랑곳 않으시고 오히려 논물관리공 아바이를 보고 조심히 걸으라고 이르시었다.

아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한 만풍년을 안아오시기 위하여 이른새벽 농장원들보다 먼저 질벽한 논둑길을 앞서 걸으시는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온 나라의 농장벌에 만풍년을 안아오시기 위하여 아버지수령님의 위대한 령도의 사적이 수없이 깃들어있는 여기 청산벌에서부터 만풍년을 가꾸고 전국의 앞장에 내세우시려는 그이의 로고의 자욱자욱을 타고 이 땅에 봄이 오고 청산리의 봄이 질어가고있었다.

청산리의 봄빛을 온 나라에 펼치시려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마음속에는 여기 보도랑의 물소리며 모판의 모한데도 무심하지 않으시었다.

논판의 물대기며 썩레질상태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며 청산리의 모내기를 와닥닥 끝내기 위한 방도도 무르익히시며 그이께서는 미끄러운 논둑길에서 새 아침을 맞으시었다...

잊지 못할 그날의 그 자욱우에 봄씨앗을 묻어가는 농장원들의 마음은 오늘도 그날의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뜻을 대지우에 꽃피우고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한평생 몰아가신 그 인민행렬차를 몰아 오늘도 온 나라의 농장벌을 찾아 댓이나 밤이나 쉼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상을 그려볼수록 올해에도 만풍년을 꽃피워 그이께 기쁨을 드리려는 불타는 그 숨결로 하여 올해의 봄빛은 류달리 후덥다.

논머리의 설참에 이어 일손을 잡은 처녀들이건만 그들의 마음속 하나의 진정에 젖은 감격의 노

래는 온 들판에 계속 이어지고있었다.

기적소리 정다운 밤렬차 차창가에
은혜로운 불빛이 넘쳐흐르네
이밤도 장군님 인민을 찾아서

사랑의 만리길 이어가시네
인민행렬차의 빛나는 저 불빛
사랑을 안고서 달리는 불빛
...

본사기자 김일규

불라는 심장의 노래

류동호

내 가슴에 불길이 타오른다
우리 장군님 안겨주신 진리의 불이
심장속에 활활 타오른다
이 세상 끝에서 끝까지
인간의 가슴 구석구석을 다 비쳐주는
도덕의리와 량심의 불이 타오른다

그 불은 이 세상이 걸어온 길
그 력사의 굽이굽이 다 비쳐주고
인류가 걸어갈 천만년 미래를
다 비쳐주고 다 깨우쳐주며
인간의리와 도덕의 완성으로
우리모두를 불러준다

오, 도덕과 의리
수령을 받드는 량심과 고결한 정신
그것으로 뜨겁고 그것으로 승고한
우리가 사는 사회주의 이 세상엔
수령을 혈뜰고 량심을 더럽히는
어지러운 바람 한점도 스며들지 못한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아이들이 어른들을 따르고 받드는
화목하고 고상한 우리의 세상
항일의 선렬들이 수령님을 옹위하고
전쟁의 로병들이 선렬들의 뒤를 따르고
우리의 청년들이 혁명의 선배들을 존대하는
아름다운 인간들이 사는 사회주의 우리 세상

이것으로 아름답고
이것으로 역세이고
이것으로 일심단결 충효일심으로
우리의 수령님을 모셔왔고
우리의 장군님을 따르는
내 조국의 이 영광 이 존엄이여

아 도덕과 의리의 화신이신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
그 의리로 우리 당을 강철로 다지시고

그 도덕으로 우리 조국을 밝게 빛내이시는
그 위대한 손길아래서
우리 당 우리 조국 우리 인민이 자랐나니

의리를 떠나 혁명을 할수 없고
도덕을 떠나 인간을 말하지 말라
우리의 행성이 존재한다는것은
의리의 세계 그자체라는것
도덕이 사람 그자체라는것
그것이 없으면 인류가 멸망하는 그런것

우리의 사회주의는
의리로 빛나는 사회주의
도덕으로 빛나는 인민의 량심
그것으로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우리 혁명이여
우리 사회주의여

오, 지금은 20세기 마지막년대
썩을대로 썩은 자본주의를 불사르며
좌절에 녹슨 가슴들을 녹여주며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 추켜드신
공산주의의리의 해불
인간도덕의 해불

내 가슴이 불란다
내 신념이 불란다
내 피줄 하나하나가 의리로 얹히고
내 잔뼈가 도덕으로 굳어지고
내 온몸이 장군님을 따르는
도덕의리의 자욱자욱을 수놓아가려니

나는 우리 장군님 불붙여주신
그 도덕과 의리의 해불
신념과 량심의 해불을 추켜들고
세상 한복판을 헤쳐나아가리라
의리와 도덕의 최고화신이신
아 절세의 위인 우리 장군님을 따라서!

백학봉에 내린 어린 장수

함경북도 선봉군에 가면 바다에서 그리 멀지 않은곳에 백학봉이라는 봉우리가 있다.

주변의 산들에 비하면 해발고는 그리 높지 않으나 경치가 매우 아름다운 산이다.

해방전엔 이곳을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 인적이 몹시 드물었다.

오늘은 항일무장투쟁시기의 구호나무를 비롯한 혁명유적유물들이 많이 발굴되어 답사자들이 경치좋은 이곳으로 끊임없이 찾아오고있다.

멀리서 보면 흰 학이 내려와 앉아있는 모습과 같다 하여 백학봉이라 부르는 이 산엔 예로부터 전해내려오는 전설이 있다.

그러나 이고장 사람들은 항일무장투쟁시기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그리고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 함께 이곳에 오셨다 가신후에 창조된 혁명전설들을 더 즐겨 이야기하군한다.

백학봉에 내린 어린 장수에 대한 이야기도 그런 전설들중의 하나이다.

해방되기 얼마전, 끝까지마다 진달래가 붉게 피어나던 어느 봄날 이른아침이었다.

백두산꼭에서 한때의 흰구름이 몽게몽게 피어나더니 동쪽을 향해 훨훨 날아가고있었다.

그 흰구름은 뜻이라도 단듯 다른 구름들을 따라 앞서며 쏜살같이 썩썩 날아가는것이였다.

웬 구름일까? 사람들은 모두 의아한 눈길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바다에서 태양이 불끈 솟아오르자 흰구름은 금시 아름다운 오색채운으로 변하였다. 서둘러 날아오던 구름은 백학봉하늘우에 이르자 갑자기 폭 멈춰서더니 서서히 봉우리를 향해 내려앉는것이였다.

구름이 산마루에 내리자 백학봉은 일시에 채운으로 덮이여 황홀경을 이루었다. 한참후에 아름다운 채운은 안개마냥 다시 하늘로 떠올랐다.

백학봉마루엔 난데없는 두사람이 서있었다. 그들은 하늘로 날아오르는 구름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한사람은 치마저고리를 입은 아름다운 녀인이요, 다른 사람은 귀염상스럽게 생긴 동자였다. 그들옆엔 짐채만큼 큰 책더미가 쌓여있었다.

그들은 떠오르는 구름을 향해 입을 모아 소리쳤다.

《잘 가세요!-》

그들의 목소리는 어찌나 큰지 산발을 찌렁찌렁 울리었다. 숲이 설레이고 산이 통채로 흔들리는 것 같았다.

이윽고 떠오르는 구름속에서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울리었다.

《오냐, 잘 있거라. 무술을 잘 닦아라.》

그 목소리 또한 얼마나 큰지 동해바다에서 갑자기 큰 파도가 일었다.

그분이 바로 천하제일명장이신 **백두산대장수 김일성**장군님이시였다.

소년동자는 백두광명성으로 높이 솟아오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였고 녀인은 천출룡마타고 백두산에 내리신 항일녀장수 김정숙동지이시였다.

장군님께서 구름을 타고 백두산으로 돌아가시자 녀장수께서는 백학봉마루에 걸터앉으시여 주변의 지형을 두루 살피시였다.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에 향기로운 꽃내가 실려왔다. 그윽한 꽃향기에 취하신듯 녀장수께서는 눈을 스르르 감으시더니 소년장수에게 말씀하시였다.

《봐라! 우리 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제 왜놈들을 얼른 내쫓구 우리 나라를 행복한 동산으로 꾸리자꾸나.》

《예, 알겠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무술과 병법을 익혀야겠다. 그러자면 훈련도 하고 병서들도 읽어야 하겠으니 자리를 마련해야겠다.》

녀장수는 잠간사이에 집도 짓고 무술을 닦을 터도 마련하시였다.

그런 다음 어린 장수에게 무술을 배워주시였다. 칼과 활을 다루는 방법으로부터 총을 쏘는 사격술에 이르기까지 녀장수가 가르쳐주시는대로 어린 장수는 하나하나 익혀나가시였다.

그러느라니 어느덧 골짜기에 어둠이 깃들게 되였다.

《밤에는 병서를 읽어야겠다.》

녀장수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초대처럼 생긴

바위에다 불을 켜시켰다. 초대바위에서 타오르는 불길은 금시 끝안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주었다.

어린 장수는 그 불빛아래서 병서를 읽기 시작하시였다.

장수가 읽는 병서에는 없는 책이 없었다. 울지 문덕의 살수대첩이야기며 리순신의 해전이야기, 손자의 병법과 제갈량의 화공전술에 이르기까지 실로 동서고금의 명장들의 전쟁사와 병법들이 다 있었다.

하루밤사이에 수십권의 책을 읽은 어린 장수는 다음날 아침이 되자 또다시 무술훈련을 하시였다. 이번엔 술방울을 던지면 그것이 날아가면서 폭탄으로 변하는 술법과 구름을 불러 비가 내리게도 하고 오던 비를 멈추게도 하는 천기조화술을 배우였다.

저녁이 되자 어린 장수는 또 병서를 읽으셨다.

녀장수가 한번 커놓으신 초대바위의 불은 신기하게도 저녁이면 저절로 타오르곤하였다.

이러기를 사흘째되는 날 저녁이였다. 어디선가 신음소리 비슷한 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녀장수는 한참동안 귀를 가누더니 어린 장수에게 《아무래도 내가 좀 가 봐야겠다. 왜놈들이 우리 조선사람들을 못살게 구는것 같구나. 내 좀 혼썰을 내주고 오겠으니 그동안 혼자서 무술훈련도 하고 병서도 읽어라.》 하고 말씀하시였다.

녀장수는 그길로 구름을 잡아타고 신음소리가 들려오는쪽으로 날아가시였다.

어린 장수는 백학봉우에 혼자 앉아서 또다시 병서를 읽기 시작하시였다. 한편, 두권... 다 읽은 책들은 잠간사이에 더미로 쌓이였다.

한편 백학봉에 3대위인이 내렸다는 소식을 들은 왜놈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있었다. 대낮에도 밖에 나서기가 무서워서 목을 움츠리고 다니였다. 당시 라남 19사단의 병졸들은 모두 머저리가 되고말았다고 한다.

그런데 다음에 들어온 정보는 백두산 대장수가 백두산으로 돌아갔다는것이였다. 그러나 녀장수와 어린 장수는 백학봉에 그대로 있다고 하였다.

왜놈들은 그래도 기를 펴지 못하고있었다. 놈들은 녀장수가 축지법을 쓴다는것을 잘 알고있었기때문이였다.

며칠후 왜놈들은 녀장수도 어디론가 가고 백학봉엔 어린 장수가 혼자 있다는 정보를 받았다.

그제야 왜놈들은 살아났다는듯이 목을 빼들고 다니면서 백학봉의 어린 장수를 해칠 모의를 서둘러 꾸미였다.

그날저녁 스즈끼란놈이 거느린 수천명의 왜놈 《토벌대》가 백학봉으로 급파되였다.

놈들은 끝짜기어귀에서부터 숲속에 몸을 숨기고 살금살금 기여들었다. 초대바위에 켜진 등불은 끝안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치고있었다.

《영?》

스즈끼는 깜짝 놀라 겁먹은 눈길로 백학봉마루를 바라보았다.

소년장수가 백학봉마루에 앉아 책을 읽고있는 모습이 뵈히 올라다보였다.

《웅지!》

스즈끼는 속으로 이제야 무공을 세울 때가 왔다고 패재를 불렀다.

소년장수는 눈을 한번도 떼지 않고 열심히 책을 읽고있었다.

《빨리! 빨리!》

이때라고 생각한 스즈끼는 졸병들을 백학봉으로 올리밀었다.

소년장수는 여전히 아무런 기미도 느끼지 못하싣듯 태연하게 책을 읽으시였다.

겁이 많은 스즈끼는 졸병들만 산마루로 오르라고 몰아대고 자기는 바위뒤에 몸을 숨기고 소년장수의 거동만 살폈다.

얼마후 왜놈들이 소년장수가 책을 읽고있는곳에 거의 다달았을무렵이였다.

소년장수는 그때에야 인기척을 느꼈는지 머리를 들어 사방을 살피시였다.

왜놈들의 한무리가 달려올라오는것을 본 소년장수는 조금도 놀라지 않고 옆에 있는 자그마한 나무가지 하나를 들더니 그것을 훌 집어던지였다.

순간 쾅! 하는 천둥소리와 함께 구름이 물썬 피여오르더니 달려들던 한무리의 왜놈들은 가뭇없이 사라지고말았다.

《아이쿠!》

스즈끼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다. 스즈끼는 다리를 와들와들 떨며 제 먼저 도망칠 궁리를 하였다.

그러나 그냥 돌아갔다가는 중한 벌이 자기를 기다리고있을것은 뻔한 일이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있었다.

스즈끼는 또다시 소년장수를 올려다보았다.

소년장수는 아무런 일도 없었던듯이 태연자약하게 계속 책을 읽으시였다.

스즈끼는 한무리의 졸병들을 강제로 또 올리밀었다.

얼마후 또 산마루에서 쿵! 하는 소리가 울리더

니 왜놈들은 간곳없이 사라졌다.

《거 참 시끄럽게 노는데.》

소년장수는 읽던 책을 마저 다 읽고 자리에서 움쭉 일어나더니 골짜기를 내려다보시었다.

소년장수의 두눈에서는 불길이 황황 일었다.

《이놈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기여드느냐? 내 좀 조용히 책을 보려 하였는데 자꾸만 방해를 노니 네놈들에게 기갈을 줘야겠구나.》

소년장수의 서리찬 목소리는 골짜기를 찌렁찌렁 울리었다.

어떤놈들은 그 목소리에 귀가 메였고 더러는 눈을 뒤집고 쓰러졌다.

소년장수는 옆에 있는 느릅나무가지에서 잎을 한줌 쭉- 훑어내더니 그것을 골안을 향해 내리뿌리시었다.

그러자 한참동안 골안에서 번개가 번쩍 일고 파르릉! 우뢰소리가 울리더니 왜놈들은 모두 황천객이 되고 말았다.

그 이튿날, 날이 푸름푸름 밝기 시작하더니 아침해가 솟아올랐다. 바다쪽으로 혼자 내빼려다가 쓰러진 스즈끼가 겨우 눈을 뜨고 일어났다.

얼혼이 빠진 스즈끼는 흐리멍텅한 눈으로 백학봉을 올려다보았다.

백학봉하늘우엔 칠색령룡한 무지개가 비껴있었다.

조금 있더니 파르릉! 하고 봄우뢰가 울었다. 그 소리에 놀라 스즈끼는 머리를 땅에 구겨박았다.

그 봄우뢰소리와 함께 이런 말소리가 하늘에서 울리었다.

《석달이 지나면 이 강산에 광명천지가 오리라!》

하늘을 올려다보니 소년장수가 백학을 타고 구름우로 훨훨 날아가고있었다. 구름우엔 언제 돌아오셨는지 백학을 타고 날아가는 녀장수님도 보였다. 그 백학은 백두산쪽으로 날았다.

《아이쿠, 백두산에 또 새 장수가 내렸으니 일본은 분명히 망했구나.》

스즈끼는 다시 눈을 감았다.

그후 소년장수는 백두산대장수님께 이 사실을 보고드리셨는데 대장수님께서서는 왜놈들 기갈은 바로 그렇게 들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참 잘했다고 칭찬을 하시었다고 한다.

소년장수의 예언대로 석달후에 정말 왜놈이 망하고 나라가 해방되었다.

지금도 백학봉에 가면 백두산녀장수님께서 불을 켜놓으셨던 초대바위가 그대로 솟아있다.

어린 장수가 그때 보시던 책들이 바위로 굳어졌다는 책바위도 거기서 그리 멀지 않은곳에 있다.

최근 백학봉에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의 구호나무들이 많이 발굴되었는데 바로 초대바위밑에서 나온 구호문헌은 이 전설의 신빙성을 더해주고있다.

《세계 제일명인전은 조선의 3대위인전이다.

김일성위인전, **김정숙**위인전, **백두광명성위인전**이다. 조선의 궁지 3대위인전 천만대 전해가자(비상회기억) 45. 5. 13》

가사

청춘과 용감성은 하나의 이름

문기창

동무들아 그 언제나 잊지를 말자
청춘과 용감성은 하나의 이름
눈보라 천리길에 산악이 막아서도
용감한 청춘은 못넘을 령이 없네
김정일장군님 따르는 길에서
용감한 청춘은 영웅이 되리

동무들아 어디서나 잊지를 말자
청춘과 용감성은 하나의 이름
불뽕는 적화구 가슴으로 막아도

용감한 청춘은 영원한 삶을 얻네
김정일장군님 따르는 길에서
용감한 청춘은 영웅이 되리

동무들아 우리모두 잊지를 말자
청춘과 용감성은 하나의 이름
내 사는 조국땅에 시련이 온대도
용감한 청춘은 싸워서 승리하리
김정일장군님 따르는 길에서
용감한 청춘은 영웅이 되리



한치의 간격도 없이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천성적인 성품인 소탈성은 사람들과 한치의 간격도 없이 지내시는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통속적으로 말하여 그이는 틀이 없는분이시다.

학창시절에 그이께서는 건설장에 가시면 건설자들과 함께 웃웃을 벗어던지고 목고를 메시였고 때로는 자진 《자재인수원》이 되시여 덜커덩거리는 화물자동차적재함에 타시고 세멘트를 날라 오기도 하시였다. 그런가 하면 굴착기가 고장났을 때에는 못쓰게 된 부속품을 가지고 공장에 찾아가 《수리공》이 되시여 손에 기름을 묻히시며 고쳐오기도 하시였다.

학창시절에만이 아니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도도를 보좌하시던 때에도 그이께서는 농촌에 나가시면 수원들의 앞장에서 낫을 들고 농장원들과 함께 풀을 베시고 가물과의 투쟁때면 몸소 물지계를 지시고 다락밭에 물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현지도로 지방에 나가계실때면 점심 한끼는 주로 국수를 했는데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주방의 일손을 도와 나무국수 분틀채를 잡고 국수를 누르기도 하시였다.

수원들이 송구스러워하면 그이께서는 아무리 봐야 내가 국수도 제일 좋아하니 별수 있는가고 하시며 룡으로 그들의 마음을 늦춰주곤하시였다.

이렇게 천성적으로 틀을 차리실줄 모르시는분이시기에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에 의하여 우리 당의 수위에 높이 추대되신후에도 그이의 소탈하신 그 성품에는 변함이 없으신것이다.

1974년 가을 어느날이였다.

구월산줄기의 서쪽골안에 자리잡고있는 신천군 화산협동농장의 나이많은 관리위원장은 작업반들에서 낱알털기형편을 알아보고 관리위원회로 돌아오고있었다.

이때였다. 뽕야니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주 달려오던 승용차가 그앞에 와서 멈춰섰다.

《관리위원장아바이! 그동안 잘 있었습니까?》

차창밖으로 손을 내미시며 인사를 청하시는데는 분은 오매에도 뵈고싶던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이시였다.

뜻밖에도 자기 농장의 별길에서 경애하는 그이를 만나뵈게 된 농장일군은 그이를 관리위원회사무실로 모셔드리려고 하였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방에 들어가 앉아있을바에

야 무엇하러 이 먼곳에 오겠는가고 하시며 말씀하시였다.

《관리위원장아바이, 벌을 한번 돌아봅시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이날 그 농장 일군을 차에 태우시고 수백정보나 되는 농장벌을 돌아보시고 등매산언덕길에 오르시였을 때는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있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아직 돌아보지 못한 농장마을을 굽어보시다 말고 간단히 요기나 하고 더 돌아보자고 하시며 수행원들에게 식사를 준비시키시였다.

농장일군은 한지에서 어떻게 식사를 하시겠는가고 하면서 마을로 내려가시자고 간절히 청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마을에 내려가야 공연히 폐만 끼치겠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시였다.

《들에서 먹는 음식이 별맛입니다. 관리위원장아바이도 여기서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십시오.》

그이께서는 황송하여 어쩔바를 몰라하는 농장일군의 말을 다정히 잡으시고 식사가 마련된곳으로 이끄시였다. 식사래야 점심에 드시고 남은것인듯한 찜기밥 몇개와 한두가지 남새무치가 전부였다.

이름없는 농촌일군을 《아바이》라고 친근하게 부르시며, 허물없이 대해주시는데 어려움을 잊은 관리위원장은 그이께서 권하시는데로 자리에 앉았다. 그리하여 농장벌이 굽어보이는 언덕의 길섶에서는 마치 종일 함께 들일을 하다가 발머리에 둘러앉아 새참보자기를 펼쳐놓고 시장기를 가시는 농장원들의 결두리를 방불케 하는 소박한 야외식사가 있었다.

이 광경은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천품으로 지니신 소탈성을 그대로 말해주는 하나의 생동한 화폭이였다.

이러한 화폭은 화산벌에서만 찾아보게 되는것이 아니다.

1987년 10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모시고 오랜 시간에 걸쳐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은 일군들은 낮참이 되자 점심식사를 준비하였다.

마침 추석날이고 하여 일군들은 햇쌀로 찰떡을 하기로 하였다.

이것을 아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우리 조상들

은 예로부터 추석날에는 햇쌀로 떡을 했는데 그 풍속대로 찰떡을 찰라면 좋다고 하시면서 찰떡 준비가 되었으면 어디 한번 가보자고 하시였다.

일꾼들은 그이를 떡돌이 마련된곳으로 모셔드렸다.

떡을 칠 차비가 다 되였다.

떡밥이며 떡돌, 떡메를 살펴보고나신 그이께서는 모두들 집에서는 어머니나 아주머니가 해주는 떡을 먹고 밖에 나가서는 남이 해서 받쳐주는 떡만 먹었겠는데 오늘은 제가 먹을 떡은 제가 칠 내기라고 하시면서 누구든 먼저 떡메를 잡으라고 하시였다.

한 일꾼이 자신이 있는듯 팔소매를 걷어붙이며 나섰다.

떡돌우에 떡밥을 쏟아놓자 그는 떡메로 몇번 뭉개다말고 성급하게 내리치기 시작하였다. 떡밥이 떡메에 달라붙고 더러는 땅바닥으로 튕겨났다.

모두들 혀를 차는데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손을 들어 그를 제지시키시였다.

《찰떡을 그렇게 치면 됩니까.》

그이께서는 선뜻 떡메를 들고나서기에 어지간히 숨씨가 있는줄 알았더니 아예 생판이라고 하시며 가볍게 나무라시였다.

한번 숨씨를 보이자던 일이 그만 맹랑하게 되였다는듯 일꾼은 어쭙게 뒤머리를 긁적이였다.

모두들 웃었다. 그러나 아무도 떡메는 잡으려고 하지 않았다. 좀전까지만도 한번 잡아볼 생각이 있었는데 그 일꾼이 《퇴짜》를 맞는것을 보고는 자신들이 없었던것이다.

《이리 주시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팔소매를 걷어올리시였다.

《아니, 그만두십시오. 저희들이 합니다.》

당황해난 일꾼들은 서로 그이의 앞을 막아나섰다.

《어서 인주시오.》

그이께서는 오늘은 제가 먹을 떡은 제가 칠 내기라고 이미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하시며 굳이 떡메를 잡으시였다.

그러시고는 더는 어쩔수 없이 물러선 일꾼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시였다.

《찰떡은 장작을 패듯이 쳐서는 안됩니다. 처음에는 떡메로 떡밥을 뭉개다가 밥알이 풀어지려 할때 쳐야 합니다. 떡을 칠 때에는 떡메나 떡돌에 떡이 달라붙지 않게 물을 발라야 합니다.》

그이께서는 옆에 있는 물버치에 떡메밑을 한번

살짝 잠그었다내시더니 먼저 떡돌을 문지르고 다음에는 떡밥을 뭉개시였다.

모두들 어쩔바를 몰라하며 이젠 그만하시라고 굳이 만류하였으나 그이께서는 한동안이나 종이 떡을 치시였다.

떡이 어찌나 잘되는지 모두들 감탄하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떡메를 넘겨주시며 이르시였다.

《내가 한대로 해보시오.》

모두들 그이께서 가르쳐주신대로 하였다.

《어떨소?》

《잘됩니다.》

아닌게아니라 그이께서 하신대로 하니 떡돌이나 떡메에 달라붙지도 않고 떡이 잘 쳐졌다.

아까 《퇴짜》를 맞은 일꾼이 기어코 떡메를 앓아들더니 마지막떡질을 하고나서 《거, 떡먹기와는 다른데...》 해서 모두들 웃었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도 웃음을 참지 못하시였다.

《그래서 눈에는 익고 손에는 설다는 말이 있는거요.》

잠시후 일꾼들과 함께 방으로 돌아오신 그이께서는 사람은 일생을 두고 배워도 다 못배운다고 했는데 모두들 오늘 떡치는 방법을 한가지 배웠으니 이런것을 두고 찜먹고 알먹기라고 한다니며 말씀하시였다.

《일꾼들은 혁명의 지휘성원이고 인민의 총복 인것만큼 떡도 칠줄 알고 밥도 지을줄 알고 무슨 일이나 다 할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일에서 이신작칙할수 있으며 대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잘 어울릴수 있습니다.》

이윽고 떡상이 들어왔다.

그이께서는 떡을 치느라고 모두들 수고했는데 어서 들라고, 자기가 친 떡이니 별맛일게라고 하시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동무들이 오늘은 자기가 먹기 위하여 떡을 친셈이지만 래일은 인민들을 위해 떡도 치고 필요하다면 방아도 찼고 망질도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인민의 총복이 될수 있습니다.》

순간 일꾼들이 받아안게 되는 충격은 컸다.

그가 로동자이건 농장원이건 간부이건 그 누구와도 한치의 간격도 없이 대하시며 굵은 일 마른 일 가리지 않으시고 몸을 잠그시는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소탈성, 그이께서 천품으로 지니신 이 성품은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인민을 위하시는 숭고한 복무정신으로 하여 더더욱 고결한것이다.

위인의 천품

최성진

어느날 나는 가까이 지내는 동료작가와 함께 새로 열린 미술전람회를 보러 갔다.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자리잡은 미술박물관은 내가 때없이 찾는 곳이다.

나는 원래 미술가들을 존경한다. 그리고 그들의 재능을 믿는다. 그들의 고심어린 창조물을 감상하느라 인간 환상이란 참으로 무한하구나 하는 공지와 확신을 가지게 되며 색깔로써 생활의 진실과 진리를, 이 세계를 그려낼 줄 아는 그 신비스러움에 탄복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위인적 풍모를 그린 소설을 성과작으로 내놓으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아 창작에서 고충을 겪고있던 중이었다. 사실 나는 사료에는 흥분되어있었다.

그것은 우리의 행성과 인류의 운명을 지켜내기 위해 천리혜안의 예지로 대세의 흐름을 꿰뚫어보시며 천만대적을 위락편락하시는 위대한 령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소설은 잘되지 않았다. 아마도 나에게는 위대한 령장을 형상화한 작가적재능이 없는 모양이로다 하는 아득한 생각이 들었다. 나에게는 이것이 작가의 창작생활에서 의례히 누구나 겪게 되는 그러한 레사로운 《고민》으로만 여겨지지 않았다.

나의 고충을 옆에서 보다못해 친구가 그래도 동정이 가는지 쓴외처럼 내버려진 쓰다만 초고를 읽어주었다.

《여보게, 자넨 큰것만 보려다가 진짜 큰것은 놓친 셈이야. <위대하다>는 언어만 가지고 위인의 위대성을 보여줄수는 없지 않나. 미술가들은 한그루의 락락장송을 그리면서도 거기에 인간의 기개와 지향과 숨결, 환희와 랑만을 부여할줄 알더군.》

언제나 무자비한 정확성으로 나를 당황케 하는 친구였다. 나는 할 말이 없었다. 내가 스스로 느끼면서도 감히 인정하지 못하던 그것을 이 린색한 친구가 까밝혀놓는 것이었다. 바로 이런 때 나는 친구와 함께 여기에 온 것이다...

나는 전람회장안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무한한 세계에 빠져들어갔다. 사람들의 숨소리마저 들릴 듯 조용한 실내에는 아름다움과 숭엄함, 기쁨과

환희, 사랑과 증오가, 인간의 그 모든 감정이 소리지 없이 끓어오르고있었다.》

나는 한쪽의 그림앞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심장의 박동이 느닷없이 빨라졌다. 사색도 중단된 듯싶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딥고선 땅이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움썰거리는 것 같았다. 나의 눈앞에는 이 세기의 환희가 아니라 거대한 슬픔의 바다가 펼쳐지고있었다. 하늘도 땅도 무한대의 공간도 눈물에 잠긴 비애의 장면, 한줄기의 빛도 없다. 캄캄하다. 어혈진 땅의 몸부림, 화장암대돌우에 었드려 목놓아 통곡하는 수천의 인간들우에 내리는 폭우, 눈앞에는 7월의 비애가 재현된 것이었다.

하늘이 갈라져나가고 대지가 몸부림치는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장군님께서 만수대언덕우에 서계시었다. 당치않은 불행을 저주하시듯 검은 구름이 습막힐 듯 드리운 먼 하늘가에 향해진 그분의 눈동자에 눈물이 번뜩이었다. 그이의 품에 얼굴을 묻은 두 젊은이의 흐느낌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친애하는 그분께서 우리들의 눈물을 알아주시리라는 생각, 또 슬픔에 어혈든 가슴들을 어루쓸어주시리라는 무언의 신뢰가 있어 저처럼 마음놓고 흐느껴우는 것이었다.

사람은 엄청난 불행앞에서도 의지할 기둥이 있어야 마음놓고 울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박물관을 나서서도 오래동안 말이 없었다. 그만큼 충격이 컸다.

《그림엔 미술가가 포착한 것이 있어, 진실이 있거든.》

묵묵히 걸음을 옮기던 나의 친구가 하는 말이였다.

《미술가는 눈빛에 력점을 찍었어. 장군님의 눈빛, 그분을 우러르는 인민의 눈빛!》

그런데 장군님의 눈에는 눈물이 어리어있더군. 그이의 눈물은 단순히 슬픔의 눈물이 아니지, 어버이를 잃은 인민에 대한 그이의 다함없는 련민이였고 아픔이였고 백배로 더해지는 사랑이였고. 불행을 당한 인민의 슬픔을 그 누구보다도 절통한 비애속에 감수하시며 인민을 한품에 안아 지켜주리라 굳은 의지를 가다듬으시는 그이의

사랑이었지!...》

그의 말을 듣노라니 나의 머리속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에 늘 일군들에게 하시었다는 말씀이 떠올랐다.

우리 **김정일**조직비서는 인정이 많고 눈물이 많다고 하시었다는 말씀.

일찍 어리신 시절부터 동무들의 아픔이나 피로움을 자신의 아픔과 피로움으로 여기시고 동무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낄줄 모르시던 자애로운 **김정일**동지! 그래서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도 아드님을 가리켜 동무들을 위하여 태어났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동지를 위해 사시는것! 그것은 위대한 그이께서 지니신 천품이었다.

어느해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한 기계공장 로동계급과 기술자들이 첨단기술을 요구하는 중요한 기계를 자체의 힘과 지혜로 만들어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바쁘신 시간을 내시여 그들을 찾아주시었다.

오매에도 그림던 장군님을 자기들의 공장에서 뵈옵게 된것이 너무나도 꿈만같은 일이어서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은 감격에 목이 메이는데 그이께서는 기계를 설계한 기술자들의 마음속 소망도 깊이 헤아리시고 당을 중심으로 받들어온 그들모두를 당에 받아들이자고 하시었다. 그런데 그렇듯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고 떠나가시던

장군님께서 달리는 승용차를 되돌려세우시여 다시 공장으로 향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새로 입당하는 동무들을 정당원으로 직접 받아들이자고, 자신께서 그 동무들의 입당을 보증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고서야 마음을 놓으시고 평양으로 향하시었다.

조국을 위하여 훌륭한 일을 해놓고서도 부모들과 자신들의 떼뭇치 못한 과거로 하여 위축되어 살아온 사람들, 그들의 가슴속에 남아있을 한점의 그들과 위구조차도 다 가시여주고 떠나시는 그이이시었다.

빛나는 예지와 지략으로 세계를 움직여나가는 위인중의 위인이신 우리의 장군님은 이런분이시었다. 인민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고 평범한 한 인간의 가슴속에 얹혀있는 사연까지도 헤아리시고 리해하시는 친근하신분! 그분은 정녕 인민을 잘 아시고 인민을 위해 사시기에 언제나 인정이 많으시고 눈물도 많으신분이었다.

위인의 품모! 이름없는 평범한 작가의 붓으로 어떻게 다 밝혀낼수 있겠는가.

우리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품모는 일생을 두고 사색하고 일생을 두고 써도 다 쓰지는 못할것이다.

다만 내가 미술전람회장의 한쪽의 그림앞에서 새삼스럽게 절감한것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누구보다도 인민의 마음을 잘 아시고 인민을 위해 기뻐도 하시고 인민을 위해 심려하시고 인민을 지켜주시는분이기예 인민은 그분을 위대한 수령님을 부르는 그대로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그것이다.

인민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우리 인민은 얼마나 큰 수령복을 타고난것인가!

가사

소중한 흙 한줌

신현숙

황금열매 주렁진 발이랑에 들어서면
장군님의 영상이 눈앞에 어려오네
발머리에 흘러내린 소중한 흙을 모아
이랑에 엮어주신 못잇을 그 모습이

살기 좋은 이 땅에 만풍년을 불러오신
장군님의 목소리 가슴에 울려오네

흙 한줌도 아끼는 애국자가 되라고
뜨겁게 당부하신 그날의 그 음성이

수령님이 한평생 가꾸신 이 강산에
고마운 그 은정 행복으로 꽃피나네
우리 어찌 잊으랴 발머리 흙 한줌에
장군님 엮어주신 조국의 그 무게를

작가들이 현실체험을 잘하도록 이끄시어

작가들이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생활을 부단히 탐구하고 진지하게 체험하는것은 자질향상과 기량제고를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서 일생을 두고 중단없이 진행해야 할 필수적인 요구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작가들의 현실체험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시고 이 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여주시였다.

1970년 1월 16일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이날 영화문학작가들의 모임을 지도하여주시였다.

모임에서는 지난 기간 영화문학창작정형에 대한 토론들이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영화문학을 제대로 써내지 못한 작가들을 사려깊은 눈길로 바라보시다가 심의조에서 합의하여 통과시킨 작품들에 대해 촬영소들에서 세도를 쓰면서 타발하는것은 없는가, 지금까지 심의조에서 통과시킨 작품이 영화로 실현된것이 얼마나 되는가고 물으시였다.

작가들은 심의사업과 촬영소에서 작품을 평가하는데서 일련의 문제점들이 있다고 대답을 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그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작품을 기각시키거나 보류시키는데는 사상예술적수준이 낮은데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야기거리가 뻘하고 설정된 극적갈등도 심각한것이 없고 너무 저조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좋은 영화문학을 써내지 못하는데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근본원인은 작가들의 정치적자각이 부족하며 그들의 수준이 낮은것과 함께 현실체험을 하지 않은데 있다는것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사람은 자기가 아는것만큼 준비된것만큼 보고 듣고 느끼고 받아들인다고 하시면서 작가들이 시야를 넓히기 위하여 공부를 많이 하는것과 함께 현실체험을 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이렇게 지적하시였다.

《작가들을 생산현장에 내보내여 현실을 체험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작가들이 현실을 모르고 책상우에서 작품을 꾸며내려고 하여서는 안됩니다.》

그이께서는 작가들이 생활을 체험하지 않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억지로 꾸며내서는 작품을 바로 만들수 없다고 하시면서 작가들이 책상머리에서 작품을 꾸며내다보니 종자가 똑똑하지 못하다고 지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작품을 쓰겠다는 욕망만을 가지고 창작한 어느 한 영화문학을 실례로 드시면서 종자가 똑똑치 않았기때문에 영화로 완성하는데 많은 노력이 들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이윽고 작가들에게 현실체험정형을 물으시였다.

좋은 작품을 써내지 못한 작가들은 거의가 레외없이 현실체험을 잘하지 못한 사람들이였다. 응당한 귀결이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작가들을 둘러보시며 심중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사람들의 사색이나 정열에는 한도가 있는것만큼 좋은 작품을 창작하자면 현실체험을 하여야 합니다.》

그이의 말씀은 현실체험이 없이 책상머리에 앉아 작품을 꾸며내기만 하던 작가들의 가슴에 천만근의 무게로 안겨왔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말씀에는 작가들이 현실체험을 창작생활의 한 구성부분으로 여겨야 한다는 깊은 뜻이 어려있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이윽하여 작가들의 현실체험을 조직화할데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작가들을 두개조로 나누어 로동현장에 파견하여 생활을 진지하게 체험하고 돌아오도록 하며 글을 쓰지 못하는 작가들은 적을 떼가지고 한 1년씩 현실에 나가 일하면서 글을 쓰게 하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가르치시였다.

이것은 작가들의 사상예술적준비상태를 깊이 헤아려보시고 내린 현명한 조치였다.

작품들이 가지고있는 중요한 결함의 하나가 들끓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것이였다.

우리의 현실은 들끓고 사회주의건설은 비상히 빠른 속도로 전진하고있는데 문학예술창작사업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있었다.

이것은 작가들이 현실에 깊이 침투하지 않고있으며 현실체험이 부족한것과 많이 관련되어있었다.

작가들이 우리 인민의 보람찬 생활과 투쟁을 잘 모르고서는 사회주의현실을 옳게 그릴수 없으며 영웅적로동계급과 농업근로자들의 사상감정, 그들의 고상한 품모를 제대로 표현할수 없는것은 자명한 일이였다.

창조와 혁신, 투쟁과 랑만으로 들끓는 우리 나라의 현실과 인민들의 생활은 그자체가 다름아닌 예술이다. 작가들이 이러한 현실생활을 체험하

여야 인민들의 심금을 울리고 그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으며 투쟁을 고무하는 훌륭한 예술작품을 창작할수 있는것이다.

그러나 일부 작가들은 생활을 알아야 글을 쓸수 있다는것이 아니라 글을 쓰기 위하여 생활을 알아야 한다는 그릇된 관점을 가지고있었다.

생활을 체험하고 작품을 창작하는 근본립장부터 바로 서있지 않다보니 일부 작가들은 붓을 들고 생활소재를 찾아다니거나 책상머리에서 생활을 꾸며내고있었다.

생활은 전진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화발전하는데 어느 한때 체험한것만 가지고 작품을 쓴다면 그 자체가 벌써 전진하는 현실에서 뒤떨어진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시대의 앞장에 서나가면서 생활을 선도하고 이끄는 기수가 되여야 할 작가가 생활에서 뒤떨어지면 벌써 작가로서 사명을 다할수 없는것이다.

일부 작가들이 몇해째 이렇다할 작품을 써내지 못하고있는것은 현실에 뛰어들지 않고 창작실에만 불박혀있는것과 관련되어있었다.

작가들이 휴양소나 창작실에만 불박혀있는것은 결국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는것이나 다름없는것이다.

참으로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현실체험을 할데 대하여 주신 가르치심은 우리의 모든 작가들이 언제나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가 근로자들과 같이 생활하고 그들과 같이 기쁨을 나누며 백천투쟁을 체험하면서 생동한 좋은 작품들을 많이 써낼수 있게 한 강령적가르치심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작가들이 현실체험을 깊이있게 할데 대해서도 강조하시였다.

《작가들이 로동현장에 나가 생활체험을 똑똑히 하여야 합니다. 지금 작가들이 현실을 체험하라 나가기는 하지만 사실은 현실을 체험하는것이 아니라 견학을 하고 돌아오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참으로 현실체험의 실태를 환히 꿰뚫어보고 하시는 정당한 지적이었다.

어떤 작가들은 소품 한편 제대로 쓰지 못하면서 공장, 기업소에 나가 성실하게 현실을 체험하는것이 아니라 예술소조작품을 써주는것으로 대처하는 현상도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1971년 2월 15일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제사상연구모임을 지도하시면서 작가, 예술인들은 자연과 사회에 대한 안목이 넓고 아는것이 많아야 한줄의 글을 써도 뜻이 깊은 글을 쓸수 있으며 한마디의 말을 하여도 씨먹는 말을 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작가들이 현실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다방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작품에서 생활을 다양하고 깊이있게 그려내자면 현실체험을 깊이 하여야 하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작가들은 작품에 대하여 에누리하는 경우가 있지만 작품은 작가에게 한푼어치도 에누리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작품에는 작가가 아는것만큼 보고 듣고 느낀것만큼 생활이 반영된다고 말씀하시였다.

당에서는 이미전에 약속하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갈데 대하여 밝혀주었으나 적지 않은 작가들은 현실속에 들어가지 않고있었으며 들어간다 하더라도 유람식으로 한바퀴 돌아보고와서는 책상머리에 마주앉아 작품을 꾸며내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절절한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들끓는 현실은 작가, 예술인들에게 새로운 지식, 새로운 재능을 주며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끊임없이 갱신할수 있게 하는 풍부한 생활을 줍니다.》

현실생활은 천태만상으로 다양하며 기기에서 제기되는 사람들의 사상감정과 성격은 각이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새롭게 할수 있는 원천인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작가들이 현실에 대한 폭넓고 깊은 지식을 가지기 위하여 로동자, 농민들의 생활속으로 깊이 들어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이 구현되여나가는 구체적인 현실생활을 여러모로 깊이 탐구하고 직접 체험하여야 한다고 간곡하게 가르치시였다.

참으로 현실은 작가들에게 있어서 지식의 무궁무진한 원천이며 창작적재능을 꽃피울수 있는 비옥한 토양인것이다.

현실속에 깊이 들어간다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신세계에 깊이 침투하여 인간생활과 사물현상을 종합적으로 체험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작가의 창작적재능도 결국 현실에 대한 다방면적이며 심도있고 폭넓은 체험과 생활에 대한 끊임없는 축적을 전제로 하는것이다.

재능이 있어보이던 우리의 적지 않은 작가들이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창작적재능이 꽃피지 않고 이렇다할 작품을 써내지 못하는것은 중요하게는 현실과 떨어져 책상머리에 앉아서 순수 탁상문학을 하는것과 많이 관련되어있다. 생활과 현실을 떠난 작가에게는 창작적로쇠가 일찍 오며 열정도 식어지고 환상이 나래치지 않으며 재능도 무디게 되는 법이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현실을 취재할것이 아니라 뜨거운 열정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현실을 체험하여야 하며 현실속에서 작품을 구상하고 완성하는 혁명적인 창작기풍을 세워야 하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계속하여 작가, 예술인들이 현실속으로 들어갈 때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들어가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래야 넓은 정치적안목을 가지고 우리 인민들의 전진운동과 현실생활의 본질을 옳게 파악할수 있으며 인민들이 사랑하는 작품을 써낼수 있는것이다.

당의 의도를 잘 모르고서는 현실에 들어간다 하여도 생활을 정확하게 리해할수 없으며 우리 인민의 전진운동을 바로 파악할수 없는것이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이와 함께 작가, 예술인들은 열정을 가지고 현실체험을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아무런 열정도 없이 그저 관망하는 식으로 현실을 체험해서는 약동하는 생활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탐구할수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생산현장에 나갔다고 현실체험이 아니며 작업복을 입고 노동자, 농민들과 함께 일한다고 하여 생활을 탐구하는것이 아니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가르치심은 현실체험은

높은 정치적안목과 함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할때만이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깊이 깨우쳐 주고있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이날 현실체험을 작가들 뿐만아니라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이 다 할데 대하여서도 가르쳐주시면서 그들이 현실체험을 잘 하도록 지도일군들이 조직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렇듯 작가들이 현실체험을 깊이 하도록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고 세심히 보살펴주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스승의 손길이 있어 오늘 우리의 모든 작가들은 혁명적인 창작기풍을 철저히 세워 언제나 현실속에서 인민대중의 들끓는 모습을 취재하고 배워나가면서 창작에서 끊임 없는 양양을 일으켜나가고있는것이다.

고향집 러발

리찬영

정일봉기슭
고향집마당가에
소담한 러발
고향집 러발

바라볼수록
부루 쭈갓의 푸르름
이 마음에 차오르는
그 싱싱함

항일의 녀전사
김정숙어머님
손수 김매시던 호미질소리
오늘도 들려오네 백두의 러발

바라보면
아버이장군님 그리도 좋아하시던
부루, 쭈갓 씹 어서 드리자고
새벽부터 가꾸시던
어머님 그 모습 오늘도 어려오네

리명수마을에서 가져온
고추장단지예
한바가지 쌀을 안으시고
사령부로 향하시던 그 발걸음소리
소리없이 피어나던 그 웃음도 다 보여오는듯

엄혹한 흑한이 밀려와도
시들게 하지 못한 그 푸르름
살벌했던 《토벌》의 그 총칼도
범접하지 못한 그 싱싱함

백두의 봄
조선의 봄을 안고
항일의 그날에도 기쁨을 가꾸던
고향집 봄

아, 이런 여유가
그날에 벌써 펼쳐져있었음
녀전사의 그 진정이
지금도 꽃피나 전해지고있음
가슴 뭉클해

속연히 머리드니
정일봉의 승엄한 기상이
누리에 뿌리는 찬란한 빛발
그 빛발 안고서 싱싱히 피어나는
고향집 러발

오, 온 조국땅에 꽃피나는 풍요함이
여기에 첫 씨앗을 묻었구나
아버이를 따르는 인민의 효성이
여기에 억센 뿌리 내려있구나

새로운 민족적성격형상에 이바지한 랑만주의수법

-단편소설 《살아계시다》를 읽고-

백현숙

지하철도 전승역이다.

내가 첫 강의내용을 머리속에 되새겨보며 전동차를 기다리는데 《아지미!》 하고 찾는 소리가 옆에서 들려왔다. 돌아보니 아래우를 하얗게 입은 내 어머니벌되는 늙은이가 나를 바라보고있었다.

《삼흥역에 가자면 이 차를 타야 하나?》

《예, 그래요. 저와 같이 내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디 가시나요?》

《오늘 우리 농장에서 금수산기념궁전에 간다네. 우리 수령님을 뵈우려... 그런데 꽃다발도 없이 가자니 어쩐지 마음이 허전하구만. 집뜨락에 꽃은 많이 가꾸어놓았는데... 자꾸... 그만두라누만.》

그 어머니는 벌써 몇마디안팎에 눈물이 글썽해진다. 그사이에 전동차는 다가오고...

별에 타고 어딘가 과묵할것 같이 느껴지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느라니 문득 한 늙은이의 초상이 떠올랐다. 한손에는 호미를 들고 꽃길 한가운데 서서 상념에 잠겨 두눈을 쪼프린채 저 멀리 큰길을 바라보고있는 단편소설 《살아계시다》(김홍익)의 주인공 분녀. 깊은 감동속에 소설을 읽으며 머리속에 그려보았던 그 모습을 이 어머니에게서 다시 보게 되다니...

나는 그때 단편소설을 읽으며 울었었다. 피눈물의 7월이 다시 생각나고 글줄마다에 흐르는 우리 인민모두의 애절한 심정이 나의 감정으로 뜨겁게 안겨와서...

작가는 소설에서 그 어느 민족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주체시대에 형성된 우리 **김일성** 민족의 성격적특질을 한 농촌 늙은이의 형상을 통하여 랑만주의적수법으로 진실하게 보여주었다.

나는 조용히 되뇌여본다.

김일성 민족! 그 이름만 들어도 긍지와 자랑으로 가슴 뭉뚱해지고 이 세기에 태어나 **김일성** 민족의 한 성원이 된 영광으로 심장은 뛴다.

지난날 운명의 노예였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의 손길아래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세계의 주인으로 최상의 높이에 올라섰으며 그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승리만을 창조하는 가장 존엄있고 행복한 인민으로, 백전백승의 영웅적인민으로, **김일성** 민족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 인민은 자기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부어 키워주시는 아버지수령님을 민족의 아버지로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며 절대적으로 숭배하여왔다.

아버이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흠모심과 절대적인 숭배심, 그것은 그 어느 나라 인민에게서도 찾아볼수 없는 우리 인민에게만 고유한 가장 특출한 속성이며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스스로 깨달아 굳힌 민족성이다.

머리 흰 분녀가 내 머리속에 깊이 자리잡은것도 소박하고 과묵한 그 형상에 **김일성** 민족의 성격적특질이 그대로 스며여있기때문이라.

내 눈앞에 분녀가 다가온다. 아침이슬 머금은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다발을 소중히 안고서. 그리고는 조용히 그러나 무게있게 말한다.

《선생, 우리 수령님께서 그렇게 쉬이 가실것 같소? 아니야, 난 믿지 않아... 우린 수령님을 떠나 못살아. 수령님도 우릴 버리구 못가시구...》

작가는 분녀를 어쩔수 없는 엄연한 현실을 믿지 않고 부정하는 인물로 형상하였다.

12시 중대보도시간에 처음으로 수령님의 서거에 대한 뜻밖의 소식을 들었을 때도, 손자인 일국자와 학급아이들이 대원수님 동상에 드릴 꽃을 얻으러 왔다고 울먹이며 말할 때도, 결혼식에 쓸 꽃을 달라고 왔다가 분녀에게서 거절을 당했던 젊은 시추공 그리고 부락당비서인 아들이 찾아왔을때도 분녀는 그들의 말을 다 부정한다.

《...그래, 넌 우리 수령님께서 그렇게 가실것 같으니. 응? 아니다, 아니야!》

그렇게도 믿지 않으려고만 하던 비보가 현실적이라는것을 제 눈으로 보고온 뒤에 분녀는 달라졌다. 그동안에 그는 눈에 띄게 수척해지고 늙었다.

그는 출창 수원지에 불어살며 꽃밭을 수원지밖에까지 배나 더 늘꾸었고 아버지수령님께서 마을에 오셨던 그 시각에 그이께서 걸으신 로정을 따라 《새벽산보》를 어김없이 하였다.

그 나날은 아버지수령님의 서거에 대하여 뼈아픈 자책속에 의식하는 나날이었으며 한편으로는 수령님께서 우리결을 영원히 떠나실수 없다는 새로운 주관적념원이 현실적인 사실을 밀어내고 자리잡는 나날이었다.

그래서 드디어 일국자에게 이렇게 말한다.

《...난 요즘 우리 수령님께서 가시지 않았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구나. 혹시 우리 수령님께서 너무 피곤에 몰려 깊은 잠에 드시지 않으셨을까? 그럴수도 있지 않겠니. 저 하늘의 해도 하루낮을 비치고는 하루밤 쉬는데 우리 수령님이사 80고령이 넘도록 언제한번 편히 쉬어보셨니? 그러시면

서 할수있는 일은 다 해놓으셨지. 그러니 **김정일** 장군님께 뒤일을 맡기시고 지금 쉬고계시는지도 모른다. 정말 그럴수 있지 않니? 이제 피곤을 쫓 푸시고 환히 웃으시며 일어나실수도 있지 않겠니?!!》

준엄한 현실을 외면할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분녀는 기어코 그 사실을 받아들일수 없었으며 자신의 주관적념원을 더욱 확고하게 내세운다.

아버이수령님은 우리결을 떠나가실수 없다!

작가는 아버지수령님의 서거를 부정하는 분녀의 성격형상의 생활적기초가 어디에 있는가를 타당성있게 짚아주고있다.

분녀는 먼동이 트기전 이른새벽 동구밖 우물터를 찾아주신 아버지수령님을 만나뵈온 마을의 유일한 녀성이였다. 그때 수령님께서서는 그 어느 조합간부도 관심하지 않는 이고장 아낙네들의 물고생을 헤아리시여 누구도 깨우지 못하게 하시고 진논까비 질적거리는 달구지길, 미끄러운 논두렁길을 걸으시며 수원지터를 잡아주시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자리잡아주시 수원지의 관리원이 된 그날로부터 40여년 세월.

길아닌 길을 헤쳐가신 아버지수령님의 발자취가 평생토록 가슴속에 아프게 자리잡아 그이께서 다시 농장을 찾아오시는 그날에는 밭에 흙 한점, 논 한점 묻히지 않고 백화만발한 꽃길을 걸으시도록 해드리려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기다리며 철따라 봄에 오시면 봄에 피는 꽃을, 여름날이나 가을날에 오시면 그 계절에 피어나는 꽃을, 지어 밤에 오시면 밤에만 핀다는 꽃을 피워드리려고 손에서 호미를 놓지 않던 분녀였다.

그러한 분녀에게 있어서 우리 수령님은 하늘님이시였고 해님이시였다.

수령님을 떠나서는 이 땅에 사는 인생은 말할것도 없고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에 이르기까지 그 존재에 대하여 생각조차 할수 없었다.

그래서 분녀는 수령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려 근 반생을 살아왔다. 그런데 반생의 애절한 기다림이 무너진 이 현실을 믿는다는것은 온 넋을 바쳐 수령님 오실날만 손꼽아 기다리며 사는 삶의 의미를 부정한다는것이 아니겠는가. 인민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인민의 소원이라면 하늘의 별도 따다주실 아버지수령님께서 결코 자기만이 아닌 우리 인민모두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먼저 가실수 없다.

이처럼 현실부정은 확고한 주관적론리에 기초하고있다.

부정은 곧 새로운 의미의 확인을 동반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살아계신다!

작가는 수령님과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우리 인민의 성격을 청천벽력과 같은 비보를 부정하는 속에서 드러내보이면서 그이를 영원히 모시고 살고싶어하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의지와 념원을 량만주의적수법으로 진실하게 드러내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소설에서 량만주의수법도 널리 탐구리용하여야 한다.》

량만주의수법은 객관적인 생활의 논리보다 주관적인 리상의 논리를 더 내세우는 조건적형상수법이다.

작가는 여러 량만주의수법중에서도 꿈과 상상 환상에 의한 량만적수법을 진실한 사실주의적형상창조에 적극 이바지하는 원칙에서 효과적으로 리용하고있다.

분녀는 탈의실문턱에 불편하게 걸터앉은채 줄다가 꿈을 꾀다.

한여름 오후의 해빛에 활짝 웃는 꽃밭.

어디선가 들려오는 차소리가 멎고 발자국소리가 가까와온다. 점점 몸전체의 자태가 서서히 드러나는데... 아, 수령님이시다. 술한 꽃송이들이 수령님의 옷자락에 어리광치며 머리를 숙인다....

수령님께서서는 꽃 한송이를 꺾어드시고 소중하게 굽어보시며 말씀하신다.

《이렇게 수원지를 잘 꾸려놓고 내가 오기를 기다렸단 말이지! 검은 머리가 희도록 온통 꽃으로 길을 장식해놓고... 고맙소, 고맙소.》

수령님께서 누군가의 어깨를 짊어주시려는듯 손을 내미시는데... 분녀, 자기는 없다.

일국이의 부름소리에 아쉽게도 꿈속에서 깨어난 분녀는 일국이의 손에 이끌려 위대한 수령님의 대형초상화앞으로 달려간다.

그에게는 황금빛 저녁해빛속에서 자기를 향하여 밝게 웃고계시는 모습이 초상화로만 보이지 않았다. 그이는 살아계시는 수령님이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그 아침처럼 반나마 된 머리칼을 바람에 흩날리시며 찾아오시여 말씀하신다.

《허허... 이제 물도 팔팔 나온단 말이지? 그럼 땀구만, 땀어!》

분녀는 눈부신 수령님의 영상에서 눈길을 떼지 못한채 일국에게 속삭인다.

《일국아, 내 뭐라든. 수령님께서서는 꼭 오신다고 했지.... 백날도 못되어 가시던 모습그대로 환하게 웃으시며 우리 마을에 오셨구나.》

작가는 비보를 부정하며 아버지수령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신다고 의식하고싶어하는 우리 인민의 마음을 감정조직의 높은 마루에서 이처럼 꿈과 환상에 의한 량만주의수법으로 진실하게 드러내고있으며 꿈세계와 아버지수령님의 대형초상화를 모신곳으로 달려갈 때의 현실적인 세계를 잘 결부시켜 소설의 전반에 흐르던 비분의 감정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확신의 안정된 감정세계로 전환시키고있다.

분녀는 언제나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살아계신다!

그렇다!

이것은 분녀의 주관적인 념원이나 리상이 아니라 우리 인민모두의 념원이고 리상이었다. 그래서 그 형상은 더욱 진실하고 생동한 형상으로 부각되는것이 아닌가. 그 진실성은 오늘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도덕과 의리로 현실화되어 아버지수령님을 영원히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모신 오늘의 영광넘친 현실이 립증하고있다.

나는 진실한 인간의 형상, 분녀를 사랑한다.

비록 말이 적고 무뚝뚝한 늙은이지만 우리 **김일성**민족의 지향과 념원을 소중하게 간직한 귀중한 형상이기에.

분녀를 귀중한 형상이라고 하는것은 분녀의 형상이 아버지수령님을 못잊어하고 영원히 높이 모시고싶어하는 우리 인민의 전형으로 그려졌을뿐 아니라 그 형상에 소설문학에서 사실주의적형상창조에 량만주의수법을 적극 탐구리용하려는 작가의 고심어린 노력이 깃들어있기때문이다.

작가는 성격형상에 량만주의수법을 리용하는데서 세련된 솜씨를 보이고있다.

분녀는 수령님의 서거에 대한 소식을 접한 때로부터 그 사실을 인정하기는 커녕 점점 더 시간이 흐를수록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강렬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 소설에서는 바로 이런 감정의 고조기에 꿈에 의한 환상의 수법을 리용하여 그렇게도 애타게 수령님을 뵈고싶어하던 소원이 풀리게 되는 장면을 펼쳐보이고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살아계신다고만 믿고싶은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은 그 어느 다른 수법이 아닌 주관적인 리상의 논리를 따르는 량만주의 수법으로써만 가장 생동하게 그려낼수 있다.

작가는 가장 필요한 대목에 꿈의 수법을 리용하면서도 그 꿈의 내용을 허황하게 그리지 않고 진실하게 사실처럼 느껴지도록 하는데 각별한 주의를 돌렸다.

아버지수령님께서 그 꿈에서처럼 소박한 모습으로 조용하게 인민들속으로 들어가신다. 그렇게 소탈하게 웃으시며 그렇게 허물없이 말씀하시며 그래서 사실과도 같이 생동한 그 꿈장면과 그 뒤에 리용한 상상환상장면이 더욱 독자들을 울리게 하는것이다.

작가는 작은 단편소설양식에 꿈과 의도적상상에 의한 량만주의수법을 조금도 무리가 없이 리용하고있다.

량만주의수법이 자기의 특성을 드러내면서도 진실한 형상창조에 이바지하자면 타당성있는 조건을 지어주어야 한다.

소설에서는 량만주의수법리용의 조건부를 분녀의 성격형상속에서 찾고있다.

분녀는 비교적 파묵한 늙은이지만 그에 어울리지 않게 환상이 많은 사람이다. 아마도 그것은 그가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그리움, 기다림의 애타는 마음을 안고 혼자서 갖은 생각을 다하면서

양수기를 돌보며 꽃밭을 가꾸고있다는데로부터 설정된 성격일것이다. 그러한 분녀이기에 중대보도시간을 앞둔 11시 30분무렵에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서정적인 노래를 들으면서 진논까비 흘날리던 그 새벽 진창길을 걸어오신 수령님을 그려보았으며 수령님께서 다녀가신 길가에 핀 이슬먹은 꽃송이들을 대할 때는 그것들이 자기를 쳐다보면서 《수령님께서 왜 일찌기 심장의 고동을 멈추셨는지》 생각해봤는가고 묻고있는듯한 환상에 사로잡히어 그앞에 고개를 숙인다. 그리고 드디어 아버지수령님께서 수원지를 찾아오시는 꿈을 꾸게 되며 꿈에서 깨어나 아버지수령님의 대형초상화가 모셔진 언덕으로 달려갈 때에는 그이께서 마을에 찾아오시어 이젠 물도 팔팔 나온다니 됐다고 만족해하시면서 온 세상이 환하도록 웃고계시는 환상을 펼쳐본다.

여기서 앞에서 쓰고있는 두 환상은 사실주의적인 환상으로서 정성들여 꽃을 가꾸게 된 잊지 못할 사연과 가슴아픈 비보에 대한 분녀의 감정세계를 진실하게 드러내는데 이바지하면서도 뒤에서 리용하게 될 량만주의수법리용의 전제, 즉 이 늙은이에게 특징적인 환상많은 성격의 조건부로 리용되고있는것이다.

작가는 꿈세계로부터 현실로 돌아오는 계기를 자연스럽게 지어주면서도 뒤이어 아버지수령님의 대형초상화를 우러러 달려가는 분녀와 그의 상상환상을 정서적양양이 일어나는 계기에 무리없이 리용하는데서 묘기를 보이고있다.

량만주의수법은 강한 정서성을 자기의 미학적 특징으로 하고있다.

작가는 이 수법이 가지고있는 특성을 잘 리용하여 영원히 아버지수령님을 우러러모시고 효자 효녀의 도리를 다하고싶어하는 우리 **김일성**민족의 성격적특질들을 진실하게 드러낼수 있었다.

시대정신을 드러내려는 작가의 끝없는 탐구와 고심어린 노력속에 그지없이 아름다운 인간의 전형이 창조된다.

인민은 이런 작가들을 사랑하고 존경한다.

눈앞이 환해지는바람에 나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삼흥역이다.

《어머니! 잘 다녀가세요.》

《내 자네 마음까지 합쳐서 인사를 드리겠네. 풍년든 우리 농장소식도 말씀올리구...》

어머니는 간다. 아버지수령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모신 주체의 최고성지로 분녀가 간다. 아니, **김일성**민족의 혈통을 지닌 우리 인민모두가 예나 다름없이 아름다운 공산주의노을속에서 태양같은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를 반겨맞아주실 위대한 수령님을 뵈우러 간다.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따라 끝까지 혁명할 크나큰 결심과 맹세를 안고...

녀전사의 길

조근

명도철상위는 휘청거리며 강운심의 집을 나서고 있었다. 마당에는 그가 이른 봄날에 씨를 뿌려준 갖가지 꽃나무들이 망울을 터치고 있었다. 벌들이 날아다녔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 모든것이 공허하게 느껴졌다. 곧고 튼튼한 두다리가 남의 것처럼 후들거렸다.

운심의 할머니가 황황히 따라나왔다. 대문밖에서 할머니는 옷고름을 들어 눈구석을 찍었다. 상위는 고개를 떨구고 서있었다. 털많은 누렁개가 그들의 발치에서 매썹이를 쳤다.

《저도 다 이해합니다. 할머니, 아무쪼록 건강하십시오. 운심동무를 부탁드립니다.》

상위는 어슬픈 미소를 지었다. 그의 모습이 대문앞에서 뻗어간 하얀 오솔길을 따라 다박솔이 우거진 산굽이로 터벅터벅 다가설 무렵이었다. 여태 잠잠하던 옷방창문의 보라색 휘장이 불안스레 떨며 젖혀졌다. 그사이로 처녀의 창백한 얼굴... 눈물이 고인 커다란 눈이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하얀 오솔길 중간에 할머니가 엉겨주춤 서있고 명도철은 벌써 숲속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따라가던 누렁이도 심드렁하니 멈춰섰다.

처녀는 멀어져가는 상위의 뒤모습-붉은줄이 돌아간 평상모며 잔등과 허리를 조인 군관혁띠며 발에 연추가 달린듯 무겁게 옮기는 걸음씨며 그 모든것을 영원히 새겨두려는듯 지켜보았다.

문득 상위가 걸음을 멈추었다.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지 마지막으로 돌아보려는지... 아니, 미구에 그의 모습은 다시 움직여 숲사이로 아주 사라졌다.

눈물이 불을 타고 흘러내렸다. 처녀는 입술을 깨물며 입속말로 중얼거렸다.

《잘 가세요. 부디 건강하세요. 그리고 절 영영 잊어주세요. 고마워요. 전 동무를 잊지 않겠어요.》

링 빈 오솔길-다박솔의 푸른 빛이 눈을 찌르고 흰자갈 검은 바위가 해빛에 유정한 오솔길, 하염없이 바라보느라면 상위의 정든 모습이 그냥 머물러있는것 같기도 하고 다시 보면 푸른 하늘만 아득히 펼쳐져있다. 저 하늘, 수리개처럼 희망이 한껏 나래쳐올랐던 하늘...

강운심은 뿌ית한 눈물속에 명도철의 앞길을 뜨겁게 기원했다.

《부탁해요. 수도의 하늘을 잘 지켜주세요.》

6월초에 조순아의 편지가 왔다. 강운심이 각별

히 사랑해주었던 포장이다. 한달이 멀다하게 부대소식을 전해주어 침상의 말없는 벼으로 힘으로 되었던 사관이다. 그런데 이번 편지는 옛소대장을 자못 당황하고 불안케 만들었다.

조순아는 중대가 두달후에 있게 될 실탄사격을 앞두고 맹훈련을 하고있다는것, 명도철상급참모가 립시 소대까지 말아보고있다는것 등을 쓰고나서 《언니》라고 불렀다. 언니-그가 이 말을 얼마나 쓰고싶어했는가를 운심은 잘 안다. 군대때는 엄격한 소대장의 자존심을 건드릴가봐, 제대후 편지에서는 《영원한 나의 소대장》임을 강조하려는듯 쓰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편지에서는 《언니》라고 써야 할 필요를 느꼈던 모양이다.

《언니, 상급참모동지가 요즘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기나 하세요? 식사도 잘 안드시고 수염도 깎지 않으시고... 앓는 사람처럼 되었어요. 보기가 측은해요. <명도칼참모>로 불리우던 도철동지가 말이에요... 주제넘게 알지도 못하면서 언니 문제에 끼여든다고 욕을 해도 좋아요. 언니 그래 여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수 있어요? 대답해보세요...》

강운심은 침대우에 그린듯이 누워있었다. 손에 든 편지가 숨결을 따라 오르내렸다. 열어젖힌 창문으로 초여름의 청신한 바람이 불어들었다. 아래방에서는 할머니가 고려약을 써는 소리, 약탕관이 끓는 소리가 들려왔다. 약냄새가 방안을 가득 채웠다. 명도철이 매번 올 때마다 들고온 약초들이다. 전사들이 보낸거라며 처방까지 꼭꼭 써주었다.

《도철동지...》

불현듯 명도철의 모습이 눈앞을 짝 메운다.

《동문 정말... 어찌자는거예요?!》

생각지 말자 하면서도 때없이 떠오르는 모습, 쓰고 달았던 모든 일이 아름답고 귀중하게만 추억되는 명도철... 순아의 편지는 또다시 운심의 가슴을 풍랑을 만난 배처럼 흔들어놓았다.

...소위의 별을 달자 운심은 그토록 희망하던 수도교의 고사포중대에 배치되었다. 꿈에도 못있던 사적포진지... 그러나 새 부대의 첫인상은 즐거운 편이 못되었다. 부대지휘관에게 도착보고를 하고 중대로 안내할 담당상급참모를 찾아갔을 때였다. 벽거울을 마주하고 면도를 하고있던 상위가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나갔다가 5분후에 들어오시오.》

순간에 가슴이 열어들고 낮이 화끈 달아올랐다.

밖에 나가 서성거리며 마음을 다잡고 다시 들어갔다. 명도철은 면도를 끝내고 모자를 쓰고있었다. 보고를 받는 명도철의 절도있고 정중한 몸가짐은 윤심을 놀라게 했다. 해별에 타서 검실검실 하면서도 매끈한 얼굴과 가늘게 뜬 칼날같은 시선, 좁고 날이 선 코와 얇은 입술- 여자처럼 섬세하게 생긴 남자였다. 상위는 팽성한 눈길로 대체 이 시원스럽게 생긴 처녀군관의 무관다운 급새가 얼마나 되는가를 뜯어보는것 같았다. 강운심은 불안을 느끼며 눈을 내리깔았다.

《중대로 갑시다.》

쉬라는 말도 없었다. 곧장 화력진지로 데리고 갔다. 가는 도중 물거나 자랑하거나 소개하는 말도 없었다. 뒤를 따라가며 윤심은 바깥 마음의 탕개를 조였다.

(간단치 않겠구나.)

포좌지는 고지정점에 있었다. 여러문의 포신들이 하늘로 머리를 들고있었다. 발아래로 수도의 전경이 멀리 그림처럼 안겨왔다. 견고하게 다져진 구축물들과 푸른 잔디, 티 하나 없는 포탄고들과 소제도구들... 중대의 오랜 연혁과 전투력이 강렬히 느껴졌다.

명도철이 첫 포결에 멈춰섰다.

《1포요. 스무여해전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이 녀성중대를 찾아주셨소. 그때 훈련모습을 보여드리고 치하를 받았던 포요.》

명도철은 포가 지닌 영광과 경력에 대해 말했다. 목소리는 흥분을 누르느라 떨리고있었다.

《...세월이 흘렀소. 포의 주인들도 여러번 바뀌었고. 그러나 1포는 언제나 중대의 영예와 사랑을 떨쳐왔소. 사격포의 임무가 무겁소. 힘을 합쳐 잘해봅시다. 나도 녀성중대를 갓 담당했소. 동무는 자진해서 여기로 왔고. 동무를 믿소...》

윤심은 승엄한 감정에 휩싸였다. 검푸른 포체를 살펴보고 좌지의 구석구석과 모래알 하나도 깊은 감회에 젖어 보고 또 보았다. 그는 오래도록 자리를 뜨지 못했다...

명도철은 엄격하고 요구성이 강한 상관이었다.

그는 부대 상급참모로서 이 녀성중대를 담당하고 중대에 내려와 살고있었다. 말이 없고 실천이 철저하고 끊임없이 사업을 연구하고 행동이 두부모자르듯 각이 나고 모가 났다. 일단 과업을 준것은 밤이 열이라도 받아냈다. 요구성에 있어서 남에게 양보를 모르는 윤심이조차 명도철을 따라가기 바빴다. 중대의 기준소대로서 아무리 잘하느라 애를 써도 그의 눈에 걸리는것이 한두가지 아니였다. 다른 소대 결함까지 뒤집어쓰고 옥먹을 때는 별스레 자기와만 해보는것 같아 반발심이 치밀었다. 그러나 내색을 하지 않았다. 감성이 우세하고 다양한 생활에 대한 욕구가 강한 녀성

중대를 강철로 만든다는것이 어디 쉬운가. 명도철같은 지휘관이 있어야 했다. 하면서도 윤심은 그를 대할 때마다 느끼는 서운한 심정, 야속한 마음을 어찌할수 없었다. 처녀들의 심리에 대한 물리해... 지나친 주관과 요구성, 전사들과의 간격-가령 처녀들의 호의나 친절을 무시하는듯한 팽담성, 마치 그것이 지휘관의 체모를 높여주는듯한 태도... 강운심은 같은 지휘관의 립장에서 명도철의 부족점을 보충해주는데서 자기자리를 찾았다. 전사들의 가슴에 얹혀있는것, 《억울》한것, 원망을 사는것-그것을 깨우쳐주고 풀어주고 따뜻하게 품어주자. 그래서 소대의 규률이 참다운 피가 뛰는 규률이 되게 하자. 그러자니 남모르는 고충을 겪어야 했다. 때로는 명도철의 오해도 샀다.

《동문 뭐요? 당장 조순아를 불러내시오.》

《참모동지!》

윤심은 애원에 차서 바라보았다.

《집행하시오. 무조건!》

명도철은 무자비하게 잘랐다. 눈보라가 무섭게 몰아치는 밤이었다. 온 산야의 눈을 걷어모아 포좌지에 뿌려던지는것 같았다. 종일 퍼붓는 눈을 쳐내느라 지쳤는데 밤이 되니 눈보라가 또 그만큼 눈을 쌓아놓았다. 전사들이 잠도 못자고 눈을 쳐내고있었다.

《순아동문 앓고있습니다.》

《알고있소. 37도요. 견딜수 있소.》

《아니... 그 동문 몸이 말썽데다 감기까지... 그래서 제가 약을 먹고요 눕혔습니다.》

어조에는 소대장의 권한과 체면도 존중해야 하지 않느냐는 무언의 항변이 풍겼다. 명도철은 짐짓 어딘가를 응시하다가 자신에게 화를 내듯 언짢게 반복했다.

《집행하시오.》

고지의 뽀얀 눈보라속... 저아래 산기슭에서 유혹하듯 따뜻하게 빛나는 병실의 불빛을 향해 윤심은 맥없이 걸었다.

조순아는 모포를 쓰고있었다. 그는 소대장의 착잡한 표정에서 무슨 기미를 알아차렸는지 일어나려고 했다.

《저때문에... 잠전에 상급참모동지가 왔댔어요. 나가겠어요. 이쯤한것도 이겨내지 못하면 제가 무슨 사적포장이겠어요.》

윤심은 그의 어깨를 눌러 주저앉혔다.

《꼭꼭말고 누워있어요. 알았어요? 이젠 소대장의 명령이야요.》

무정한 사람, 돌같이 차거운 사람... 강운심은 명도철에 대한 노여움이 바글바글 끓어올랐다. 온밤 순아의 머리말을 지켜앉아 간호를 했다. 자정이 넘자 순아는 고열로 신음하며 가끔 헛소리를 쳤다.

《어머니… 사과…》

농장마로 가는 시오리길은 강산같이 쌓인 눈과 눈보라에 묻혀있었다. 새벽녘 미명속에 하들도 땅도 오솔길도 삼라만상이 온통 희끗희끗하여 향방을 가늠할수 없었다. 추위는 칼끝으로 뺨을 찌르듯하고 눈보라는 고막이 터지게 울어댔다. 무릎까지 눈속에 빠져 발을 뽑기 힘들었다. 그럴수록 중대를 떠나올 때 띄어보았던 불죽인 명도철의 침실이 눈에 얼른거리고 그앞에서 망설이던 자신이 후회되었다. 그때 깨웠어야 했다. 전사가 헛소리를 치는데 상관이 태평스레… 무정한 사람, 피가 없는 사람… 허우적거리던 윤심은 발을 헛짚으며 눈웅덩이속으로 굴러내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가… 문득 사람의 목소리가 실낱같이 와닿았다.

《손을 내미시오. 내 손을 잡소-》

안간힘을 쓰며 눈웅덩이우로 끌려나온 윤심은 통나무처럼 굳어졌다.

《소대장동무가 어떻게? 아- 순아때문에… 사과를 찾습데까? 여기 있소. 자 가가요.》

무거운 배낭을 걸머진 명도철의 뒤를 따라가며 강윤심은 의혹과 자책과 감동으로 어리둥절해졌다.

(어떻게 알가?!)

명도철은 그답지 않게 쾌활해졌다. 말도 해괴했다. 강윤심은 놀라운 눈으로 그를 주시하며 귀를 강구었다. 말소리는 눈보라에 이울락꿍울락했다.

《…순아는 감기에 움짱못하오. 체질이 그렇소. 사과를 좋아하지… 처녀들이란 참… 아마 날 무척 원망할거요… 난 녀성들을 잘 모르오. 우리 집 식구 일곱중에 녀성이란 어머니 한분뿐인데 그야 어머니지 녀성으로 생각되지는 않거든… 그저 군인이다, 군인은 하나의 규정에 움직인다, 그러다나니 난 순아 역시 남성군인들처럼… 가령 난말이요. 병사때 감기에 걸리면 약은 무슨 약… 침대는 더욱 몰랐고… 행군 십리로 땀을 쥘 뺨거나 작업으로 온몸이 물주머니가 되면 툭 떨어지군했소… 불은 불로 다스린다는격인데 순아한테도 그걸 요구했던거요…》

강윤심은 일언반구 없었다. 명도철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바싹 따라갔다. 따라가면서 될수록 자기의 내심-무엇인가 자꾸 묻고싶은 마음, 사죄하고싶은 심정, 고마움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애썼다. 어째서 그렇게 되는지 자신도 알수 없었다. 활달하고 행동적인 형인 윤심은 난생 처음으로 자기 행동을 구속하는 그 무엇인가를 느꼈다. 그리고 그것에 반발하고 화를 내고싶었다. 그럴수록 이 새벽의 맵찬 추위와 눈보라가 더 달게 여겨지고 주위의 모든 것이 환희롭게 안겨오는것이였다. 아아, 그 새벽

길의 차디찬 눈속에서 뜨겁게 뛰던 심장의 피방울 하나가 사랑의 첫 싹으로 움터오른것일까.

…강윤심은 맞은켄 벽우에 정히 걸어놓은 군복과 군모, 군관혁띠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지금도 녹이 쓸세라 닦아놓은 군모의 별과 혁띠의 금속부분들, 자주빛이 은근한 가죽띠와 어깨반도…

윤심의 눈앞에는 명도철이며 조순아… 그리운 동지들과 얹혀졌던 생활의 단면들이 짜릿한 추억속에 자꾸 떠오르는것이였다.

…훈련의 실참 조순아가 생글거리며 다가왔다. 그는 살오른 불깃불깃한 얼굴에 온통 웃음이 함박꽃이였다.

《소대장동지, 한가지 물어도 좋아요?》

《뭘데요?》

《아이 땀 좀…》

순아는 군복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소대장의 이마를 푹푹 눌러댔다. 인정에 무른 순아였다.

첫눈에 신임소대장에게 반해버린 모양이다. 남다른 이야기를 하고싶어했고 가까이하려 했다. 그걸 알면서도 윤심은 전사들에게 주는 영향을 고려하여 편애하지 않았다.

윤심은 자기 손수건을 꺼내 순아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그것을 바란듯 순아는 더없이 행복하고 정겨운 눈으로 소대장을 응시했다.

《소대장동지, 상급참모동지가 어드래요?》

윤심은 잠자코 있었다.

《머리를 돌려요. 귀밑을 닦게.》

둘은 풀밭에 앉았다. 순아는 윤심의 무릎을 베고 머리를 돌려대며 소곤거렸다.

《너무 딱딱하지 않아요? 차구… 말쑥하구… 날이 서서 어디 범접이나 하겠어요? <처녀군인들, 나를 보시오. 이게 군인의 면모요. 군인의 동작이요. 무관의 기품이요.> 해서겠지요. 호호…》

《순아동무.》

《예?》

《자기 상관에 대해 뒤말을 하는건 옳지 않아요. 알겠어요?》

순아는 시무룩해졌다.

그것도 한순간, 다시 활기를 띄었다. 끝없이 맑은 눈길로 하늘가 어딘가를 바라보며 공상에 잠기였다.

《소대장동지, 나 가끔 이런 생각을 하군해요..》

《무슨 생각?》

《언제면 장군님께서 우리 포에 오실가 하는…》

윤심은 갑작스러운 충격에 목이 꽉 메였다.

《교양실에 그 사진 있잖아요. 어버이수령님과 장군님께 꽃다발을 드린 녀성소대장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했을가 하구요… 지금은 아마 어머니가 되었을테지요. 어디 있는지 보고싶군요.》

윤심은 순아의 머리를 짚 부둥켜안았다. 심장이 튀어날듯 세차게 고동쳤다. 순아가 또 말했다.

《소대장동지.》

《으응?》

《너잔 꼭 시집가야 하나요?》

《무슨 똥판지같은 소릴...》

《아니예요. 그 소대장동지도 말이예요. 남자였더라면 지금도 부대에 있었을거예요. 음- 난 시집안갈래요. 제대두 안되구... 할머니 될 때까지 사격포를 지킬래요. 그래서 꼭 장군님을 뵈올래요. 소대장동지두 그러자요. 예?》

《그래그래... 할머니 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 포에 장군님을 꼭 다시 모시자요.》

뜨거운 이슬이 순아의 이마에 떨어졌다.

《어마-우시네.》

《기빠서... 기빠서 그래요. 순아, 이제 포기동훈련이 있게 돼요. 준비를 잘하자요. 사적포의 본때를 보이자요.》

《예!》

...조순아! 할머니가 될 때까지 초소를 지키고 언약했던 미더운 1포장-그 포장이 지금 윤심이에게 명도철에 대한 책임을 묻고있다. 명도철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와 결혼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명도철이 고민하고 수척해지고 있다고 되려 추궁하고있다. 장차 어찌하면 좋을가. 윤심은 아무리 상상해도 수염을 깎지 않은 꺼칠한 명도철의 얼굴은 상상해낼수 없었다. 언제보나 끼끗하고 사색과 침착성을 흐트리지 않는 강직한 표정이 아니었던가.

어느날 아침검사준비시간이었었다. 직일관완장을 두른 조순아가 녀성군관침실로 살머시 들어섰다. 다른 소대장들은 세면장에 가있고 윤심이 혼자서 화장하던 참이었다. 순아는 윤심의 귀에 입을 대고 속삭거렸다.

《소대장동지, 상급참모동지가 혁피를 좀 빌려달랍니다.》

《혁피?! 그건 왜요?》

윤심은 이상하게 자기 귀뿌리가 발개지는것 같아 화가 났다.

《면도를 하려는것 같습니다. 칼을 문덜려구요.》

《아니, 자기 혁피는 없대요?》

강운심은 어처구니 없었다.

《상급참모동지의 혁피야 짝피가 아닙니까?》

기억해보니 과연 명도철은 짝피를 띠고있었던것 같다. 짝피란 가죽을 두겹으로 붙이고 실로 박은것인데 안팎이 다 번들번들해서 면도날이 서지 않는다.

강운심은 얼핏 벽에 걸어놓은 자기 혁피에 눈이 갔다. 통가죽으로 된 혁피의 안쪽은 부드럽고 만문하여 면도날을 세우기는 체격이었다. 군관복과 함께 그것을 받아들고 윤심은 얼마나 기뻐던가. 윤심은 혁피의 금속부분을 연마지로 갈고 광약으로 닦아 반짝거리게 했다. 가죽결색같은 어

두운것 같아 빨간 색감을 바르고 초를 먹여 자주빛으로 대우를 냈다. 며칠전 화력진지보수작업때 명도철이 군복상의우에 정히 개여있는 자기 혁피를 눈여겨보더니 이래서였는가.

《그럼 상급참모동지는 면도칼을 가는 가죽피도 없이 산대요?》

《참모부침실에 두고온것 같습니다.》

(두고오다니? 그렇게도 빈틈없는 사람이.)

밖에서 소대장들의 말소리, 발걸음소리가 가까워왔다.

《됐어요. 그런 지시는 집행안해도 돼요.》

윤심은 속이 두근거리 얼른 잘라버렸다. 마치 무슨 큰 죄를 지은것 같았다. 공연히 태연해지려고 애를 쓰게 되었다.

《야, 참 소대장동지두.》

조순아는 서운해서 돌아갔다. 그날 명도철의 기색을 훑쳐보니 그는 아주 태연하였다. 오히려 조순아에게 그런 심부름을 시키긴 시켰을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 그런 천연스러운 태도가 윤심에게 더 큰 불안을 몰아왔다. 차라리 《소대장동무, 거 너무 비참니다그러.》 하고 톡답이라도 한마디 했더라면 얼마나 후련하랴. 명도철의 아닌 보살한 태도, 하찮은 문제에 신경쓰는 남자가 아니라는듯한 관용적태도가 그의 사생활에 대한 윤심의 호기심을 부쩍 동하게 만들었다.

썩 후에 명도철은 제발로 녀성군관침실을 찾아왔는데 어느때였던지는 딱히 기억되지 않는다. 하여튼 조심히 문두드리고 어쭙은 태도로 강운심의 혁피를 빌려가군했다. 이것은 녀성군관들속에서 해가 서쪽에서 뜬것만치나 굉장한 반응을 일으켰다. 입심이 센 그들은 표범을 길들였다고 1소대장을 추어올렸다. 그리고 명도철에게는 《면도칼참모》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그 별명에 명도철의 성격과 생김새, 윤심이와의 관계 그리고 이름까지도 신통히 비슷한 특징이 집약되어있었던것이다...

창문으로 흘러드는 초여름의 싱싱한 해빛이 군복을 환하게 비친다. 소위의 별이 빛나는 군복... 다시금 저 옷을 입고싶었다. 다시금 저 혁피를 띠고 저 군모를 쓰고 포좌지우에서 수기를 높이 쳐들며 웨치고싶었다.

《소대- 주의! 포에로 전투준비-》

《일당백!》

야무진 고탈소리가 고지를 흔든다. 육중하고 어마어마한 포신들이 하늘로 머리를 쳐든다. 눈부신 구름... 살같이 날으는 제비... 마음껏 날아라 제비들아, 그 어떤 원썩도 우리 명공을 0.001미리도 침범못하리.

《중대 들으라! 고도 ×××!》

무선전화기에서 명도철의 날카로운 구령이 강운심의 심장에 불을 지핀다. 화력부관, 소대장들

이 제원을 웨친다. 윤심이도 끓어오르는 힘의 분출로 몸을 떨며 웨친다.

《장탄- 쫓!》

지휘소에는 명도철이 거인처럼 서있다. 자신만한 모습, 투지가 번뜩이는 눈길...

그토록 도고하고 강철같은 사람이 지금은 어깨가 처져있다?! 나때문에... 이 하찮은 존재때문에... 아 내가 왜 하다못해 저 혁피라도 기념으로 줄 생각을 못했던가. 그가 하필이면 나의 혁피에 칼을 갈고 싶어하는 그 심정, 칼을 갈면서 느끼는 그 류다른 만족감을 내 몰라서였던가. 군대 때는 소문날가봐 못주었다치고 지금은 왜? 이제 다시 그가 우리 집에 올가? 아니 다신 발길을 안할거야. 내가 너무 아픈곳을 박았어. 그렇다. 그날의 작별이 마지막이었다고 강윤심은 뼈저리게 뉘우치고있었다.

...5월의 그날 명도철은 오후 한껏가량 윤심의 방에 있었다. 윤심은 침대우에 상반신을 기댔고 명도철은 의자를 가까이 당겨놓고 앉았다. 그들 사이에 자그마한 원탁이 놓여있었다. 원탁우에는 사이다와 고뿌, 굴 몇알이 있었다. 명도철은 피우지 않던 담배를 자주 갈아댔다. 방안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둘다 지칠대로 지쳤다. 그들은 승산없는 이 《전투》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지 못했다. 공연히 헛된 정력만 소비하고 살만 내리는판이었다.

벌써 윤심은 세번째 굴껍질을 벗기고있었다. 이미 껍질벗긴 굴이 두알이나 접시우에 그대로 있었지만 그것밖에 할 일이 없었다. 윤심은 하등의 의의도 없는 행동인줄 알면서도 분위기를 역전시켜보려 애를 썼다.

《드세요.》

명도철은 거들떠보지 않았다. 굴꼭같이 긴 한숨을 내뿜었다. 사이다병을 입에 대고 굴꼭굴꼭 들이마셨다.

《물론...》

말라버린듯한 얇은 입술이 움직거렸다. 힘과 생기를 싹 잃은 자신없는 음성이 피로하게 기여나왔다.

《난 무슨... 동정을 하는게 아니요. 동정때문이 아니란 말이요. 그야 동무도 알지 않소.》

강윤심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마주앉아 부대소식이란 정세랑 나누면 얼마나 좋으랴만 명도철은 한사코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것, 가장 아파하는것만 사정없이 파헤치려드는것이였다. 윤심은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것을 피해보려 허둥거렸다.

《참... 1소대장은 새로 왔어요?... 비밀인가요? 하긴 나야 이제 뭐...》

《빙빙 돌리지 마오. 그렇소. 동무가 부상을 입었다고 해서 이러는게 아니란 말요. 동무밖에

는... 나의 심장속에 누구도 없소!》

명도철은 원탁우에 머리를 틀어박았다. 강윤심은 하마트면 그 머리를 불안고 올번하였다. 고마워서, 미더워서. 이런 순간에 역시 강한것은 녀자였다. 윤심은 이를 사려물고 의지와 리성을 깡그리 동원하여 자기를 이겨내고있었다.

(알아오, 도철동지. 제가 왜 동지의 진심을 모르겠나요. 남자는 녀자마음 다 몰라도 녀잔 남자마음 알고도 남는답니다. 동진 저와 만난 첫날에 우리 서로 힘을 합쳐 사적포를 잘 꾸려보자고 하겠지요. 그래 동지는 저쪽 바퀴, 난 이쪽 바퀴되어 언제나 중대의 영예를 떨쳐오지 않았나요.)

갑자기 윤심은 멍청해졌다. 눈앞의 도철이도 방안의 가구들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밝은 눈부시게 화창한것 같은데 어디선가 우뢰소리가 들려왔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번개가 병곳거리는 도로우로 뵈안 물보라를 날리며 포차들이 질주했다. 기동훈련이 시작되였다.

전방에 뿌유스름한 강이 나타났다. 강우로 건너간 철교가 비발속에 거뭇거뭇 보였다. 우측대안에 낭떠러지를 끼고 10도경사의 느릿한 산고지가 형체를 드러냈다. 중대는 3시까지 저 고지우에 고사포들을 전개하고 철교를 기습하는 《적》공중비적들을 대공화력으로 제압해야 한다.

전개계선-차에서 분리된 포들이 산고지로 오르기 시작했다. 1포가 맨 앞장에 섰다. 1포의 전진속도에 중대의 전투임무가 달려있다.

《영차-영차-》

치너들의 고탈소리가 산판을 흔들었다. 앞에서 바줄을 가슴과 허리에 걸고 당겼다. 뒤에서는 바퀴와 포체에 어깨를 들이대고 밀었다.

《영차-영차-당겨라!》

치너들은 흡사 너장수들을 방불케 했다. 목에 피줄이 일어서고 눈에는 달이 떴다. 얼굴은 열기로 빨강게 탔다. 비물과 땀과 진흙으로 매닥질한 군복이며 머리에서 김이 물씬물씬 피어올랐다.

《미제침략자들을 소멸하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목숨으로 보위하자!》

선동원들이 고동구호를 웨쳤다. 육중한 포들이 움썽움썽 산고지로 치달아올랐다.

윤심은 소대를 지휘하면서 1포의 좌측 바퀴를 담당했다. 우측 바퀴에는 명도철이 어깨를 들이밀고있었다. 그는 훈련지도성원이였다. 감시하고 바로 잡아주고 강평만 하면 되였다. 그런데도 젊은 혈기를 못이기듯 전사들과 한동아리가 되어 돌아갔다. 그가 가는곳마다 치너들의 사기가 부쩍 오르고 포가 씩씩 전진했다.

《2포! 빨리-》

강윤심이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2포가 바짝 따라물지 못하고 점점 떨어지고있었다. 윤심은

2포로 달려가고 명도철은 그뒤 소대로 달려갔다.

목에서 겨불내가 확확 일었다. 얼굴은 땀범벅이 되었다. 눈이 쓰리고 입안이 짹짹했다. 그래도 흠칠 겨물이 없다.

(빨리! 빨리! 조금만 더... 더...)

한초한초가 피땀이 응집되어 흘렀다. 시계를 보았다. 이 속도면 10분, 전투임무시간을 10분 앞당길수 있다! 윤심은 환희와 용기가 솟구쳐올랐다.

《동무들 힘을 내자! 마지막고비를 넘자!》

여기저기서 와와-호응했다. 그런데 1포가 맥을 못추고있다. 돌도 잡판목도 없는 진흙탕구간이었다. 비에 젖은 진흙이 얼음처럼 매끄러워 포도 전사들도 힘을 못쓰고있었다. 강운심이 달려나가려는 찰나 경사진 오른쪽바퀴를 지령하고있던 조순아가 미끄러지며 모재비로 넘어졌다, 힘을 잃어버린 오른쪽바퀴가 돌부리에 걸린 왼쪽바퀴를 축으로 회-잡아돌리기 시작했다. 중량물의 무서운 속도였다. 앞쪽 길게 누운 포신이 전사들을 매달고 돌기 시작했다.

《아!》

강운심은 눈앞이 아찔했다. 포가 위험하다는 생각이 번개를 쳤다. 왼쪽바퀴마저 드리는 때면?!... 왼쪽은 바위투성이 낭떠러지이다. 윤심은 비호같이 달려나갔다. 달려나가는 속도로 벌써 낭떠러지로 육박하는 오른쪽바퀴밑에 몸을 던졌다. 육중하고 거대한것이 몸에 쿵-부딪혔다가 흠칫-하고 부르르 떨었다. 숨이 껍 막히고 눈앞에서 별찌가 튕겼다. 어느새 명도철이 달려오고 거의 동시에 순아가 뛰쳐일어났다.

이윽고 윤심은 막혔던 숨이 후 나갔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해색해졌다. 온몸이 매시시하여 바퀴 밑에서 일어섰다.

《다치지 않았소?》

명도철이 근심스레 물었다.

《안...》

강운심은 머리를 저으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모두 거기를 보았다. 그리고 몸서리를 쳤다. 포와 낭떠러지까지는 불과 1.5미터... 어떤 일이 일어날번했는가!

포기동훈련은 성과적으로 계속되었다. 12분 앞당겨 전투임무를 수행했다. 강운심의 기쁨은 컸다. 도철이도 순아도... 그러나 이튿날부터 강운심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사단병원에서는 중량물에 의한 척추변형으로 하반신경마비가 왔다는 진단을 내렸다. 그때로부터 반년도 넘는 세월 병원에서 겪은 강운심의 번민과 진통을 더 말해 무엇하랴. 수술도 두차례나 했다. 의학은 장차 회복될수도 있다는 일루의 희망을 주었지만 그것이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못하였다. 단지 《장기전》을 선포했을뿐이었다.

강운심이 체대되자 명도철이 집으로 드나들기 시작했다. 출장길에 또는 구실을 붙여 부대에서 100여리길을 문턱넘듯했다. 올 때마다 사단병원에서 주는 약들과 전사들이 캔 고려약들을 한배 낭씩 부리웠다.

처음으로 온 때가 이해 봄이었다. 명도철은 몹시 흥분되어있었다. 옷등을 벗어제끼고 새살림을 펴는 신랑의 심정이 되어 마당둘레를 두지였다. 거기에 꽃씨를 뿌리며 너스레를 쳤다.

《도고하신 소대장님께서 꽃향기에 폭 취하도록... 어떻소. 만족하오?》

《좋아요.》

윤심은 창턱우에 턱을 고이고 응수했다.

《상급참모동지, 이젠 손을 씻으십시오. 식사를 하셔야지요. 할머니! 세수물-》

따뜻한 햇빛... 아지랑이 피는 앞산기슭... 터밭에는 벌써 마늘이 파랗게 돌아올랐다. 새소리 유정하다. 꺼멓게 뒤번져진 흙을 고루고 씨를 묻느라고 쭈그리고앉은 명도철-그의 땀관같은 잔등과 길쭉한 뒤통리, 흥에 뜬 모습을 내다보며 강운심은 어린애처럼 즐거워했다. 중대에선 칼날갈던 저 사람의 어느구석에 저렇듯 다정다감한 정서와 생활의 미가 숨어있었을까, 참 이상해... 이런 날이 계속되었으면... 그러나 이때부터 두사람사이에는 승산없는 《전투》가 시작되었다. 명도철은 매번 류다른 기대와 흥분을 안고왔다가 어깨가 처져 대문을 나서군하였다. 그럴 때마다 윤심은 윤심이대로 가슴찡기는듯한 아픔을 이겨내야 했다.

《윤심동무, 이젠 제발 상급참모, 상급참모 하지 마오. 도철이, 그저 도철동무라고 불러주오.》

《어찌겠어요. 군대에서 습관된걸요.》

《나도 많은걸 생각해봤소. 예견두 했구. 장차 우리 생활에 꼭절도 있을수 있겠지. 그러나 그제 대수요? 문제는 우리 마음에 달린거요. 그거면 다요. 녀성으로서-안해로서의 의무를 못한다고(이 말을 명도철은 얼굴을 붉히며 매우 갑자르며 했다.) 동무가 죄스러운건 조금도 없소. 내가 다 하겠소. 동문 그저 받아만 주면... 그렇다고 자존심을 버릴것도 없고... 어떻소. 내 진정으로 맹약하오.》

《그야 동지생각이구... 난 그저 홀로 있고싶은 걸요.》

《정 고집하겠소 응? 이 명도철이 싫으면 싫다고 하오. 자유니까. 강요하지는 않겠소. 또 강요해서 풀릴 문제도 아니구. 정말 너자들이란...》

이런 과정을 거쳤다. 이제 명도철은 《동정》을 운운하는데까지 이르렀다. 명도철은 이 도고한 처녀가 자기의 진정을 혹시 오해하고있지 않는가 하는 고뇌끝에 여기까지 이른것이였다. 이것은 본의아니게 윤심의 진심에 대한 모욕으로 되었

다.

(동정?! 어쩌면... 내가 아무리 천하기로서니 동지를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는 웅졸한 녀자로 있었어요? 의심하구 질투하구.)

윤심은 머리칼이 오싹해지고 피줄이 가드라드는지 손이 저려났다. 내가 그래 자기를 얼마나 생각하고있는지, 밤이나 낮이나 그리워하고있는지 알기나 하고 아무 말이나 탕탕 하는가. 너무도 사랑했기때문에 그래서 응하지 못하고 그래서 재가 되도록 타고 또 타는 이 마음을 이렇게도 무자비하게 칼탕치다니... 그렇다. 더이상 끝수는 없다. 《전투》는 벼랑끝에 이르렀다는 아찔한 느낌이 눈앞을 장벽처럼 막았다. 비로소 윤심은 사랑도 지키기 위해서는 값싼 대가를 치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각오를 하고나니 차차 마음이 안정되었다. 너무도 태연해지는데 스스로 놀라면서 윤심은 포박포박 거침없이 말했다.

《도철동지, 전 여태까지... 군대에 있었을 때나 또 지금에나 도철동지를 그저 상급참모로 저의 상관으로 존경했을뿐입니다. 그저 그뿐이에요. 달리 생각해본적은 없습니다.》

명도철은 칼에 찔린것처럼 흠칫했다. 온몸이 땅속으로 잦아들고 자기 존재가 가뭇없이 사라지는것 같은 환각에 사로잡혔다. 가까스로 용기를 내어 중얼거렸다.

《거짓말... 거짓말이요.》

그리고 휘청거리며 일어섰다.

그때 왜 혁피를 줄 생각을 못했던가. 거기에 생각이 미칠 경향이 못되었다. 윤심은 자기가 무슨 말을 했던지 그리고 그의 눈앞에서 키가 흰칠한 사람이 비칠거리며 이상한 동작으로 군복상의를 걸치고 모자를 들고 나가는 모습을 꿈인지 현실인지 알수 없는 혼몽속에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다. 할머니가 황급히 따라나가고... 그 연후에야 정신이 들어 창문휘장을 젖혔을 때는 명도철이 멀리 산기슭을 가고있었던것이다...

강윤심은 상두대에서 편지지와 원주필을 꺼내 들었다. 손이 떨려 글이 되지 않았다. 진정제를 먹고 눈을 꼭 감았다. 한참후 강윤심은 회답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순아, 언제인가 동문 우리 포의 자랑인 그 녀성소대장에 대하여 말했지요. 어디 있을가고 보고싶다고... 그는 지금 없답니다. 애젊은 어머니때 뜻밖의 병으로... 다섯살짜리 딸애를 머리맡에앉혀놓고 이런 유언을 남겼답니다. <윤심아, 넌 커서 고사포병이 되거라. ×××에 가면 어머니가 다루던 포가 있단다. 네가 꼭 아버지수령님과 장군님을 포에 다시 모셔다구...>》

(어머니!)

부지중 입에서 흐느낌이 터져나왔다. 눈물이 앞을 가리웠다. 편지지우에 눈물이 떨어져 글자

를 얼룩지웠다.

(어머니, 용서하세요. 어머니의 당부를 지켜 한생 군복입고 살려고 결심했지만... 날개가 꺾였어요. 바치고싶어도 바칠수 없는 사랑-차라리 희생시켜 중대의 큰 사랑 꽃피우고싶어요. 어머니, 도철동진 홀룡한분이에요. 전도유망한 군사가, 지휘관이예요. 난 그가 나를 영영 잊고 정력과 지혜, 온 넋을 포에 쏟아붓길 바라요. 그래서 어머니가 당부하셨고 내가 못다한 일을 그가 하기를 바라요.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을 그가 다시 포에 모신다면... 어머니나 나나 무슨 한이 또 있겠어요. 어머니, 저의 생각이 옳지요? 대답해주세요. 예?)

강윤심은 애달픈 이 심정을 편지에 옮겼다.

《...그래서 사랑하면서도 거절한거랍니다. 물론 도철동지의 상처는 크고 피로울거야요. 그러나 날이 흐르면 아무는 법이야요. 그는 <면도칼>이 아닌가요. 난 그걸 믿어요. 순아, 난 이것을 누구한테도 내비치지 않았어요. 터놓지 못하니 더욱 피로왔어요. 순아동무한테라도 이렇게 토설하니 한결 개운해져요. 나의 마음 순아만 알고 옮기지 말것을 부탁해요. 너자의 비밀은 신성한거예요. 그리 알고 도철동질 잘 도와줘요...》

밖에서는 록음이 짙어가고 여름이 깊어가고있었다. 명도철이 심어놓은 꽃들도 한창이었다. 봉선화, 접중화, 맨드라미... 명도철이 중대녀성군관침실앞에서 떠온 목란꽃도(강윤심이 류달리 사랑했던 꽃이었다.) 활짝 피어 목이 메게 향기를 뿜었다.

(여름이구나. 왕성한 계절이다. 모든것이 줄기를 뻗치고 잎을 살피우고...)

이 계절에 윤심이의 건강도 한결 좋아졌다. 무시로 드나드는 일꾼들과 동네사람들, 의사들, 학생들의 극진한 지성이 활기를 주었다. 하면서도 근심을 덜수 없었다. 훈련은 어떻게 하고있는지. 순아는 왜 편지가 없을가. 도철동진 어찌고있는지. 안착됐을가... 그가 걸어간 담장너머 오솔길도 이제 강낭숲과 콩년출애 가리워 보이지 않았다. 앞이 막히니 더욱 답답했다. 대신 책과 신문과 씨름했다.

드디어 편지가 왔다. 윤심은 봉투를 뺄때 대고 냄새를 흠씬 맡았다. (순아, 네가 왔구나.) 봉투에서 고지의 싱그러운 풀냄새와 순아의 군복냄새, 포기름냄새가 풍기는것 같았다.

봉투를 뜯었다. 사진속의 순아는 사파알처럼 붉은 양복에 웃음을 짓고 인사를 했다. 그런데 순아의 눈꼬리는 점점 위로 올라갔고 영민한 눈동자는 의혹을 내뿜었다.

《...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갈피를 잡을수가 없군요. 납득이 안가요. 상급참모동지를 보세요. 언니가 중대를 뜯후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져요.

<면도칼>이 무더져요. 나도 웬일인지 용기가 안 나요. 소대도 중대도 활기를 잃었어요. 언니 편지에서 <나의 사랑 희생시켜 중대의 큰 사랑 꽃피우려한다>셨지만 언니의 사랑 시드니 중대의 큰 사랑도 시드는거예요. 언니, 언니가 절 믿고 속을 준 이상 저도 언닐 속일수 없어요.》

(속이다니?! 무엇을?)

윤심은 속이 두근두근했다. 다음 글줄에 얼른 눈을 박았다.

《도철동진 좋은분이에요. 난 그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외동딸인 나때문에 우리 아버지 무척 속을 썩었어요. 이 집안에 나라 지킬 장부 하나 없다고요. 난 반발했어요. <너잔 뭐 사람아닌가. 아버지 제가 입대할래요, 아들 세뭇 네뭇 할래요.> 아버지 너무 기뻐서 <용타, 옛날에도 설죽화가 나왔는데 지금에사 응당하지. 너야말로 장군님의 딸이다. 아들이다>하시며 외사촌오빠가 있는 고사포부대에 보냈어요. 입대한 날 오빠가 말했어요. <순아야, 넌 군인이다. 우린 이제 남남이야. 넌 전사구 난 상관이구. 알겠니? 넌 아녀자가 아니라 강철이 돼야 해. 미국놈과 맞서야 한다. 그러자면...> 하고 오빠는 군무생활에서 지켜야 할 점을 말했어요... 난 오빠의 성미, 내심을 잘 알아요. 속이 부드럽구 다감한분이에요. 중학때는 시인이 된답시고 울기도 잘했답니다. 그런 오빠가 그래 언니가 생각하듯 영원한 리별로 마음 편할수가 있겠어요. 오빠 언니가 없으면 땅에 던져진 칼처럼 녹이 쓸구 무더져요. 오빠 아니 상급참모동진 언니가 곁에 있어야 강해져요. 제 가슴에 살아계시는 저의 리상이기도 한 녀성소대장동지-언니의 자랑스러운 어머님도 내편을 들리라고 믿어져요...》

(그랬됐구나 순아... 어쩔! 난 그저 활달하구 노염 잘 타구 힘센 처녀로만 알았지. 미안해요. 동무앞에 머리를 숙여요. 어찌면 그렇게도 속이 깊어요.)

강윤심은 명도철을 곧잘 비난하다가도 옹호하는 조순아의 류다른 변덕이 리해되었다. 얼마나 훌륭한 오랍누이인가. 《오빠》라고 한번 불려보지 못하고 엄격한 군률속에 가정을 깊이 묻어둔 오누이- 이 가혹하고 억센 사람들과 함께 나의 삶을 빛내일수만 있다면... 그럴수만 있다면...

윤심은 가슴이 아팠다.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럴수 없었다. 그렇게는 안될것이다. 일단 희생을 각오한이상 이 길만이 그들을 위한 길이다. 순아동무, 날 용서해요. 한번 먹은 마음 달리될순 없어요. 나에게서 리성을 앗아가지 말아요. 심장을 괴롭히지 말아줘요...

7월도 다 갔다. 논에서는 벼가 우쭉우쭉 소리치며 자랐다. 터밭 강냉이는 이삭끝에 수염이 말라갔다. 삼복의 무더위가 땅을 물쿠었다.

윤심은 널마루에 앉아 특간호를 그리고있었다. 아이들의 부탁이었다. 7.27 전승기념일이 다가온것이다. 특간호에는 녀성고사포병들의 훈련모습이 그려지고있었다. 문득 곁에 누워 험떡거리던 누렁이가 귀를 쫑긋 세웠다. 이어 대문밖으로 달려나갔다. 윤심은 가슴이 철렁했다. 열기에 휩싸인 마당이며 집과 하늘이 똑 벗어나는것 같았다. 아닐세라 누렁이를 앞세우고 명도철이 마당에 들어섰다.

《안녕하오?》

목소리는 이상하게 석싹했다.

《건강하셨어요?》

윤심은 얼굴이 활짝 붉어지고 표정이 굳어졌다.

《보다싶이... 동문?》

《저 역시...》

명도철은 부엌쪽을 힐끗 눈질했다.

《할머님은?》

《상점에 나갔어요.》

돌다 뜨거운 정회가 가슴속에 끓었다. 그럴수록 서로 팽담하게 보이려고 애를 썼다. 명도철은 마당을 한바퀴 새삼스레 둘러보고 특간호에 눈길을 박았다.

《좋은 일을 하시누만. 솜씨가 있는데요.》 하며 윤심의 곁에 바투 다가앉았다. 윤심은 속눈썹을 내리깔았다. 심장이 터질듯 쿵쿵 울렸다. 명도철은 무엇에 놀란것처럼 우뚝 일어섰다. 마당을 왔다갔다하며 말했다.

《머리아플 지경이요. 1소대가 점점 가재결음을 치고있소. 훈련성적이 떨어지구, 실탄사격은 멀지 않은데 야단났소. 동무가 빠진후 소대가 추서지 못하고있소.》

강윤심은 안도의 빛을 띄웠다. 그리고 근심에 싸여 눈을 쪼프렸다.

《조순아랑 모두 어찌고있어요?》

《흥! 풀이 죽었소. 뭔가 고민하구... 그때문에 난 동무를 추궁하자고 들렀소.》

《뭘 말인가요?》

《편지말이요.》

윤심은 속이 뜨끔했다.

《동무가 무엇을 어떻게 썼길래 순아가 그 모양이요? 써도 전사들이 정신이 들게 소대장시절처럼 채찍도 들고 강한 요구성을 제기해달라는거요. 그림다... 보구싶다... 처녀들이 그런 감상에 빠져... 아니요. 우린 군인이요. 강해야 하요. 무한히. 난 윤심동무를 누구보다도 강한 녀성으로 알고있었는데...》

《됐어요. 그만하세요.》

강윤심은 입술을 피나도록 깨물었다. 왈칵 울음이 터져나올것 같았다. 반발과 원망과 분노가 끓어올랐다. 그토록 명도철이 자기를 잊어주기를

바랐건만 정작 그의 심장속에 높이 살고있던 강한 처녀가 사라져간다는것을 느끼니 슬프고 원통했다. (그래 어쩔다는거예요. 약해요. 녀자니까요. 내가 어떤 진통을 이겨내고있는지 알기나 하구 그런 소릴 해요? 어떤 몸이라는데투! 무정해요. 정말 무정해요.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할망정 아-됐어요. 가세요. 영영 다시 나타나지 마세요. 보기 싫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명도철은 당황했다. (너무했는가. 아니다. 아파야 한다. 도고한 장벽은 폭약에 불을 달아 폭파해버려야 한다.)

명도철은 손수건을 꺼냈다. 윤심의 눈물을 닦아주려 손을 내밀었다. 윤심은 어깨를 흔들었다. 다시한번 손수건을 얼굴에 가져갔다. 윤심은 손으로 팔을 탁 쳐버렸다.

명도철은 심장이 빠져나간듯한 허탈에 잠겼다. 가까스로 용기를 냈다.

《순아를 채찍질해주오. 순아는 동무의 말을 듣소. 내 말은 왜 그런지 날이 서지 않소.》

명도철은 비칠거리며 돌아섰다. 몇걸음 나가다가 다시 돌아섰다. 얼굴을 싸쥐고있는 윤심을 측은한 눈길로 이윽히 지켜보다가 말했다.

《결혼을 하오. 해야 하오. 내가 싫으면... 상관 않겠소. 그러나.》

명도철은 더운것을 삼켰다.

《최고사령관동지께 걱정을 끼쳐드리진 마오. 전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분이시오. 그런분께서 한 녀전사가 침상에서 홀로 나이를 먹고있다는것을 아신다면... 죄스럽소. 아직도 피눈물을 그대로 안고계신 장군님이시오. 우리 포에 장군님을 모시여 기쁘게 해드리지는 못할망정 괴로움을 끼쳐드리셔야 무슨 장군님의 전사, 장군님의 제자겠소, 부끄럽소, 어버이수령님과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였던 그 녀성소대장동지앞에 말이요...》

《...》

윤심은 울었다. 텅 빈 마당 널마루에 홀로 남아 울었다. 무엇때문에 어째서 우는지 자신도 몰랐다. 그저 울고싶었다. 그래서 자꾸 울었다. 그 작은 가슴에 눈물도 많았다. 마음놓고 실컷 울고 나니 가슴이 후련해졌다. 이윽하여 눈굽을 씻고 고개를 쳐들었다. 지붕위로 파란 하늘이 바라보였다. 눈동자처럼 맑고 그윽한 하늘이 윤심을 정답게 내려다보고있었다. 그 맑은 하늘을 쳐다보며 윤심은 미소를 지었다...

강윤심의 건강은 아주 좋아졌다. 없던것이 쑥 내려간듯 가슴속이 활짝 개이자 얼굴에는 혈기와 웃음이 돌고 눈은 영채로 빛났다. 무엇인가 해보고싶은 욕구가 솟구치군했다. 아무리 쓴약도 눈을 꼭 감고 삼켰더니 식욕이 왕성해졌다. 그러자 중대가 그리워 견딜수 없었다. 바늘방석에 앉은듯 오금이 쑤졌다. 나날이 중대결에, 동지들결

에, 포가까이에 내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굳어져갔다. 미루어보건대 순아의 생활에도 큰 그늘이 진것 같았다. 말은 못하고 병어리 랭가슴앓듯 저혼자 속을 썩이고있다.

(오빠 언니의 사랑이 어떤건지 알기나 하고 그래요? 오빠 아무것도 몰라요. 목석이에요. 울러메구 뽀뽀거리구)하는 눈길로 곱지 않게 명도철을 보는 순아가 선히 떠올랐다. 이리 비둘 저리 비둘 달아나는 순아... 너무 참다못해 언니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는가고 그것만은 어느 기회에 하소한것 같았다.

조순아, 명도철, 소대와 중대-모두가 이 하찮은 존재때문에 마음을 앓고있다. 눈물겹도록 고마왔다. 그러나 고맙다는것을 아는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가. 보답해야 한다. 실천으로. 이 한몸 다 닳도록 명도철의 날을 세워주고 그들의 힘과 고무가 된다면 무엇을 서슴으랴.

가끔 윤심은 자신을 랭정히 검토해보기도 했다. 어째서 명도철의 청을 그리도 지독스레 거절했던가. 그를 진정으로 위해서? 그렇다. 진정으로 위해서. 그렇다면 윤심아, 진정으로 위한 그 사랑이 왜 도철동지한테도 너한테도 힘과 기쁨이 못되니? 고통과 불안만을 가져오니? 그것도 사랑이니?

윤심은 소스라쳐 놀랐다. 윤심이, 넌 자신을 기만하고있어. 육체적불가능에 굴복한 정신적후퇴, 안일을 비호하고있어. 솔직히 말해봐. 넌 장차 명도철이와의 생활에서 당하게 될 정신적고충, 자기번민을 두려워하지? 그걸 피해보려 하지? 그렇지? 그래서 홀로 편안히 근심없이 살려고 하지? 도철이야 어찌되든 포야 어찌되든... 그게 아니라고 말해봐! 어머니의 뒤통에서 아니라고 말해봐...

비로소 윤심은 자기 몸을 감싸고있던 보이지 않는 허울을 제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필사의 힘으로 홀 벗어던졌다. 그러자 그는 소대장 시절의 그 강윤심으로 되돌아갔다. 마음도 기분도 모든것이, 단지 일어설수 없는 그것만 다를뿐이었다.

8월의 폭양아래 화력복무훈련으로 땀천지가 되었던 명도철은 어안이 병병해졌다. 구령도 없이 전사들이 와-밀려가는 좌지 아래쪽 길가운데 군복입은 강윤심의 모습이 안겨든것이다. 할머니가 그의 옆에 서있었다.

《헛참... 이런 무법천지라구야.》

명도철은 가슴이 뭉클하여 투덜거렸다. 조순아가 명도철의 팔을 잡아끌었다. 옛소대장과 전사들의 포옹... 환호... 감격의 선풍이 지나가자 명도철이 윤심에게 다가갔다. 둘다 가슴이 짝 차올라 마주 보기만 했다.

《온다고 예고라도 할것이지.》
 명도철이 나무랐다.
 《도철동무, 헉띠를 푸세요.》
 강윤심이 명령조로 말하고 어정쩡해 서있는 명도철의 허리에 자기 헉띠를 띠워주었다.
 《전사들이 보겠소.》
 명도철이 중얼거렸다.
 《온-걱정두... 도철동무!》
 《응?》
 《날 좀 포결에.》
 명도철은 삼륜차를 조심히 밀어갔다. 윤심은 뜨겁게 달아오른 1포의 검푸른 무쇠덩이를 끌어만지고 뺨을 대고 부본다. 그러더니 별안간 신음소리를 냈다.
 《왜?! 무슨 일이지?》
 명도철이 놀라서 물었다. 공포에 질린 윤심이의 눈이 명도철을 애원에 차서 돌아보았다.
 《힘... 다리에 힘이 알려요.》
 《뭐라구?!》
 명도철의 눈이 환희로 번뜩였다. 강윤심은 일어서보려 안간힘을 썼다. 명도철은 몸을 와들와들 떨었다. 윤심의 허리를 조심히 껴안아 일으켰

다. 군복밑에서 뿔뿔히 벌어진 처녀의 순결하고 억센 심장의 박동이 전류처럼 온몸에 흘러들었다. 윤심은 두손을 위로 뻗쳐 포신을 꼭 그러잡았다. 이마에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혔다.
 《소대장동지가 일어선다-》
 전사들이 환호를 올렸다. 윤심은 불사신처럼 두다리로 일어섰다. 그리고 더운것이 가득찬 눈길로 전사들을 둘러보며 속삭였다.
 《고마워요. 동무들... 고마워요.》
 전사들이 기쁨에 겨워 떠들었다.
 《소대장동지, 구령을- 구령을 주십시오.》
 명도철이 어서 그러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강윤심은 포신에 매달린채 걱정이 사무쳐올라 간신히 더듬거렸다.
 《포...전투...준비...》
 《일당백!》
 백배로 커진듯한 함성이 고지를 흔들었다.
 (도철동무 자신있어요?)
 (그렇소. 동무가 있지 않소.)
 두사람의 눈길이 뜻있게 마주치며 불꽃을 튕길 때 멸적의 포신들이 서서히 머리들고있었다.

묘향산의 국제친선전람관에서

아. 에스. 살라마노브

조선이여
 그대의 영광
 히말라야산정보다 더 높고
 그대의 자랑
 수리개 나는 창공높이 떨치노라

김일성 동지의 사상은
 혁명의 기치로 누리에 빛나고
 가장 귀중한

김일성 동지의 유훈은
 세계를 미래에로 인도하여라

김일성 동지의 령도밑에
 참된 삶을 누리고저
 온갖 시련 뚫고
 만민의 흠모와 신념이 태어난
 성스러운 땅에서

주체의 학설은 생활로 검증되고
 조선식사회주의 완전무결함은
 력사를 통해 증명되었노라

우리 희망 성스러운 위업속에 있어
 세계의 정직한 인민들
 대하되여
 묘향산으로 흘러들었어라

두분의 수령께
 올린 선물들엔
 인류의 지성 바쳐졌나니
 세계의 심장이 맥박치는 한
 이 대하의 흐름 멈춤 없으리

(필자는 조선방문 로씨야연해변강직맹대표단
 단장임)

《동지애의 노래》를 들으며

조인영

삼라만상이 고요에 잠긴 한밤이다. 창작으로 시간을 보내던 나는 잠시 머리를 쉬울겸 밖으로 나섰다. 아직 봄이라고 하기보다는 겨울맛이 더 나는 3월의 이른봄이었으나 이밤은 쌀쌀한 기운이 전혀 없이 푸근했다.

밤의 고요속에 유선방송에서 나오는 《동지애의 노래》의 은은한 선율이 대기속에 울려 퍼진다.

나는 그 노래를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동지가 없는 혁명은 있을수 없기때문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파란많은 혁명의 길을 동지들과 함께 헤쳐오시며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시고 이 땅에 인민의 지상락원을 일떠세우시여 오늘 크나큰 행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었다.

아버이수령님의 동지에 대한 사랑이 남달리 뜨거웠던것으로 하여 그이의 두리에는 초기혁명활동시기부터 수많은 동지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수령님께 충직했던 동지들중에는 김형직선생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키우신 동지들도 많았다.

문득 위대한 수령님께서 쓰신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한구절이 또렷이 떠오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병석에 누우신 아버님으로부터 벗과 우정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자신은 동지를 얻는 일로부터 투쟁을 시작하였다, 돈이나 료혈포를 얻는것으로부터 독립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데가서나 좋은 동지들부터 물색하였다, 좋은 동지란 하늘에서 떨어지는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나는것도 아니다, 금이나 보석을 캐내듯이 힘을 들여 스스로 찾아내야 하며 키워내야 한다고 하시였다고 회고하셨다.

정녕 돌이켜보면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투쟁의 전과정은 동지획득을 위한 투쟁으로 일관되였다고도 말할수 있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로 목숨바쳐 싸운 벽동사람 공영을 동지로 획득한 김형직선생님의 이야기는 참으로 감동적인것이다.

하루는 오동진이 김형직선생님을 찾아와서 공영이라고 새파랗게 젊은 사람인데 식견이 높고 키가 구척인데다가 미남자며 사람이 듬직하고 격술까지 한다니 옛날같으면 갈데없는 병조판서감이라고 흥에 떠서 소개하는것이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그 길로 짙신 서너컬레를 등에 지고 공영을 찾아 수백리길을 떠나시었다. 한달이 지나서야 신총이 다 떨어진 짙신을 신고 돌아오신 선생님께서서는 좋은 동지를 얻은 기쁨에 피로도 만시름도 잊고 환히 웃으시었다.

이처럼 심혈을 기울여 묶어세운 동지들은 각계 각층의 군중속에 다 있었으며 국내는 물론 베이

징, 상해, 길림, 무송, 장백, 화전 등 국외에까지 널려있었다.

동지를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으신 선생님이시였기에 동지들은 목숨걸고 그이를 보호해드리신것이 아니었던가.

연포리주막집에서 왜놈경찰놈들을 교묘하게 속여넘기고 선생님을 놈들의 마수에서 풀어드린 황씨나 선생님을 모시고 무송으로 들어가다가 십여명이나 되는 마적단놈들에게 붙잡혀 봉변을 당하게 되자 격술로 놈들을 모조리 때려눕힌 공영이 그런 동지들중의 하나였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이렇듯 생사를 함께 할 수많은 동지들을 묶어세운 토대우에서 1917년 3월 23일 평양 학당골에 있는 리보식의 집에서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시었다. 선생님께서서는 조직을 확대해나가는 길에서 장철호, 강제하, 강진건, 김시우 등 수많은 동지들을 획득하시었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이처럼 력사의 초행길을 헤쳐가시며 한사람 한사람의 동지들을 보석을 캐내듯 찾아서 묶어세우시였으며 그 과정에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을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으로 방향전환시켜야 하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가지시었다. 선생님께서서는 생애의 말년까지 방향전환의 방침을 실천하느라고 애를 태우시었다. 이런 선생님이시였기에 그 후 병석에 계실때에 위대한 수령님을 머리맡에 앉히시고 동지를 위해 죽을수 있는 사람만이 좋은 동지를 얻을수 있다고, 좋은 동지들을 많이 사귀라고 거듭 당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아버님께서 해주신 이 교훈적인 말씀을 심장에 새기시고 투쟁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동지들을 규합하시고 동지들을 위해서라면 하루밤에도 수백리씩 걸어가시여 뜨거운 사랑을 부으시었다. 그 사랑에 매혹된 전사들은 그이를 우러러 충성을 맹세했고 최후의 순간에도 《김일성장군 만세!》를 소리높이 부르며 생을 마친것이다.

청춘의 이상을 실현할 길을 찾지 못해 운명의 쪽배에 몸을 맡긴채 가슴을 치던 김혁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기전에 시위를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시위를 하다가 맥을 놓고있을 때 앞으로 나가라고 소리쳐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가, 시위를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래일은 어떻게 하라고 일러주는 조직이 있고 지도자가 있으면 얼마나 힘이 날가, 내가 총탄에 맞아 쓰러질 때 나를 불안고 《김혁아!》 《김혁아!》 라고 부르며 눈물을 뿌려줄 동지들이 있다면 또 얼마나 행복할가 하는 생각에 눈물짓곤하였다. 그러던 그가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고 《...나는 여기서 닳을 내리겠소. 내 인생은 이제부터요.》라고 걱정애 넘쳐 말할수 있는것도 동지를 뜨겁게 품어주는 그이의 사랑에 매혹되어서리라. 피어린 전투에서 희생된 전우의 령전에 비분의 눈물 뿌리시며 몸소 추도사를 쓰시고 그의 명복을 비신분도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우리 수령님의 고매한 성품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 역시 혁명의 길에서 한번 맺으신 동지는 끝까지 믿으시고 그들이 파오를 범했을 때에도 자신께서는 동무를 공산주의사회까지 데리고 가시겠다고 뜨거운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하기에 우리 인민들은 친애하는 그이를 가리켜 《동지가 많으신분》이라고 심장의 노래 부르며 우러러 모시고 따르고있는것이다.

내가 생각에 잠겨있는새에 어느덧 《동지애의 노래》도 끝나고 사위는 조용해졌다. 하늘에서는 수억만의 별들이 반짝반짝 빛을 뿌리고있었다.

나는 여전히 노래가 불러일으킨 걱정애 잠겨정원을 거닐었다.

동지를 위하여 죽을수 있는 사람만이 좋은 동지를 얻을수 있다는 김형직선생님의 필생의 지론

과 자본가가 돈을 밀천으로 하여 치부의 탑을 쌓아나간다면 혁명가는 동지를 밀천으로 하여 사회를 변혁하고 개조해나간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지애의 사상. 그 숭고한 뜻을 그대로 이어서 이땅우에 인덕정치, 광복정치의 화원을 퍼나가심으로써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철통같은 일심단결을 안아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

이런 위인들의 사랑속에서 삶을 누리고있는 우리 인민이기에 수령과 령도자를 받드는 길에 목숨을 바치는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여기는것이며 동지들을 위하여 서슴없이 자신의 생을 바치고 처녀들이 영예군인들의 한생의 길동무가 되며 자기 자식을 희생시키면서도 동지의 자식을 먼저 구해내는 아름다운 미풍이 활짝 꽃피어나는 화목한 사회주의대가정의 한식솔로, 친형제로 살아가는것이다.

검푸른 하늘에서는 수억만 별들이 반짝반짝 빛을 뿌리고있었다. 그 별들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듯이 나 역시 위대한 령도자를 받들어 전사의 위치를 더 굳게 지켜갈 결의를 다지고 또 다지겠다.

유 산

김응하

아버님이시여
김형직선생님이시여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집안에 남기신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방안엔 텅 빈 약장이 하나

겨레를 위해 나라의 독립을 위해
뼈를 깎고 살을 저미고 목숨까지 바치시면서
가정을 위해 남기신것은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시여
교아가 되여
비탄에 잠긴 조국에
선생님은 얼마나 귀중한
유산을 남겨주시였습니까

《지원》의 사상
3대각오
동지획득의 사상
두자루의 권총

그것이였습니다
깃발하기만 했던 조국에
얼음을 깨물며
피바다에서 일어나게 한
불굴의 그 힘은

그것이였습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랑과 의리로 하나로 뭉쳐
강적들을 때려눕힌 강철의 그 의지는

선생님이 남겨주신
귀중한 그 유산에 뿌리내려
이 땅에 인민의 락원이 꽃피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가
세월과 더불어 무성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 수령님 물려받으신
오늘도 조국의 심장속에 교이 안고사는
선생님의 유산이 있기에
사나운 광풍이 지구우에 불어도
오늘의 조선은 굳건하고
래일의 조선은 양양합니다

하기에 우리는 영원히 지킬것입니다
선생님이 남겨주신 고귀한 그 유산을
눈동자와 같이 귀중하게
랑심과 같이 깨끗하게
목숨과 같이 무겁게

그들의 마음

리래렬

(이애가 왜 이렇게 늦어질까?... 아직도 그쪽에 서 떠나지 못했는지...)

조순녀는 벌써 수십번이나 부엌문쪽을 바라보며 밖의 인적기에 귀를 기울이고있었다. 그는 지금 30리나 되는 증비료공장으로 비료실을 간 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중이었다.

(오늘저녁은 좀 일찍 들어오라구 일렸건만...)

오늘은 조순녀할머니의 막내손녀 정애의 생일 날이다. 해마다 오는 이날에 별로 차려놓고 지낸 적은 없지만 스물한번째로 맞이하는 이번 생일은 좀 류다른것이였다. 나서자란 수도의 화려한 고층살림집을 떠나 수백리나 떨어진 여기 별방의 한 농장구석에서 맞게 되는 생일이여서 조순녀는 소박하나마 있는 힘껏 정성들여 음식을 차렸다. 부슬부슬한 팔보송이를 문힌 묵직묵직한 찰떡이며 기름이 반질거리는 만문한 송편, 노란색갈 아롱지게 지저놓은 닭알볶음과 가재미며 청어튀기, 모두부와 콩나물, 고사리무침... 제법 갖출것은 거의나 갖춘 소박하면서도 꾸밈한 생일상이 마련되였다.

이쯤하면 할머니로서 손녀에게 쏟는 정을 느끼고도 남음이 있을것이였다. 그런데도 조순녀는 살그머니 덮었던 보자기를 다시 젖히고 무엇이 미흡한가 해서 채삼 들여다본다. 이렇게 하기를 그 몇번... 하지만 기다리고 기다리는 정애는 와주지 않는다. 가끔씩 찾아대서 혹시 하며 할머니를 일깨우던 원간집 누렁이도 조용해진지 오래다.

(채심할것이지. 원 애두...)

손녀의 생일상을 앞에 놓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으려니 조순녀의 머리속에는 머나먼 수도에서 여기로 떠나와 석달나마 지내온 나날이 새삼스럽게 떠올랐다.

...조순녀는 정무원 어느 한 부서에서 과장으로 사업하는 아들의 부양으로 휘넓은 광복거리의 중심에 특색있게 원형으로 우뚝 솟은 화려한 고층살림집에서 살고있었다. 그는 손자녀석들의 뒤시중을 들면서 빨래를 하고 끼니를 끓이고 보름에 한번씩 식량공급소에 다녀오는 등 잡일로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고있었다.

어느 가정애나 있는 평범한 일이지만 포화가 끊임없이 문게치던 전화의 날 간고한 춘기과종을 끝내고 위대한 수령님께 편지까지 올렸던 한다하는 처녀보잡이요, 전후에는 농업협동화의 앞장에

서서 도에 들썩 소문냈다는 할머니, 사회주의농촌체제를 꽃피워온 나날에는 한개의 큰 작업반을 안고 드달려온 할머니로서는 하는 일이 너무도 보잘것 없는것이였다. 하루하루가 백날맛잡이로 무료하고 지루하게 흘러갔다.

그러던 이른봄 어느날 조순녀네 가정에서는 예견치 않았던 충격적인 사변이 일어났다. 7호텔 상점매대에서 판매원으로 일하던 손녀 정애가 아버지수령님의 유훈교시를 쌀로써 관철하겠다는 남다른 결심을 품고 용약 농촌진출을 자원해나선 것이였다.

지금은 그것이 하나의 범상한 사회적기풍으로 되고있지만 정애가 그 의향을 비치였을 때 정애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매우 기특한 일로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위구심도 없지 않았다. 여직 부모슬하를 떠나본적이 없는 자식이었던것이다. 그러나 텔레비죤화면에서 정애가 꽃보라속에 묻혀 전송을 받는 장면을 보고는 얼마나 대견해보였는지 모른다. 조그마한 처녀애 하나가 온 나라의 축복을 받고있지 않는가! 더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린것의 소행을 보고받으시고 친히 감사까지 보내주셨으니 받아안은 영광과 행복은 끝이 없다. 꼭 이 사랑과 배려에 보답해야겠는데...

그런데 오직 조순녀할머니만은 입을 꼭 다물고 말이 없었다. 그것이 바로 사회적축복을 받는 그 기쁨속에서도 할머니와 아들며느리사이에 하나의 마찰을 일으킨 서곡으로 되였다.

처음에는 할머니가 손녀를 농촌으로 보내는것이 불만스러워 그러는줄 알고 아들은

《뭘니뭘니해두 내게는 흙냄새만한게 없다고 하던 어머니가 웬일이십니까?》

하고 의아해했다.

《어머니 뭘 그러세요? 정애가 온 나라 젊은 세대들의 앞장에 섰는데 기쁘지 않아요?》

며느리 역시 자기의 기쁜 심정을 내보이였다.

《기쁘지 않다니... 기쁜거야 내가 너희들보다 더할게다.》

할머니의 뜻밖의 대답이였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 한마디 없이 그래요?》
《...》

조순녀는 그냥 말없다가 이윽해서야 입을 열었다.

《아무래두 내가 정애와 함께 가야 할가부다. 저 어린게 가서... 마음 못놓겠다.》

처음은 놀랐으나 차츰 어처구니가 없는 일로 생각된 아들내외는 의아한 눈길로 조순녀를 바라보았다.

《정애의 일체 생활은 그곳 농장에서 어련히 보장해줄텐데 무엇때문에 굳이 따라가자고 해요? 오히려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텐데 정애인들 얼마나 웅색하겠어요. 제발 그만두십시오.》

아들이 상을 찡그리며 짜증을 내었다.

그러나 할머니는 굵어들이지 않았다.

《가야 해! 도시한복판에서 해주는 밥이나 먹구 다니면서 손에 흙을 한번 묻혀보지 못한 애가 농사를 하겠다구 멀리 농장으루 나가는데 한뼉 농사루 늙어온 내가 여기 널직한 방안에만 물앉아 있는다면 그게 글썄 경우가 될말이나? 물론 농장에서 돌봐주긴 하겠지만 그래두 이 할미보다야 하겠니. 젖은 신발 한번 말리워줘두 그래 장갑한 컬레 떠줘두 그래 내가 낫겠지!... 난 그저 젖먹이갓난애기때부터 참해서 줄곧 칭찬만을 받아온 정애에게 빗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거다. 먼 곳에 가서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친히 보내주신 감사까지 받아안은 정애이니 무슨 일에서든지 모범이 돼야 할게 아니냐. 그러자면 이 할미의 도움이 필요하단말이야!》

할머니는 자기의 결심에 너무도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 정애가 가서 자리나 잡아놓고 일손을 잡은 다음에 가보시든지... 어디 세살먹은 어린애라구 꼭 붙어다니겠어요?》

머느리가 눈을 내리깔며 저어하듯 말했다.

《흥, 자리를 잡구 일을 시작한 다음에? 그뎨난 가라구 해두 안가! 무슨 멋으루 가.》

조순녀가 어성을 높이자 아들과 머느리는 그만 목을 움츠리고말았다.

손녀 정애로서는 할머니와 함께 떠나는것이 모름지기 같이가는 애들과 이곳 농장사람들에게 영석받이로 여겨질가봐 부끄러운 생각도 없지 않았으나 늘 옆에 있었으면싶은 할머니여서 덮어놓고 좋아서 방글거렸다.

조순녀의 고집에 뼈꼭소리 한마디 못하고있던 아들은 막상 떠나는 날에야 한마디 하였다.

《공연히 가는줄 아십시오. 어머니... 그럼 가서 자리나 잡아주고 인차 올라오십시오.》

공연히 집을 떠나 고생하지 말라는 권고였으나 조순녀는 단호하게 말하였다.

《기다리지 말아라. 인차 올 걸음이 아니다!》

제 아들머느리이니 망정이지 지나치게 매물찬 목소리여서 아들로서도 더는 말을 못하고있었다.

이렇게 떠나는 할머니와 손녀였다.

농장에서는 정애 하나때문에 집 한채를 통채로 내주고 잘 꾸려주었다. 바로 이 집이다. 작업반에

서 사람들을 붙여 부엌과 방 안팎을 알뜰하게 손질해놓았다. 알른알른 얼굴이 들여다보이는 장판이며 부드러운 문양의 벽지들과 천정지들, 그 솜씨는 농장원들의 지성을 그대로 말해주고있었다.

언제 마련해두었는지 정애는 신식문양의 햇보들과 창가림들, 아롱진 구슬이 대롱대롱한 주렴이며 거울, 옷걸개, 지어는 자그마한 화분통까지 가지고왔다. 정애가 《할머니, 이건 어디다 놓을까요! 옷걸개는 여기에 박고 거울은 여기에 거는것이 좋지요?》 하면서 팽이처럼 돌아갈 때 조순녀는 (그저 허공중에 뜬 종달이로구나!) 하면서 속으로는 은근히 장차 저 마음에 그늘이 없도록 해야겠다고 속다짐하였다.

손녀가 누구한테 부탁했는지 소나무 배경에 《충효일십》네글자를 힘을 박아 내려쓴 족자까지 척 거는데는 입을 딱 벌렸다. 정애는 족자를 걸어놓고나서 할머니를 불렀다.

《할머니 보라요. <충효일십>! 오직 충성과 효성의 한마음으로 위대한 장군님 받들어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리라! 호호호...》

정애는 밝게 웃으며 할머니를 넘겨다보았다.

조순녀는 그러한 손녀를 바라보며

《그래,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머리를 끄덕여주었다. 그러면서도 역시 그 밝은 얼굴과 티없는 웃음이 은근히 긴장을 주는것은 어쩔수 없었다.

조순녀가 손녀와 함께 방에 든날저녁 인정깊은 앞집 아주머니가 맛 좀 보라면서 여러가지 조미료를 넣고 담근 쪽갓김치를 늙양재기로 하나가득 들고 들어왔고 뒤집 할머니가 움에 저장했던 싱싱한 무우와 배추를 한소랭이 들고 나왔다.

《두벌자식 더 귀하하다더니 손녀가 귀해 이렇게 같이 왔구만요. 그 먼길루...》

《저렇게 번하게 생긴 처녀가 그 좋은데를 버리구 여기 오다니... 참 용치! 할머니 따라선걸 보면 아직 응석받이인 모양인데...》

그들은 이렇게 롱말을 하면서 손녀와 함께 온 할머니를 두고 손녀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다고 혀를 찼다. 그것은 조순녀의 마음속 긴장에 더욱 부채질을 하였다.

《부모들이란 늙어두 손자애들이 업히기 좋게 등이 굽어지는 법이라는데 손자애들한테 쏘리는 마음이야 어느 할민들 다르겠수.》

조순녀가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고개들을 끄덕이였다.

《하긴 할머니가 옆에 있어주면 크게 의지될거우다.》

《아무튼 앞뒤에서 잘 돌봐주시우. 모든 일이 손에 익지 않구 몸에 배지 않아서 힘들어할게우다. 그게 걱정이라우.》

할머니가 저도 모르게 긴숨을 내쉬는데 갑자기 정애가 깔깔 웃어댔다.

《호호호... 할머니 또 걱정이에요? 걱정많은 할머니, 걱정일랑 폭 놓으시라요!》

《글쎄 그럴수 있다면야 이 할미 오죽 좋겠냐...》

조순너는 이 말에 진정으로 간절한 소원을 담았다. 과연 저 기분이 언제까지 부풀어있겠는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로부터 석달이 남짓이 지난 오늘 돌이켜보면 할머니로서는 별로 돌봐줘야 할일도 없었고 걱정을 해온일도 없었다. 어찌보면 손녀에 대한 대견함과 기특한 심정만을 안고 지내온것 같다. 그것은 그대로 손녀가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을 할머니의 부축이 없이도 곧바로 걸어가있다는 것을 말해주는것이였다. 한편 그 믿음은 조순너로 하여금 여기에서도 불필요해진 자기의 존재를 감득하게 하였다. 불현듯 조순너의 머리속에는 자기가 머나먼 이곳으로 공연히 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는 머리를 세차게 흔들어버렸다.

(아니야. 오길 잘했어. 잘하구말구! 내가 필요 없게될걸 얼마나 바랬다구!)

돌이켜 생각하는 조순너의 가슴속에서는 되찾은듯한 환희로운 감정이 아침해살처럼 짙 퍼지였다.

(과연 내가 여기로 오지 않았더라면 정애에 대한 그 믿음을 생각이나 할수 있었겠는가!)

조순너는 이제 그 믿음이 더욱 확고해질 때 자기는 마음놓고 이곳을 떠나게 되리라고 생각하였다. 그것이 이제 한달후이겠는지 두달후이겠는지는 딱히 가늠할수는 없지만 확고한것은 그날이 정확히 오고있다는것이였다...

...하얀 보자기를 다보록히 씌워놓은 정애의 생일상은 여전히 정애를 기다리며 아래쪽에 외로히 놓여있었다.

무료하게 앉아있던 조순너는 부엌칸에 내려가 장판결레를 찾아들고 물에 절렁절렁 뿜군다음 랑손으로 꼭 쥐여짜가지고 방으로 올라왔다. 그는 무릎을 꿇고앉아 매끈매끈한 장판바닥을 뽁뽁 힘주어 닦기 시작했다. 정지문쪽에서부터 안으로 닦아 들어가면서 책상가에 이른 그는 허리를 구부리고 책상밑을 훑쳐냈다.

그러던 그는 책상밑 맨구석에 빨간 두껍을 한 노트가 놓여있는것을 보았다.

(이건 왜 책꽂이에 꽂지 않구...)

이렇게 중얼거리며 그는 노트를 집어들었다.

무심히 표지를 펼치니 첫장에 《새로운 생활》이라고 또박또박 박아쓴 글이 나타났다. 정애가 그동안 인상적인 날만은 꼭꼭 일기장에 적는다고

하던 말이 피륙 떠올랐다. 그것이 분명하였다.

가뜩이나 손녀의 심중을 가늠해오는 할머니인지라 호기심이 부쩍 솟구쳤다.

조급한 마음에 채 닦지 못한 장판결레를 한쪽에 밀어놓고 일기장의 첫장을 넘긴 조순너는 책상서랍에서 돋보기를 찾아 눈에 끼였다. 그리고는 뜨직뜨직 읽기 시작했다.

×월 ×일

오늘 작업반에서는 나를 1분조에 배치하였다.

얼굴이 검실하고 눈썹이 짙은데다가 입술마저 두툼한 작업반장은 그 인상과는 달리 매우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였다.

《1분조 포전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곳이요. 포전정리두 잘돼있구 땅도 좋아서 지난해에는 작업반적으로 수확이 제일 높았소... 분조장이 사람도 좋고... 도시에서 살던 동무가 처음하는 일이니 힘은 들거요. 그러나 일없소. 농사일두 손에 익구 몸에 배면 일없소.》

작업반장은 나에게 위안되는 적합한 말을 찾지 못해 애를 쓰는것이 알렸다. 나는 그것이 고마웠다. 그래서 나는 할머니한테 그대로 외웠다.

그런데 나처럼 고마와할줄 알았던 할머니는 머리를 흔드는것이였다.

《반장이 고맙긴하다만은 더 생각해봐라. 네가 어디 여기 사람들한테서 동정이나 받자구 왔니? 농사를 잘지어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지키구 경애하는 장군님을 더 잘 받들어 모시자구 온거지. 년 사람들의 눅직한 동정을 고맙게 여기구 더 일을 잘해야 한다 알겠니?》

나는 할머니의 말씨가 옳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좀 섭섭하였다. 처음부터 일이 힘에 부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반장아저씨도 그래서 고려한것이 아닌가.

그랬더니 할머니는

《바루 그 처음이라는데 문제가 있는거다. 첫걸음을 옳게 내디뎌야 멀구 험한길두 체대루 갈수 있는거야!》

하고 그루를 박았다.

나는 그만 말문이 막히우고 말았다. 자신에 대한 반발심이 솟구쳐올랐다.

그리하여 나는 술선 자진해서 거리가 멀고 웅달샘포전을 비롯해서 땅이 척박하다는 3분조에 넣어달라고 우겨댔다.

반장은 몇번씩이나 나를 설득시키려고 하였으나 끝내 내가 이기고 말았다.

나중에 반장은 몹시 기특해하면서 이것은 《두번째 자원진출》이라고 말하였다.

그렇지만 나는 한편 걱정스럽다. 과연 내가 첫걸음을 바로 걷겠는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로나...

이 대목에서 조순녀는 잠시 눈길을 들었다. 잔조롭히 뜯은 눈앞에는 정애가 《두번째 자원진출》을 하던 날 저녁일이 떠올랐다.

그날저녁 어스름에 작업반장이 찾아왔다. 그는 작업반에서 다시 토론을 하고 왔는데 굳이 3분조에 가려고 하지 말고 정해진 1분조에서 일하는것이 좋겠다는것이였다. 호미자루 한번 잡아보지 못한 어린처녀에게 일에서나 생활에서나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하자고 한 일이다. 그러니 공연히 기분에 떠서 그러지 말도록 할머니가 옆에서 잘 일깨워주라고 하는것이였다.

그러나 조순녀는
《고맙습니다만 그애두 제 생각이 있어 한 일이겠으니 그애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는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잘라 말했다.

《허, 이거 할머니 손녀 똑 같습니다레... 하지만 글썄 애들이야 물덤병 술덤병 한다치구 할머니야 제자식이라는 의미에서도 생각을 좀 해야지요. 그래서 더구나 손녀와 함께 왔을텐데 맞장구를 치다니요...》

작업반장은 과연 수더분한게 인정이 느껴졌다. 하지만 조순녀는 그 권고를 받아들일수 없었다. 제자식이라는 의미에서 더구나 받아들일수 없는 조순녀였다. 그리하여 그는 되풀이했다.

《이보게 반장, 그애가 내자식이기때문에 더우기 그애 요구대루 해달라는겁니다.》

《허, 이거...》

작업반장은 안타까운듯 머뭇머뭇하고 서있다가 머리를 기웃거리고나서 돌아갔다.

(정애야. 참 장하다!)

조순녀는 느닷없이 밀려드는 궁지와 자부심으로 가슴이 부풀었다...

조순녀는 입가에 느슨한 미소를 지으며 그날 일기의 채 읽지 못한 아래글줄에 눈길을 떨구었다.

...오늘따라 어쩐지 할머니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 나는 왜 멀리 계시는 어머니생각보다도 함께와있는 할머니생각을 더하게 될까? 어릴적부터 어머니는 늘 직장에 나가고 할머니와 많이 있어서 그럴까?... 아니야. 그건 할머니가 나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기때문이야.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머리속에 백두산과 장백의 밀림, 눈보라와 붉은 기발을 그려넣었고 미국놈을 때려부신 우리 인민의 불굴의 모습을 그려보곤하였지.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할머니는 나의 눈앞에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영상을 안겨주곤했

했어. 할머니는 그때 벌써 어린 나의 머리속에 어렵곳이나마 신념과 의지를 심어주었어!...

조순녀는 잠시 머리를 들고 가림발을 내리우지 않은 창문밖으로 상념에 잠긴 눈길을 던졌다.

자장가시절을 갓 벗어난 정애가 째만 있으면 옛말을 해달라고 데굴데굴 구울던 일, 그 성화에 못이겨 낮이나 밤이나 좋건 싫건 빼없이 이야기를 해주어야 했던일이 어제런듯 한데 지금은 벌써 그것이 그애의 추억으로 되었으니 흘러간 나날은 빠르기도 하였다. 질풍같이 달려온 그 세월이 오늘은 바로 이렇게 조순녀를 로동수첩밖으로 내밀어 버린것이다. 어쩐지 서글픈 생각이 든다...

그런대로 조순녀는 일기의 다음장을 펼치였다.

×월 ×일

런 며칠째 강녕이영양단지를 극성스레 찍어냈더니 두팔이 늘씬하다. 난생 해보지 못한일이여서 처음은 매우 서툴었다. 그러나 며칠 하고나니 미림이 텃다. 오늘에 찍은것만해도 다섯파상이니 간단치 않지! 나한테 일모리를 띄워주는것은 중학교를 나와 두해째 일한다는 복실이라는 처녀다. 그는 나에게 영양단지기계는 어떻게 잡고 어떻게 찍어 뽑는가를 찬찬하게 배워주었다. 참으로 재롱스러운 애다. 나와 함께 일하게 된 첫날 말뚱말뚱하니 나를 뜯어보더니

《웁아요. 꼭 텔레비존에서 본 언니 웁아요!》

하고 손벽을 짹 쳐서 술한 사람들의 눈길이 나한테로 쏠리고 나는 그 가운데서 몸둘바를 몰라했다.

《두번 다 봤어요. 꽃보라속을 걸어나오는 언니 하구 감사문 전달받는 언니... 난 다 봤어요. 참, 언니 얼마나 좋을까! 위대한 장군님의 감사까지 다 받구...》

《요 쟁포쟁이, 입다물지 못하겠어?》

나는 짐짓 아래입술을 감쳐 물며 잡고있던 영양단지기계를 들어 복실이를 향해 휘둘렀다.

《정말이에요. 언니, 거짓말이 아니에요! 언니얼굴이 고우니 첫눈에 안기던데요.》

복실이는 저만치 달아빠져 소리쳤다.

텔레비존에 두번씩이나 방영된것은 사실이니 보았을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나를 긴장시킨다.

문득 《너는 인젠 평범한 처녀애가 아니다. 모두가 아는 사람이 되었으니 넌 처신을 똑바루 해야 한다.》고 하던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다.

참 할머니는 어찌면 대사에 스쳐버리지 말아야 할 말만 하는지...

며칠전에만 해도 그렇다. 강녕이영양단지를 찍는 발머리에 할머니가 손에 큼직한 보파리를 들

고 나라났었다.

《수고들 하우다. 난 우리 정애가 어떤데서 어떻게 일하는가를 좀 보려구 나왔수다.》

할머니가 가까이 다가오면서 하는 말이였다.

모두가 나오느라고 수고했다느니, 정애는 좋은 할머니를 모시고있다느니 하면서 선망어린 눈길로 할머니와 나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 순간에 나는 기쁘기도 했고 부끄럽기도 했다.

그런데 할머니는

《변변치 못하네만 맛을 보게나.》

하며 손에 든 보자기를 펼치는것이였다. 보자기속에서는 구운 고구마가 디글디글 구울고있었다.

얼굴이 뜨거워진 나는 할머니에게 눈을 흘기었다.

《할머니, 뭘 이렇게 들고다니면서 그래요. 창피스럽게...》

《아이, 언니 후방사업은 곧 정치사업이라는데 할머니 뜻을 모르겠어요?》

복실이가 옆에서 종알거려였다.

《그래 그래, 이젠 수고한다는 인사루두 되구 일을 많이 하라는 부추김으루두 되는거라네. 어서들 듣게나.》

할머니가 손을 들어 가까이들 오라고 하였다.

《고마와요. 할머니, 우린 오늘 두배 세배의 일을 하겠어요!》

《애들아, 먹구 기운들 내자!》

처녀들이 법석 떠들며 제각기 하나씩 집어들었다.

《넌 왜 그러구 서있냐? 너두 하나 먹으렴.》

할머니가 멋적어 서있는 나를 향해 큼직한것을 하나 골라 주었다.

나는 그것을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문득 할머니는 정색해진 눈길로 나의 손바닥을 보더니 얼핏 량미간을 찌프리는것이였다.

나는 얼른 고구마를 빼앗다싶이하고 돌아섰다.

할머니는 바로 나의 손바닥에 콩알처럼 통겨오른 물집을 보았던것이다. 물집은 두개씩이나 되었는데 며칠째 할머니한테는 숨겨오던것이였다.

언제나 서둘지 않는 성미인 할머니는 한마디의 말도 없더니 저녁에 나를 앉혀놓고 민간요법을 들이대었다.

《물집치료는 성냥으로 딱총놓는것두 좋지만 그저 실로 꿰는것이 상책이야. 밤자고나면 그저 그 만이니까. 우리 한참 머리와 등에 풀잎을 쫓고 보잡이운동을 할 땐 실오리는 노상 손바닥에 붙어다녔단다. 한군데걸 뽐기전에 두세군데를 또 꿰매야 했으니까.》

할머니는 손바닥의 물집에 실을 꿰면서 또다시

전시 처녀보잡이운동을 하던 때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나는 조용히 들었다.

《할머닌 아마 그 이야기를 나한테 열번두 더 했을거야.》

두번째 물집의 실을 끊어내자 내가 말하였다.

《그러면서두 그렇게 처음인것처럼 듣느냐?》

할머니가 그랬던가 하는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

《할머닌 자꾸 들으라구 자꾸 하면서...》

할머니와 나는 티없이 웃었다....

×월 ×일

오늘은 농장에서 휴식을 하였다. 휴식이라고 맥을 놓으니 더 피곤한것 같았다.

낮에 복실이가 와서 놀다갔는데 그는 우편통신원한테서 전달받았다면서 나에게 오는 편지를 가져왔다. 나와 함께 7호텔에서 일하던 친구가 보내온 편지였다.

지금 일기를 쓰고있는 내앞에 그 편지상이 펼쳐진대로 놓여있다. 나는 편지의 한구절을 다시 한번 더들어본다.

《...네가 떠난후 여기에서는 온통 네이야기로 꽃을 피운단다. 어쩌면 그렇게도 서슴없이 그 머나먼곳으로 갈수 있는지? 여기 일터가 뭐 단순한 일터야? 저절로 여닫기는 대형유리문과 휘황한 무리등, 넓고 화려한 홀과 번들거리는 대리석 층계들, 참대와 넓은 일 화초들로 둘러싸인 매대들... 과연 너의 가슴속에 무엇이 깃들어있기에 이 번쩍거리는 모든것을 뒤에 두고 내려쪼이는 해별과 사철 눈바람, 비바람 다 맞아야 하는 그곳으로 자원해 가는지?...이런 의문을 제기해놓고 우리들은 아버지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는 길에서 충성과 효성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지고있는 너의 모범을 따르자고들 하였단다...》

나는 편지구절에서 눈을 뗐다.

(참, 나도 처음에는 결심이 아름답기도 했지. 하지만 아버지수령님을 잃은 비통함과 그이의 령전에 다진 맹세가 끓어오르니 그 결심이 아무것도 아니였지!... 그런데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분에 넘치게 친히 감사까지 보내주시고 조직에서는 성대한 환영식을 마련해 주었지...)

나의 눈앞에는 떠나오던날의 수없는 꽃보라와 오색피들, 열정적으로 흔드는 손길들이 떠오르고 저마다 웨치는 축하의 목소리들과 악대의 장중한 환영곡들이 귀가에 그대로 들려오는듯 싶다. 텔레비존촬영기는 왜 그리도 집요하게 나의 얼굴을 따라다녔는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감사와 고마운 조직과 동무들이 마련해준 그 뜨거운 축복에 꼭

보답하리라! 이렇게 새롭게 결심하니 낮에 피곤에 지쳐 누워있는 나에게 할머니가 하던 말이 미처온다.

《애야, 신들메를 더 든든히 조여라! 끈이 혹시 풀어질라.》

할머니는 늘 이렇게 의미심중한 말을 한다. 이것만해도 나는 행복하다. 할머니가 항상 옆에서 나를 지켜보고있고 내가 바늘끝만큼이라도 빗나갈까봐 걱정해 주니까!...

내가 이전에 《걱정많은 할머니》라고 웃어주었구 걱정을 푹 놓으라고 했던 말이 짙어지면서 역시 할머니의 심증이 깨달아진다....

(애가 바른 소리를 하는구나!... 고맙다. 정애야. ...)

조순녀는 자신이 은근히 기울이는 그 마음을 알아주는 정애가 기특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다.

그는 그 기쁨에서였던지 어느새 자기가 다음장의 일기를 읽어나가고있다는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있었다.

×월 ×일

뽕당게 해대는 삽질과 맞들이작업, 곰배와 살팍쟁이로 하는 판고루기, 벼씨를 떨구고 비료와 복토를 치며 기계가 지나가기 바쁘게 다그쳐대는 물주기, 박막씌우기며 후리채꽃기... 눈코뜰새없는 공정이다. 막상 하고보니 벼랭상모판씨뿌리기도 헛치 않은 일이다. 지금은 온몸이 녹자지근하다.

나는 오늘 새삼스럽게 거울속의 자기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살결이 트고 살갗이 감실 감실해졌다. 들판의 해벌과 비바람 다 맞으며 일하니 어린하랴. 내가 할머니에게 《내 얼굴이 많이 났지요?》 했더니 할머니는 《그것이 오히려 건강미가 나구 좋구나!》 하고 말하였다. 나는 할머니가 좋다면 다 좋아! 그래서 난 살갗이 타는 것도 탓하지 않는다!...

이날 일기는 간단히 적었다. 대신에 정애의 총알같은 결심이 탁 튀어나온다.

조순녀의 입가에 느슨한 미소가 어리었다. 그 살갗때문에 있었던 일이 우습게 돌이켜져서였다.

하루는 아침에 출근하여 나갔던 정애가 다시 뛰어들어와서 트렁크를 들추더니 채양을 한뼘이나 되게 만든 산뜻한 모자를 끄집어내는것이였다. 별로 화려하게 만든 그것은 호텔상점에서 외국사람들에게 팔아주던 여름용모자였다.

《너 그건 왜 꺼내느냐?》

조순녀가 대뜸 물었다.

정애는 어물어물하며 인춤 대답을 못하는것이였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대요. 그래서...》

그도 그 모자를 꺼내기까지는 생각이 많았던 모양이였다.

그러나 조순녀는 단호하게 잘랐다.

《모두가 옷통을 벗어내치구 일하는데 얼굴이 탄다구 그런걸 쓰구다냐? 남들이 뭐라겠니. 얼굴색이 아까우면 애당초 농촌에 나오지 말게지!... 참, 언제면 농사일에 몸을 잠그겠는지...》

그러자 정애는 얼굴에 모닥불을 들쓰고 쥐고있던 모자의 채양을 마구 꾸겨버렸다.

《애야, 그럴 필요는 없다. 이제 농장에서 들놀이 해수욕 가는때면 제격이지.》

조순녀는 목소리를 낮추어 부드럽게 말하며 모자를 빼앗아 모자를 바로잡아주었다. 그리하여 그 화려한 모자는 해벌을 한번 받아보지도 못하고 다시 트렁크안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조순녀는 그 일이 가슴에 걸려 그 이튿날로 읍에 가서 산뜻하게 만든 너자용농립모 하나를 사가지고 왔다.

아직은 철부지는 철부지였다. 농립모를 받아든 정애는 전날일은 감감 잊은듯 《아이 좋아. 역시 할머니 제일이야! 제일!...》 하고 퐁퐁퐁 뛰는 것이였다.

그 모양을 보느라니 개운치 못했던 조순녀의 가슴도 한결 가벼워졌다.

하지만 그일이 있는 뒤로부터 정애는 애써 얼굴을 가리우려고 하지 않았다. 그 산뜻한 농립모도 쓰면 쓰고 말면 말고 하면서...

조순녀는 불현듯 지나온 생활의 갈피갈피를 들어내느라 일에 너무 심취되어있었다는 생각이 들어 머리를 쳐들었다. 창밖의 정적에 귀를 기울였으나 여전히 아래우마을 어디에서 개짖는 소리하나 없다. 아래집 누렁이는 아예 굶아빠진 모양이다.

(애가 언제면 들어올런지...배두 고평텐데...)

조순녀는 점점 더해지는 안타까움을 늦추지 못하고있다가 또다시 일기장에 눈길을 떨구었다.

×월 ×일

지난밤 나는 잠결에 할머니가 나의 손을 몰래 어루만지는것을 느꼈다. 나는 할머니가 살며시 손등을 쓸어보고 손바닥도 더듬어 볼 때 할머니의 애뜻한 마음이 미쳐와 가슴이 찢어졌지만 짐짓 모르는척했다.

할머니의 가슴속이 어떠했으리라는것을 나는 알고도 남음이 있다. 나의 손은 화려한 상점진열대에서 매일 부드러운 고급천을 다루고 폭신한

털내의, 털모자, 털장갑들을 만지던 판매원의 손으로부터 뽀뽀한 삼자루와 호미자루, 무거운 밧줄이채들을 다루며 농사일을 하는 농민의 손으로 변한것이다.

터실터실하고 꺼실꺼실 했을거야. 그것이 가슴을 저미었으리라. 너무도 엄청난 생활의 뒤바뀜이 아닌가! 그러나 나는 나의 손이 그저 소비물자만 다루던 소비자의 손으로부터 심고 가꾸고 열매를 맺게 하는 창조자의 손으로 되었다는 새로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창조자의 손!

그래서 할머니는 자꾸만 자꾸만 물어주다가 마지막에는 꼭 쥐고 대견한 생각에 잠기셨을거야. 이 손녀의 손이 창조자의 손이 되었다고!... 할머니, 옳지요?...

(애두 참...)

자기를 향해 물고있는 일기장의 굴죽에 눈길을 박은채 조용히 앉아있던 조순녀는 슬그머니 옷깃을 들어 어느새 축축해진 눈굽을 꼭 누르고는 살며시 훔쳐냈다. 뜨겁고 찜찜한것이 가슴을 그들 먹히 채웠다. 손녀의 커다란 정신적인 변화가 눈물겹게 기쁜것이였다. 생활의 엄청난 뒤바뀜이 이렇듯 사람들도 변화시키는것인가. 사람마다 자기의 생활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다는것은 얼마나 귀중한것인가! 더구나 어렵고 힘든 일터로 바뀌어진 새로운 생활에서...

...그날밤 역시 정애는 늦게야 들어왔었다. 어디서 생겼는지 새빨갳게 익은 도마도를 한보따리 들고왔다. 정애는 그것을 깨끗이 닦아서 할머니 앞에 내놓았다. 그리고는 제일 크고 잘 익은걸 골라서 할머니에게 내밀었다. 들판의 싱그러운 향기를 풍기는 시원하고 달큰한 도마도를 먹으면서 그들은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래, 농사일 꽤 해낼만 싶냐?》

조순녀가 나직이 물었다.

정애 역시 조용히 그러나 힘주어 대답했다.

《내가 뭐 농촌에 심심풀이로 나왔나요? 내가 나올 때 할머니 <결심했으면 신들메를 든든히 하고 나가거라. 농사일이라는게 너희네 그 화려한 매대나 번들거리는 홀과 같은데서 하는 일이 아니다.>하고 말하지 않았어요.》

《음...내가 그랬었나?...》

조순녀는 한없이 정겨웁고 미더운 눈길로 손녀를 바라보았다.

도마도를 몇개씩 들고난 할머니와 손녀는 도마도보자기를 방구석에 밀어놓고 나란히 자리에 누웠다.

창문발췌으로 새여들어온 한줄기 달빛이 창판

바닥에 떨어져 동전일같이 아롱거렸다.

피곤에 몰린 정애는 인차 잠들었다. 먼 곳의 바람소리인양 아슬프레한 숨소리가 켜켜켜거렸다.

조순녀는 그물그물하니 잠이 오지 않아 눈만 감고 이것저것 번거로운 생각을 쫓고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창판바닥의 동전일이 대어섯뽀 되게 옮겨갔을 때 《으흥...》 하더니 정애의 투실투실한 팔이 조순녀의 가슴우에 와서 털썩 안기는것이였다. 집에 있을 때처럼 나란히 눕기만 하면 늘 그러던 잠버릇이다.

조순녀는 살그머니 정애의 손을 잡았다. 그는 손을 가슴우에 꼭 누르고 손등을 슬슬 어루만지였다. 언젠가 어느 화창한 봄날 살림집의 창문가에서 신록이 질어가는 유희장쪽을 내려다보며 할머니더러 관성렬차를 타러가자고 손잡아 끌던 때 느꼈던 감촉과는 전혀 달랐다. 보통보통하고 매끈매끈하던 손이 툭툭하고 터슬터슬했다. 손바닥도 살가죽이 두터워진것이 알렸다.

조순녀는 가슴이 찢어졌다.

(힘들테지!...)

측은한 생각이 눈굽을 지지는것을 느끼며 그는 자기의 두손으로 손녀의 손, 늘 무거웁과 뻔친 힘, 차거웁과 굳은것과의 씨름으로 거칠어가는 손녀의 손을 꼭 싸쥐였다. 그리고는

(애야, 아무튼 이겨내야지!...)

하고 가슴속 깊은곳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으로 속삭였다....

그렇게 얼마동안 지나 조순녀가 살췌이 잠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정애가 《분조장아저씨, 분조장아저씨!...》 하고 잠꼬대를 하더니 조순녀의 손을 뿌리치며 벌떡 일어나 앉는것이였다.

사뭇 놀란 조순녀가

《너 무슨 꿈을 꾸게로구나!》

하고 묻는듯 바라보았다.

《아이, 깜짝이야, 글썽 웅달샘포전 눈물이 마구 넘쳐나는게 아니겠어요. 오늘 그 눈에 비료를 쳤는데...》

정애는 량팔을 울려 머리매무시를 하고나서 꿈속을 되새겨보는지 멍청하니 앉아있는것이였다.

《혹시 그게 정말이 아닐까?... 꿈과 생시는 정반대라고는 하지만 신통히두 맞는때가 있단다.》

조순녀는 심각한 눈길로 손녀의 두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이런 순간에 정애가 어떻게 자기를 지키는가를 가늠해 보는것이였다.

촉기빠른 정애는 급기야 자리를 일더니 담요와 베개를 한쪽에 밀어놓았다.

《할머니, 그럼 내가 나가보구 오겠어요.》

《음...》

그것을 바랬고 그렇게 되도록 은근히 마음 써

오는 조순너는 대견해지는 가슴을 안고 정애를 바라보았다.

부엌간에 뛰어나간 정애는 어느새 구석에 세워 놓았던 삽을 손에 들었다.

《애야 함께 가자꾸나.》

조순너는 주섬주섬 옷을 주어입고 정애를 따라 나섰다.

은은하게 흐르는 달빛이 마을우에 환히 비졌다. 들에 나서니 들판은 안개같은 달빛속에 포근히 잠들었는데 마치고 꿈속에서 두사람의 발자국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있는듯 싶었다.

할머니와 손너는 웅달샘포전에 이르렀다.

젖빛같은 안개가 벼포기사이를 맴돌고있었다. 포기사이를 흐르는 안개는 벼이파리들을 스치며 스르륵 스르륵 소리라도 내는것 같았다.

여기저기 논뚝을 따라 살펴보았다. 논물은 이상 없었다. 정애는 팔을 걷고 논물에 손을 잠그었다. 물의 깊이도 알맞춤하다.

《괜히 나왔군요 할머니.》

정애가 아쉬운 목소리로 말하였다.

조순너는 정애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왜 괜히겠니. 그래, 이렇게 나와보니 마음이 놓이지 않니.》

정애는 잠시 말이 없었다.

《사람은 언제나 마음의 짐을 지고 살지 말아야 한다.》

《웁어요, 할머니.》

정애의 목소리에는 비로소 새로운것을 감수한 그런 기쁨이 어려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전에 돌려 주신 사랑과 배려에는 조금도 보답을 못하고있지. 천년이 간들 그 빛을 갚을수 있겠니만은...》

상념에 잠긴 조순너의 말은 정애의 가슴을 휘저어 놓은듯했다.

《할머니, 난 이 포전에 나오기만 하면 이 논머리에 서계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을 눈앞에 그려보게 돼요. 친히 흙물은 벼포기를 손에 드시고 아지수를 세여보시며 논벼상태가 좋지 못한것을 두고 걱정하시는 모습을 말예요. 그러면 그것이 정말인것처럼 생각되면서 나의 마음도 승엄해지거든요. 별스럽지요. 그것이 정말이 아닌데두 가슴이 마구...》

정애는 자못 신중한 표정을 짓고있었다.

《그건 네가 그렇게 마음 써오기때문이지. 그게 중요한거다. 그렇게 살며 일하면 돼!》

할머니의 말을 듣고있는 정애는 여전히 깊은 생각속에 잠겨있었다.

할머니도 정애도 들판도 침묵속에 잠겨있었다.

달빛속에 묵묵히 드러누워있는 아래논구석에서 무엇에 놀랐는지 밤새 한마리가 푸드득 날개를

치며 밤하늘로 날아올랐다. 《가르륵 가르륵》 하는 밤새의 울음소리가 아득히 멀어져갔다.

《애야, 넌 지금 뭘 생각하니?》

조순너가 조용히 물었다.

《할머니... 우리 농민들이 벌써 이미전에 이런 웅달샘포전과 같은 논들을 다 옥답으로 만들어서 알곡수확을 높였더라면 우리 수령님께서 그렇게 일찌기 우리 결을 떠나시지 않으셨겠지요?》

느닷없이 하는 정애의 말에 조순너는 순간적으로 송곳같은 예리한것에 심장을 찔린듯한 아픔을 느꼈다.

그것은 그 청천벽력의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몸과 마음에 응결물로 차있는 아픔이긴 하지만 오늘 바로 다름아닌 손너로부터 새삼스럽게 받게 되는 아픔이어서 류달리 가슴에 미쳐오는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 집이다.》

꺼지는듯한 목소리로 말하면서 조순너는 정애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있는 크나큰 상실의 죄책감과 비장한 각오를 푹푹히 보고있었다. 정애의 절절한 그것이 조순너에게 커다란 믿음을 주는것이였다.

할머니와 손너는 이밤 가슴속깊이에 덧쌓이는 짐의 무게를 절감한채 아래도리를 휘감는 걸쭉한 안개를 휘저어놓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밤의 일을 그려보며 조순너는 일기장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그것은 며칠전에 쓴 일기였다.

×월 ×일

할머니와 함께 런 며칠을 두고 만들어놓은 보충비료를 오늘 프락트르에 싣고나가 웅달샘포전에 시비하였다. 그 포전에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훨씬 더 높은 수확을 내야 한다. 그래야 어버이수령님을 잃은 크나큰 슬픔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어 땀흘린 보람이 있지.

나는 오늘 웅달샘포전머리에 《농장포전은 나의 포전이다!》라는 구호관을 만들어 박아놓았다. 그랬더니 그것이 나더러 농사를 잔지고 알뜰하게 하라고 호소하는것만 같아 저절로 대견한 생각이 들었다.

포전을 돌아보던 반장아저씨가 그것을 보더니

《평양처녀의 잡도리가 여간 아니다! 응...》

하며 나를 향해 머리를 끄덕이였다.

나는 것처럼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웅달샘포전에서 어버이수령님 유훈이 관철되는 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충성의 편지를 삼가 올릴 결심이다. 우리 조순너할머니가 전화의 날 녀성보잡이운동의 앞장에 서서 춘기과종을 승리적으로 끝내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 영광의 보고를 담은 편지를 삼가 올린것처럼...

여기에 나의 충성과 효성이 있다!

(참, 멋지게 글줄마다 이 할미는 왜 자꾸만 거들었나? 아무리 남 안보는 일기로서니…)

하지만 조순녀는 그것이 싫지 않았다. 자기가 한 모든 말과 행동이 힘이 되고 본보기가 된다면 그것은 기쁜 일인것이다.

조순녀는 가슴이 후터워났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고 농촌으로 자원진출해 나온 손녀 정애가 첫걸음부터 정보로 걷기 시작한다는 믿음이 생기는것이였다. 그렇지 못할가봐 얼마나 걱정해오는 조순녀인가.

조순녀의 눈길은 저도 모르게 벽에 걸어놓은 족자에 가 박혔다. 억센힘이 넘쳐나게 활달한 필체로 내려쓴 《충효일심》! … 이 방에 려장을 풀던 날 그 족자를 걸면서 《…위대한 장군님 받들어 충성효성 다해가며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리라!》 하고는 밝게 웃던 정애의 모습이 그려졌다. 그것이 한달 그 나이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좋은 좋은때》라고 하는 애젊은 시절의 아이에 뜬 허영이 아니였다는 생각이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것이였다. 이에 뜬 허영이 아니였다는 생각이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것이였다.

불현듯 조순녀의 머리속에는 과연 무엇이 온실안의 화초와 같이 생각되던 손녀 정애를 오늘 폭풍과 대응하는 령마루우의 억센 청송처럼 키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시대의 벽찬 격류에 용약 뛰어드는 정애로, 할머니의 높은 요구를 서슴없이 받아들이고 오히려 앞질러 나가는 정애로…

돌연히 떠오른 자기의 그 물음에 조순녀는 뜨거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대답을 찾고있었다.

(위대한 조국의 품. …그럼 그렇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품이다!)

조순녀는 대개의 거창한 파도마냥 밀려드는 숨업한 감정에 가슴 설레이며 조용히 일기장을 덮었다…

…밖은 여전히 감감하다.

임자를 기다려 놓여있는 음식상조차 이제는 네다리를 뻗치고있기에 지쳐버린것처럼 보였다.

또다시 안타까운 눈길을 창문밖으로 던지는데 어두운 창문에 얼핏 불빛이 번뜩이였다. 번개불인가싶더니 아닌게아니라 한참후에 먼곳으로부터 궁글은 우뢰소리가 들려왔다.

문득 조순녀의 머리속에는 갑자가 비료실이를 가게 되어 샅을 가지러 들어온 정애가 오늘밤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것이 예견된다면서 웅달샘포전을 두고 걱정하던 일이 상기되였다. 동시에 온몸에 긴장이 왔다.

(이 정신파라. 정애를 기다리고만 있다니… 내가 대신 그 포전을 지킬수도 있잖아… 함께 나누

려던 저 생일음식이야 할수 없지. 오거든 혼자 먹으라고 할수밖에…)

조순녀는 얼른 일어나 다시한번 음식상을 내려다 보고는 비웃을 꺼내고 부엌구석에 깊이 두었던 샅을 찾아 들었다.

집을 나선 그는 곧바로 동구밖을 벗어나 웅달샘포전으로 향했다.

어두운 들판에는 인적기하나 없고 기압이 낮아진 밤하늘에는 별빛하나 없다. 세찬 비와 바람을 기다리는듯 놀리며 숨막힐듯한 정적만이 밤들판을 짙고있는데 어디에선가 밤뜸부기 《뜸뽁, 뽁뽁》 울어대고있었다. 그것은 마치도 조순녀더러 《빨리빨리》 하고 재촉하는듯 싶었다.

어둠에 발을 걸채이며 포전에 이른 조순녀는 어디에서 물이 새어나가는 소리라도 나지 않나해서 귀를 기울이였다. 그리고나서는 논두렁을 발뽀발뽀 밟아나갔다. 억수에 혹시 터져나갈수 있는데나 없는지해서였다. 잔잔히 어둠속을 더듬으며 조순녀는 어느덧 포전길과 잇닿은 큰 논두렁가에까지 갔다.

그가 포전길에 올라서려는 때였다. 문득 어둠속 어디에선가 잠꼬대 소리같은것이 들렸다. 조순녀는 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들려온쪽을 유심히 살폈다. 큰 논두렁밑의 후미진곳에 웅달의 눈무지같은 허연 물체가 보였다.

(무엇일가?…)

조순녀는 조심조심 다가갔다. 곁에까지 바투다가가 찬찬히 들여다 보던 조순녀는 그만 그자리에서 그자세로 굳어지고 말았다.

(아니, 애가!…)

다름아닌 정애가 달팽이처럼 쪼그리고 앉아 잠들고있는것이였다. 무릎짹에 끼안은 샅자루턱에 비스듬히 머리를 기대고…

조순녀는 허리를 굽힌채 잠든 손녀를 조용히 내려다보고있었다.

(오죽 피곤했으면…)

가슴속에 뜨거운것이 무뎌해진다. 정성들인 생일상은 정지방 아래목에서 주인 오기를 기다리는데 주인은 여기 논머리에서 잠들고있지 않는가!

허리를 펴며 일어서는 조순녀의 가슴은 억제할수 없는 걱정으로 설레였다. 정애는 비록 쪼그리고 앉아 잠들고있지만 그 모습은 여기 이 포전, 아니, 온 나라의 논벌을 지켜선 거인의 모습으로 안겨오는것이였다. 그것은 그대로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해가는 농장벌의 주인된 모습이였다.

조순녀는 와락 뚫어앉아 정애를 꼭 껴안아주고 싶었다. 껴안고 어깨며 머리며 마구 쓸어주고 불이 닳도록 비벼대고싶었다.

그러나 지금 정애에게는 그 쪽잠도 귀중한것이

였다. 그래서 조순녀는 그의 잠을 깨칠가봐 정애 곁에 숨을 죽이고 앉아 오래도록 그의 굳잠을 지켜보고있었다.

이때 어두운 포전머리쪽에서 《정애언니!...》 하는 애된 처녀의 부름소리가 들려왔다. 뒤미처 《정애!-》 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에구. 누구들인지 애의 쪽잠을 깨치겠군!)

조순녀는 움쭉 일어섰다. 그리고는 그쪽으로 바빠 걸어갔다.

《누구요?》

《정애언니, 나야요, 복실이에요. 그리구 반장이 저씨두...》

어둠속에서 두사람의 그림자가 다가왔다.

《응, 복실이냐? 뭐 반장하구 같이?》

《어마나! 할머니예요? 난 정애언닌줄 알구...》

복실이 가 어리뻑해 하는데

《이거 할머니가 어떻게 이 밤중에?...》

작업반장이 반색하며 앞에 쭉 나섰다.

《우리 정애 지금 저기 논두렁밑에서 잠들었다 우.》

《아니 논두렁밑에서요?...》

《정말 언니두...오늘이 무슨날인지 알면서두...》

세사람은 어둠속에서 서로 얼굴들을 마주보았다.

《그럼 우리 깨우지 맙시다. 피곤할거요. 낮에 비료실이에 가서두 얼마나 수고했게. 정애 집에 두 안들리구 곧장 여기루 나왔던게지.》

《그렇수다. 나두 눈이 빠지게 기다렸다우. 그런데 그애가 낮에 여기 포전을 걱정하던 일이 떠오르지 않겠수. 그래 내가 좀 봐주자 하구 나오니 저애가 글썄 저렇게...》

《아무튼 할머니손녀 언제봐도 한본새라니까! 우린 그런줄도 모르고 오늘이 정애 귀빠진 날이라서 축하나 좀 해주자하구 갔더랬소. 그런데 집은 비어있구... 우린 대뜸 생각한게 정애 여기루 나왔을게다 했지요. 어련하겠소!》

작업반장은 대견해하는 심정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발자국소리를 죽여가며 정애한테로 다가갔다. 할머니와 복실이도 따라섰다.

정애는 그런줄도 모르고 여전히 쪽잠속에 빠져있었다. 잠결에 무엇이라고 중얼중얼하면서...

《뜸북, 뜸북...》

아까부터 울어대는 밤뜸부기의 울음소리... 그것은 마치도 먼 꿈나라에서 들려오는 자장가와도 같이 정애의 어깨를 다독여주고 말없이 서있는 조순녀와 작업반장 그리고 복실이의 심정도 건드리며 이밤의 사연을 정답게 구가하는듯싶었다.

이튿날 아침 조순녀는 말없이 려장을 꾸리었다.

려장이래야 별것없다. 그동안 갈아입던 내의들을 차곡차곡 접어서 도중식사와 함께 가방에 넣으면 되는것이다.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정애의 두눈이 휘둥그레졌다. 오래오래 있어주겠다던 할머니가 이렇게 갑자기 떠나다니...

《애야, 난 인젠 여기에 더 있을 필요가 없다.》

울퉁해진 정애의 눈을 바라보며 조순녀가 말하였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그새 지내면서 보니 넌 나없이두 네 갈길을 똑바루 가고있구나! 난 정말 기쁘다. 너의 처음하는 일에 실수가 없도록 하자구 왔지만 난 인젠 마음놓고 네결을 떠나겠다. 집에서는 지금 눈이 까매 기다릴게다.》

《...》

입술을 감쳐물고있던 정애의 속눈썹밑에 슬그머니 물기가 핑그르 했다.

할머니의 말은 정애로서는 너무도 뜻밖이었다.

이때까지 할머니는 그저 자식들에 대한 본능적인 사랑으로 하여 어린 손녀를 떠나면 외지에 홀로 보낼수 없어 하는 로파심에서 따라온줄만 알았고 또 그것이 그저 좋기만했던 정애였다. 생소한 고장에서 생소한 생활의 첫걸음부터 바로 내디디도록 해주려고 할머니가 따라왔다는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정애였다.

정애는 함함해지는 눈을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돌이켜보니 할머니가 자기의 첫걸음을 말없이 부축해준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 가지가지의 사연들이 한순간에 별찌같이 정애의 눈앞으로 가로 질주해갔다. 그 사연들에 습배인 할머니의 그 웅심깊고 뜨거운 마음이 지금 정애의 눈굽을 적시고있는것이였다.

《할머니, 고마와요!》

정애는 할머니의 가슴에 그만 얼굴을 묻었다...

《고맙긴... 넌 이미 다 자란 애였다.》

《할머니, 가지 않으면 안돼요?》 잠시후 머리를 든 정애가 갈린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는 지금 자신이 이곳에서 얼마나 보람있게 살고있는지 모른단말예요?》

얼굴을 의젓이 치여든 정애를 조순녀는 다시금 새삼스럽고도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정애는 지금 자기의 성장을 한순간에 선포한듯 보다 원숙한 처녀로 자기앞에 서있는것이였다.

《알만하다. 알만해! 그래두 갈걸음인데 가야지...》

조순녀는 몹시 대견한 심정을 안고 정애를 꼭 껴안아주었다. 아직 철없는 엉석둥이로 여기고 잡자리에 누울 때면 가끔씩 품에 안아주던 그 시절은 인젠 영영 가버렸다는 애절함을 금치 못하

면서...

이 순간 조순녀의 머리속에는 불현듯 어제밤 논머리에서 정애의 굳잠을 지켜주면서 안고 모대기였던 번거로운 생각이 다시 떠올랐다.

(나는 이제는 정애를 생각하면 이 벌이 그리워지구나 이 벌을 생각하면 정애가 그리워질게다. 손녀에게 정이 가듯 이 벌에도 정이 붙었다. 그런데 이 모든것을 버리고 떠나야 한다...)

그러나 차츰 조순녀는 이 피로운 생각이 썰물같이 멀리로 사라져가는것을 느끼었다. 대신에 밀물처럼 가슴가득 채우는것이 있었다.

(내가 왜 이렇게 그리워질것만 생각한담. 사랑스러운 손녀가 있고 정든 벌이 있는 이 고장에서 내 한생을 후회없이 마무리할수도 있지 않나.

아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뜨거운 은정속에서 한생을 흙냄새와 함께 보람차게 살아온 몸이 비록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이지만 마지막까지 흙냄새를 맡으면서 이 땅에 다문 몇푼어치의 가치라도 보람을 주어야지! 이것이 우리 수령님의 유훈을 받드는 길이야 아닐가...)

그리고보니 수도의 아들집에서 보낸 십년가까운 세월이 너무도 덧없이 흘러간 생의 공백처럼 생각되었다. 무료하고 지루한 그 나날에 육체며 정신이며 얼마나 녹슬어갔으랴. 그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무거워났다.

흔히 사람들은 그것을 지나온 로동년한기간에 크나 적으나 흘린 땀의 대가로, 혹은 이 사회에 바쳐온 크고 작은 공로의 대가로 웅당하게 차례지는 인생말년의 안식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조순녀는 그렇게 받아들일수 없었다. 그 공백을 이제라도 메꾸어야 한다는 자의식이 의무감으로 되어 안겨드는것이였다...

이 생각을 물어둔채 조순녀는 려행준비를 마저 끝내었다.

아침해가 방금 먼 들관 한끝에서 하루의 무더운 려행을 시작할무렵 조순녀는 마을사람들의 배려움을 받으며 먼길을 떠났다.

×

《어머니, 그래 어떻습니까? 정애가...》

《응, 만날 향수냄새만 피우며 다니던 애가 인젠 제법 흙냄새가 나더라.》

《보라요. 어머니, 그 먼곳으로 공연히 가지 않

았어요.》

《괜한 걸음이 아니야. 난 이번 걸음에 정애하는 우리 장군님의 품이 우리 정애를 어떻게 키웠는가를 똑똑히 보았네. 그러구 그애가 장차루 남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리라는 믿음을 안구왔어! 이것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나?》

이것은 돌아온날 저녁 조순녀와 아들며느리 사이에 오고간 말이다.

말문이 막힌 아들과 며느리한테 정애이야기를 한참 들려주고난 조순녀는 내친김에 《이제부터 나는 정애한테루 영 가있을걸 결심하구 왔다.》

하고 자기 의향을 내놓았다.

《네?》

아들과 며느리는 일시에 같은 소리를 내었다.

《한생을 흙냄새를 맡으며 살아온 몸이 흙냄새를 맡으며 여생을 보내야지. 나는 십년가까이 이 집에 와있는사이에 그만 밥벌레가 되구말았다. 이제라두 정애곁에 가서 아무 일이나 하면서 나라에 보람을 주련다. 이것은 정애가 나에게 말없이 일깨워준 충고다.》

사실 돌이켜보면 조순녀에게 있어서 그곳에서 정애와 같이 지낸 며칠간은 여기 아들네 집에서의 몇해와는 대비조차 할수 없는, 그 몇해를 메꾸고도 남으리만치 풍부한 생활로 충만된 뜻깊은 나날이였다.

아들이 그것을 알수는 없다. 하기에 아들은 조순녀의 말을 리해못하고 있는것이다.

《아무리 그렇다쳐도 그 년로하신 나이에 농촌에 나가 뭘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나이는 먹었어도 오륙이 성하지 않느냐. 하다못해 흙냄새에 젖어가는 정애를 보구만 있어두 내 속이 편하겠다. 그애가 하는 일 다문 한두가지 거들어줘두 그제 농촌을 돕는게 아니겠니. 내가 여기에 앉아버린다면 그것은 정애한테 죄를 짓구, 한뼉 농사루 늙어온 내 량심에 죄를 짓는 일이야... 그러니 다른 생각은 말구 당장 정애한테루 되돌아갈 려장이나 꾸려라!》

이것은 벌써 조순녀의 굽힐수 없는 결심이라는것을 잘 아는 아들과 며느리는 어안이 병병해지고말았다. ...

그로부터 며칠후 조순녀는 아들과 며느리의 전송을 받으며 수도의 화려한 살림집을 떠나 정애가 있는 머나먼 곳, 구수한 흙냄새가 향기처럼 풍기는 그곳으로 떠나갔다.

바다여, 나를 부르라

리영

나의 기슭

나의 기슭, 그것은
물을 떠날 때 바래워주던
정다운 손저음이더라
돌아올 때 마중해주던
살뜰한 눈빛이더라

들놀이 하자던
안해와의 약속이
술숯이 되어 설레는곳
아버지의 수표를 받으려
딸애의 숙제장이 펼쳐져있는곳

거기엔 어버이수령님
온돌방을 짚어보시던 집이 있어라
거기엔 날 기다려
경애하는 장군님 거니시던
뜨거운 모래불이 있어라

이 기슭 없다면
나는 풍랑의 인생
이 기슭에 두고사는 평온이 없어야
어찌 먼바다로 마음 가벼이 나갈수 있고
먼 바다에서 희망넘쳐 돌아올수 있으랴

이 기슭에 있어라
배길에 흘린 더운 땀 식히려
내 즐겨찾는 해안거리 청량음료매대가
만선하고 돌아온 이몸을 세워주던
사업소 회관의 화려한 무대가

불길 만리에 외롭지 말라고
눈빛으로 불빛으로 따라서는 기슭
노한 파도도 잔물결로 잠재우며
내 마음의 안정을 지켜주는 기슭

진정 이 세상 배를 대일곳이면
그게 다 기슭이라
바래주는 그 손길이 없어봐라
맞아주는 그 진정이 없어봐라

아 크나큰 사랑의 품을 펼치고
나를 기다려주는 어버이 계시는곳
조국의 대지를 펼쳐줄수 있는 바로 그곳이
단 하나 나의 기슭이여라
내가 안길수 있는 기슭이여라

수평선아

부웅-
출항의 배고동 길게 울리자
나는 오늘도 배전에서 가슴을 펴고
멀리 수평선을 바라본다

이 하늘 이 바다가
하나되어 아물거리는 저기-
저기가 가닿을곳인듯싶어
저기서 그 누가 날 부르는듯싶어

하지만 서두르는 마음
갈매기 나래되어 달려갈제면
어서오라 손짓하는듯
너는 또다시 멀어지누나
수평선, 수평선아-

나는 네가 좋아라

당이 안겨준 청춘의 용맹안고
이 바다 그 모두 정복해갈
내 마음 끝없이 끝없이 불러주는듯싶어
이 바다 넓고 넓다고
네가 그 모두 말해주는듯싶어

너는 응당 아득해야 한다
너는 응당 끝이 없어야 한다
이 바다 끝이 있다면
그게 무슨 바다라
이내 열정과 어이 어울리라

수평선, 수평선아
넘쳐나는 이 정력 창창히 불러만 다오
출어전의 세찬 물결 일으켜가라고
언제나 출발선처럼 나를 불러만다오
언제나 새 바다를 내앞에 펼쳐만다오

풍어길의 이모저모

×

가재미랑 청어랑 가득 실은
뜨랄선에서 올라가는 노래소린
에헤라- 우리는 일숨씨 걸싼
이 바다 총각들이라네

그러자 미역이랑 섭조개랑 떠실은
전마선에서 되받아치는 노래소린
에헤요- 우리는 일숨씨 간진
이 바다 처녀들이라네

저녁 배길엔 승벽도 많아
총각들이 미역이니 섭조개니 놀려대니
처녀들이 손나팔로 하는 말
쌓아놓으면 인민의 행복이 된다네, 기쁨이
된다네

×

첫 해살이
물결우에 흔들리는 이 아침
낙지잡이 배 한척
뚝기뚝기 포구로 들어서네

선체우엔 밤을 밝히던

전등들이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갑판우엔 네활개 편
한 젊은이 코를 드렁드렁

보나마나 밤을 꼬박 새웠을테지
성실한 로동이 불러온
그 젊은이의 깊은 잠 깨지 말라고
이 바다도 요람이 되여 흔들어주네

×

통통통 연기 뿜으며
잠수배가 부두에 스칠듯 와당네
문어며 해삼이 흐늘어진 갑판우엔
잠수공아바이 입이 헤벌써 앓아있네

- 홍아바이 마수거리 어떻게?
능청스레 물어오는 소리에
아바인 허를 끝끝, 입속으로 중얼중얼
- 원, 눈은 두었다 뭘하누

그럴수밖에, 풍성한 수확물을
팬히 어창아닌 갑판에 쌓았을가
시침뎌고 자랑 하고픈 령감님 마음
먼저 알아주지 못하니 섭섭해하는 모양

바다여, 나를 부르라!

천리 바다여 나를 부르라
만길 바다여 나를 부르라
너처럼 내 마음 넓어지고싶다
너처럼 내 생각 깊어지고싶다

내 여기서
부두에서 꽃송이로 바래주던
정다운 그 손길들이 그리웁인줄 알았노라
높아가는 파도 앞서 나를 찾는 그 전파가
우리 당의 뜨거운 부름인줄 알았노라

사랑인줄 알았노라
귀중함인줄 알았노라
찾아오실적마다 수령님 들러보시던
해안거리 상점들이며 불밝은 창가들이
우리 장군님 하나 둘 꾸려주시던
솔푸른 유원지며 하얀 방파제가

물에 있을 땐
미처 모르고 지내던 정든것들이
이 바다에선 새로운 의미되어

내 가슴에 곱으로 안겨오거니

바다여
폭풍이 불어도 나를 불러달라
격랑이 밀어도 나를 불러달라
은혜론 이 땅을 밟는 그 한자욱에
배길 천리 배길 만리를 이어주고싶다

내 날씨를 가리면 어찌하랴
수령님 자주 열어보시던!
고기 저장고가 나를 기다리고있거니
이 가슴에 파도 일궈다오
이 바다에 세워준 장군님 위해
나는 더 용맹해지고싶다, 더 나래치고싶다

내 장군님의 청춘일진대
300일 출어의 나날들을
네 물결우에 보답의 자욱으로 이어놓으려니
바다여, 너의 폭풍으로 나의 위훈을 부르라
바다여, 너의 격랑으로 나의 삶을 떠받들라
-서호수산사업소에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더 높이 발양시키자면 보건사업을 개선강화하여 인민적인 보건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국가의 의료상 혜택이 인민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김정일

실화문학

바치는 사랑속에 꽃피는 삶

-강원도인민병원 원장 로력영웅 임영재동무에 대한 이야기-

김동호

밤새 하얗게 눈이 내린 어둑셀녁이었다.

몸이 부하고 이마가 번듯하게 열린 50대의 한 장정이 솟눈우에 또렷한 자욱을 남기며 조용히 걸음을 옮기고있었다.

밤새 별다른 일이 생기지 않았겠는지 모르겠다.

매번 출근길에 나서기만 하면 마음이 조금해져 절로 걸음이 빨라지는 임영재였다.

그래서 머리를 수긋한채 자욱을 옮기는데 앞쪽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머리를 들어보니 살림집짜사이로 빠져나온듯 두명의 사람이 등싯등싯 움직이고있었다. 어둑속에서 살펴보느라니 한사람이 다른사람을 업고가는것 같았다. 불안한 예감이 온몸을 엄습했다. 임영재는 저도 모르게 걸음을 다우쳤다.

따라서보니 장정은 환자를 업고 녀인은 뒤에서 부축하고있었다.

《왜 구급차를 리용하지 않고 이렇게 나섰습니까?》

《구급차가 나가구 없어서 좀 기다려야겠다고 하길래 그냥 떠나왔습니다. 환자는 점점 더 바빠하기에...》

살펴보니 환자는 예순을 넘긴듯싶은 안늙은이었다.

《좀 기다려주십시오.》

영재는 길옆에 있는 동사무소로 달려 들어가 병원에 전화를 걸어 자기 승용차를 불렀다. 그가 바로 새로 부임된지 얼마되지 않는 강원도 인민병원원장 임영재였다.

첫 자욱

남강원도 린제가 고향인 임영재는 1958년 10월 원산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였다.

최우등으로 전문학교과정을 마친 그의 전도는 양양했다. 함흥의학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던것이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의학을 동경했다.

그것은 왜놈의 세상에서 소 한짝 널 힘이 없어 급성충수염으로 꽃다운 나이의 누이를 잃은 때 부터였고 미체침략자들이 이 땅에 피뿌린 세균무기에 의해 아버지와 어머니를 무참하게 잃은후에 더욱 굳어지였다.

그의 리상은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활짝 꽃피게 되였다.

(스물다섯살이면 대학을 졸업하고 그다음은 연구사로, 30대에 의학박사로!)

았으나 서나 그 꿈이었다.

꿈속에서 밤을 맞고 꿈으로 새벽을 장식하던 어느날이었다.

졸업배치를 받고 군으로 떠나가는 동무들을 바래주려고 원산역으로 가던 길이었다.

의식을 잃은 처녀를 등에 업은 한 늙은이가 도병원으로 달려가고있었다. 처녀의 아버지였다. 처녀는 금강군 단풍리 농장원이었다.

아직도 전쟁의 상처가 채 가시지 않았지만 나라에서는 농장마다에 진료소를 내왔다. 진료소가 생긴이래 녀자들이 셋씩이나 소장으로 배치받아 왔으나 모두가 도시로 시집을 가다보니 두달째 소장자리가 비어있다는것이다.

보호자의 호소에 의해 급성충수염이라고 짚어본 영재는 환자를 부축해서 병원에 입원시키였다.

그리고는 그 길로 학교에 찾아갔다. 그 처녀와 맞닥튼 순간 불쑥 누이생각이 가슴에 마쳐왔던것이다.

《저를 금강군 단풍리 진료소에 보내주십시오.》

아지를 치고 녀쿨을 뻗어올리던 그의 꿈은 줄지에 뒤바뀌지였다.

《후회하지 않겠소?》

말없이 오래동안 흥분된 그의 말을 듣고있던 담임교원은 이렇게 오금을 박아 물었다.

《저는 남자입니다. 후회하는건 사나이가 아닌 줄로 압니다. 저는 그 처녀를 보는 순간 누이가 살아서 내앞에 나타난것만 같았습니다. 대학의 길이야말로 저의 인생행로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될수 있다는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뒤로 미룰수 있습니다. 지금 저의 손을 절절히 바라며 기다리고있는곳은 바로 저겁니다. 금강군 단풍리는 심심산골이라고 합니다. 제가 거기 가서 든든히 밥을 붙이고 서있겠습니다.》

영재는 굳게 다진 마음을 좀처럼 돌리려고 하지 않았다.

이튿날 그는 책들이 한가득 차있는 배낭을 둘러메고 학교를 떠났다.

금강군 단풍리는 도소재지인 원산에서 500여리나 떨어진 외진 산골이었다. 앞과 뒤, 좌우를 돌아다보아도 병풍처럼 온통 산으로 빙 둘러막힌 농촌이었다.

자그마한 진료소웃방에다 배낭을 풀어놓은 임영재는 마음을 다잡고 어깨우에 짊어진 무거운 《집》을 억척같이 떠메고 나갔다.

그는 우선 의학상식이 적고 과학적인 치료방법을 믿으려고 할 대신에 어딘가 모르계 풍설에 더 귀를 기울이려는 늙은이들과 아주머니들을 위생문화적으로 계몽시키기 위한 사업에 첫 발을 내디디었다.

매 작업반마다에 위생초소를 설치하고 30미만의 젊은 사람들로 퇴근후에 두시간씩 의학상식을 주며 석달만에 수십명의 위생열성일군을 양성해냈다.

그들은 주사를 놓을수 있게 되었고 1차구급처치를 할수 있게 되었으며 체온과 맥박을 재는 등 100여가지의 민간요법을 습득하게 되었다.

매 분조에서 다섯명이상씩 길러낸 250여명이나 되는 이들이 포전의 월참에 위생선전을 맡아했고 구급환자가 제기되면 1차구급대책을 세워가지고 진료소에 뛰어왔었다.

한편 《로인의 밤》을 설정하고 매주 세차례씩 그들과 자리를 같이하고 위생상식을 주입시키었다.

잉어, 붕어와 같은 민물고기와 남새를 생채로 먹지 말며 식사전에 꼭꼭 손을 씻고 밥상에 마주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우리 아버지와 할머니는 그런걸 잘 지키지 못했어두 일흔네살에 세상을 떠났수다. 한번 앉아서 자리에 든것두 못보구요. 암만 위생을 잘지킨다 해두 죽을 사람은 죽기마련이구 살 사람은 오래 살기 마련입데다. 하늘이 정해놓은건데 용수가 있는줄 아시우.》

이렇게 허를 차곤했었다. 그 말을 들은 영재는 히죽이 웃으며 그자리에서 그들의 손씻은 물을 현미경으로 보여주었다. 그들은 눈으로 볼수 없는것을 현미경을 통해 직접 제 눈으로 보고서야 입을 하 벌리며 그의 말에 머리숙이였다.

그다음부터 모두가 그의 말을 귀담아 들었고 진료소 일이라면 발벗고 도와나섰다.

1964년 겨울 어느날 영재는 31명으로 구성된 로인들을 데리고 평양견학을 떠났다.

그들가운데는 기차를 처음 타보는 늙은이들이 파반수였고 뺨스를 처음 보는 사람들이 태반이였다. 그러다보니 평양역에 내린 그들은 어디가 개찰구이며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 어리뻑뻑해서 어쩔줄을 몰랐다.

하나하나 설명해주며 친절히 역대합실에 데리고 나온 영재는 우선 그들이 쓰고있는 각양각색의 동모와 신발 대신 새까만 토끼털모자와 밤색 가죽구두를 자기 돈으로 사다주었다.

멋진 가죽구두에다 윤기도는 털모자까지 씌워놓으니 촌늙은이들이 체법 틀잡히였다. 하지만 그들앞에는 여러가지 일련의 문제들이 남아있었다. 그는 생각다 못해 전쟁을 이긴 전연지대농민들을 데리고 평양견학을 왔는데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난관에 봉착했다는것을 웃기판에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당중앙위원회에서는 해당 일군을 보내주어 그들을 려관에 들게 했고 고급뺨스를 타고 일군의 안내하에 만경대혁명사적지와 평양 시내 력사유적들을 비롯한 공장, 기업소들을 참관시키도록 하였으며 저녁에는 공연을 관람시키는 등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었다.

평양견학을 끝내고 돌아온 이들은 이듬해 농사에서 대풍을 마련하는데 모두가 한몫씩 맡아하였다.

임영재는 어버이수령님의 다함없는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평양견학을 마치고 돌아온 늙은이들에게 아직 단 한번도 사람의 발길이 미쳐본 일이 없다는 아아한 산정을 누비며 100년 묵은 산삼을 캐서 올리자고 호소했다.

그해 여름에 늙은이들을 데리고 비단필같은 구름으로 허리를 휘감고서있는 높은산에 올라가서 200년 묵은 산삼을 캐서 어버이수령님께 올리였다.

그후 늙은이들로 약초반을 무어 산에서 약초를 캐오기도 하고 5,000여평의 비경지에다 약초를 심어 의약품을 자체로 충당하였고 20여종의 보약을 만들어 허약자들과 산모들에게 공급하였다.

농민들속에서는 위생상식이 나날이 높아졌고 진료소의 치료예방사업은 점차 높은 수준에 오르게 되었다. 고질적인 토질병과 만성질병들이 극력 축감되었고 난치환자가 매우 적어졌으며 소아사망자가 거의나 없어졌다. 소아사망률이 제일 높던 홍역과 폐염, 소화불량증으로 사경에 처한 아이들이 더는 없게 되었다.

단풍리 진료소장 임영재가 다음 단계로 설정한것은 리내에 몇명 남지 않은 난치환자들을 완치시키는 문제였다.

진료소의 설비와 자기의 어린 림상기술로 난치 환자들을 완치시킨다는것은 매우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라는것을 영재는 결코 모른것이 아니었다.

《정성이 지극하면 돌우에서도 꽃을 피울수 있다.》고 하지 않는가.

(설비가 모자라면 우의 방조를 받고 기술이 모자라면 배워서라도 장기간 병에 시달리고있는 난치환자들에게 행복을 안겨주자!)

이렇게 마음을 굳힌 영재는 생후 다섯달만에 열병으로 병어리가 되어버린 19살에 나는 김선옥이라는 처녀애의 치료에 달라붙었다.

해방전에 화전농의 딸로 태어난 선옥의 병은 운명적인것이라고 그의 부모들마저 미뤄놓았었다.

그가 돌에 잡혔을 때였다.

황소 세마리값을 내면 고칠수 있다고 한 왜놈 의사의 말에 귀가 끌렸으나 당장 끼니를 예울 형편이 못되는 살림이다보니 어찌지 못하고 속수 무책으로 지내온 부모들이었다.

불행속에서 허구한 나날을 보내던 애 어린 소녀는 해방의 기쁨을 지니었으나 제 입으로 목청껏 만세를 부르지 못했다.

그의 부모들은 딸을 고쳐보자고 하는 영재에게 귀머거리에 병어리인 그를 아무리 좋은 세상이 왔다 해도 어떻게 고칠수 있겠는가 하며 머리를 저었다. 그런 부모를 대신해서 영재는 이악하게 그 치료에 달라붙었다.

하지만 장기간의 침구치료와 수천장의 뜸과 힘겨운 기능료법을 해야 한다는것을 안 선옥은 공포감에 질리었고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괜한 수고를 끼칠수 있다며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데 선옥이도 그렇구 아버지랑 어머니랑 다같이 달라붙어 치료해봅시다.》

영재는 선옥이가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것은 기질적인 질병이 아니라 기능적인 질환이라는것을 과학적으로 진단을 내린 다음 치료받으면 말도 할수 있고 들을수도 있다는 신심을 안겨주었다.

그것을 스스로 감수할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서 인식시키는 일을 앞세웠다. 그다음 고려의학적인 치료와 신의학적인 치료를 배합하면서 기능료법을 따라세웠다. 그리고 선옥이를 위해 전국의 소문난 크고 작은 병원들을 수없이 찾아다니며 협의를 했었다.

영재는 선옥에게 《아-》, 《오-》 발음을 하루에도 수십번 지어는 수백번까지 시키었다.

치료를 시작한지 여섯달만에 환자는 제 입으로 《아- 오-》를 발음할수 있게 되었고 1년만에는 쉬운 말을 할수 있게 되었다. 2년만에는 다른

사람들과 자유자재로 말을 주고받기 시작했으며 5년째 되는 해에는 시집을 갔고 지금은 어느 한 농장에서 작업반장을 하고있다.

그후 임영재동무는 중앙병원과의 연계하에 난치병중의 하나인 림파선질환치료에 달라붙었다. 이 병은 처녀들의 비중이 높았는데 리내 5명 환자들을 치료해서 모두 완치시켰다.

이 소문이 전국에 퍼지기 시작했다. 타고장에서 환자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그런데 진료소에는 입원실이 없었다. 단풍고등중학교 교원을 하고있는 김승화동무와 가정을 이룬 임영재동무는 신혼생활을 하고있었지만 학교에서 멀리 떨어져서 집이 있는 6명의 학생들을 자기 집에 류숙시키있었다. 안해가 맡고있는 학급 학생들이었다. 그러다보니 집은 비좁았지만 외지에서 찾아오는 환자들을 위해 방 한칸을 또 내었다. 결국 아래웃방을 다 내준셈이었다.

이렇게 하여 전국각지에서 찾아온 수백명의 환자들을 모두 완치시켜 보냈다.

이렇게 이들 부부는 단풍리에 피어난 한쌍의 붉은꽃으로 사람들의 가슴에 뜨겁게 젖어들었다.

《음식은 먹어봐야 그 진미를 알고 사람은 지내봐야 그 진가를 안다고 우리 진료소장선생처럼 단풍리에다 실하게 뿌리내린 사람이 어데 있소.》

리에서만이 아니라 군에서도 그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나 없었다.

이렇게 되어 단풍리 진료소는 《2중천리마진료소》칭호를 받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고 임영재동무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된 《전국보건일군대회》 주석단에 오르게 되었으며 토론연단에 나서서 아버지수령님의 치하를 받는 최상의 영예를 지니게 되었다.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

1968년 3월 금강군 인민병원 원장으로 임명된 임영재는 군인민병원을 전국의 시범단위로 꾸려놓고 치료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두어 1971년 6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게 되었다.

그후 그는 1992년 12월 강원도인민병원 원장으로 소환되어왔으나 언제나 자기 어깨에 메워진 중책을 놓고 근심하며 앉으나서나 지어 잠자리에 들어서도 인민들이 앓지 않고 행복하게 생활할수 있도록 하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모태기였다.

그러자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친히 강원도인민병원을 찾으시여 주신 1973년 8월 24일 말씀을 관철해야 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병원을 찾으

시여 세세히 돌아보시면서 어버이수령님의 의도로 병원을 전문화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그이께서는 그후 전국보건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서한에서도 의료봉사의 전문화수준을 높이려면 전문병원과 병원들에 전문과를 많이 내와야 한다고 지적하시었다.

그이의 가르침대로 병원을 전문화하려면 과를 더 내와야만 했다.

임영재는 도인민병원 원장으로 부임된 첫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말씀을 깊이 연구학습하면서 이렇게 결의다지었다.

(임원실을 한층 더 증축하고 과를 더 내오자.)

이렇게 마음먹은 그는 초급당위원회의 지도방조하에 병원적인 협의회를 가지었고 이튿날부터 병원청사증축건설에 달라붙었다.

원장자신이 직접 세멘트와 강재를 비롯한 중요자재들을 받아오는데 앞장서자 의사, 간호원을 비롯한 종업원들이 하나같이 발벗고 떨쳐나섰다.

이렇게 하여 1년만에 1,800평방의 건물을 새로 증축하였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실무지도하신 당시 26개 전문과밖에 없던것을 오늘은 46개의 전문과로 확장시키였다. 그이의 말씀을 관철함으로써 환자치료에서는 더 큰 성과들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

건설을 그 누가 해주는것만으로 생각하고있다가 새 원장의 발기로 번듯이 청사를 증축해낸 의사들은 한결같이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새 원장이 아니면 오늘까지도 우리 병원은 장군님의 말씀을 관철하지 못한 락후한 병원으로 그냥 남아있게 됐을거요. 보시오. 시작할 때는 이것저것 채는 문제들이 많았지만 일단 해놓으니 얼마나 훌륭하오. 문제는 책임일군에게 달린거요!》

임영재원장은 청사를 증축하는데만 그치지 않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지극한 사랑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있는 보건일군들이 지녀야 할 정신도덕적풍모라 하시면서 의료일군들속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그들이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환자에 대한 지극한 정성을 가지고 치료예방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치도록 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임영재는 사업을 시작한 첫날부터 모든 의료일군들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을 심장에 새기고 사업을 해나가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고 그 총화사업을 해나갔다. 그 첫 사업의 하나로 그는 그 누구에 관계없이 출장을 떠날 때면 꼭 원장방에 들렀다 가는것을 제도화했다.

어느날 약제사인 진명심이 출장을 떠나게 되어 원장방에 찾아갔을 때였다.

원장은 그에게 흰종이 한장을 서랍에서 꺼내주며 이렇게 말했다.

《늬라없이 우리는 자기가 하고있는 일에 대해 부단히 사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출장길에 사색하기가 제일 좋더군요. 이 종이장에 출장갔다 돌아와서 무엇을 새롭게 창조해놓겠는가 하는것을 맨 우에다 쓰시오. 그리고 출장길에 혹시 난치병때문에 앓아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주소와 이름을 알아가지고 오시오. 해당치료기관과의 연계하에 우리가 맡아서 완치시킬수 있는 환자이면 데려다 치료해줍시다. 그리고 민간료법을 한가지이상 꼭 알아가지고 오며 무엇이든 새롭다고 생각되는것들은 이 종이에다 적어넣으시오.》

명심은 수첩에다 적어오겠다고 말했다.

《꼭 이 종이에다 쓰시오. 철해두자고 그럼니다.》

매 개인들의 실천여부를 자필로 쓴 종이장을 놓고 총화짓기 위해서였다.

명심은 그것부터가 새로운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뻘뻘해지였다. 매우 구체적이고 세심한 사업작품에 놀랜것이였다.

명심은 출장길에 무르익힌 《쏘코셀린추출법》을 새롭게 연구해냈다. 하여 끝내 성공했던것이 다.

그로 하여 국가에 막대한 리익을 주었을뿐 아니라 쏘코셀린의 긴장성을 풀으로써 환자치료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또한 수직을 선 직일관들이(부원장, 과장급) 아침 첫 시간에 구급과와 접수과에 나가 중환자들이 대기하고있지 않는가를 알아보고 즉시 대책을 세우도록 하였다.

영재가 도인민병원 원장으로 일하기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 전신전화소 교환수들속에서는 《잠하지 않는 원장》이라는 말들이 오갔다.

그는 집에 들어와 있을 때면 어김없이 매일밤 10시와 1시, 새벽 5시에 병원임원실 직일관한테 전화를 한다. 과별 수술환자와 중환자상태를 보고받고 대책을 토론해주며 밤사이 구급환자가 들어온것이 없는가를 확인하곤 했던것이다.

밤중에도 원장이 이토록 관심하자 수직의사들의 역할이 더욱 높아지게 되였으며 아무리 중한 환자가 제기되였어도 마음이 든든해졌다.

영재는 군에 내려가거나 평양에 올라갔을 때에도 밤 이 시간에 어김없이 전화를 걸어왔다.

이것은 그의 생활에서 하나의 습관으로 굳어지게 되였다.

보 략

보건일군의 행복과 보람은 어디에 있는가? 임영재원장의 삶의 좌우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데 있다는 것이다.

의사는 남들이 오락을 즐길 때에도 수술장에 있어야 하며 만사람들이 잠자는 밤에도 환자의 머리맡에서 밤을 지새워야 한다.

청진기나 혹은 메스를 잡은 의사나 실험대앞에 서있는 의사나 제조탁앞에 앉아있는 약제사이거나 막론하고 보건일군이 순간이라도 탕개가 풀리면 환자의 생명이 침해당할수 있다.

영재원장은 사고 없는 병원으로 만들기 위하여 기술부원장을 비롯한 부원장들로 직일관을 세우고 직일제도를 강화했으며 협의제를 실속있게 부단히 하도록 하는 한편 의사, 약제사들의 기술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데 모를 박았다.

아무리 열성이 많고 인간애가 높다 해도 보건일군이 기술이 높지 못하면 치료를 실속있게 할수 없는것이다.

기술이 높지 못한 보건일군은 도인민병원에 있을 자리가 없다는 강한 요구를 제기하고 자체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자체학습과 기술학습을 힘껏 내밀었다. 매 개인이 2000년대까지 기술기능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전망목표를 세운데 기초하여 1년안으로 1급이상 기술기능급수를 가지도록 짜고들었다.

그리하여 오늘까지 단 한건의 의료사고도 없으며 병원내 의사, 약제사, 간호원들의 기술수준은 비상이 높아졌다.

《기술수준이 제일 높은 병원이 되자!》

《자력갱생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이런 목표를 내걸고 씩씩이 뛰어다니고있는 임영재원장에게는 눈에 띄이게 성과들이 이룩될수록 보건일군이 된 무한한 긍지로 하여 가슴이 한없이 높뛰었다.

우리 군대, 우리 인민

1993년 5월 6일 밤 3시경이었다.

하늘이 새까매지더니 번개가 치고 우뢰가 울며 소낙비가 쏟아져내리었다.

방금 열차에서 내린 임영재원장은 집이 역앞에 있었지만 집에 먼저 들리지 않고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낮이나 밤이나 출장길에서 돌아올 때면 늘 병원부터 먼저 돌리곤하는 그였다.

그새 혹시 중환자들이 제기된것은 없는가를 확인하고서야 마음을 놓곤했던것이다.

임영재원장은 쏟아져내리는 소낙비를 그을 생각도 하지 않고 고스란히 비를 맞으며 병원으로

향했다.

자기 방에 들러 옷을 갈아입자마자 임영재원장은 사경에 처한 환자가 입원해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히 그 호실로 향했다.

전쟁로병인 상업간부학교 피복강좌장 박남철환자였다.

담낭파열로 심한 복수가 온 상태에서 최후수단으로 수술을 했지만 환자를 구원할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거의나 없었다. 의식을 잃은데다 혈압이 60이하로 떨어졌고 고무풍선같이 전신부종이 극도에 달했다. 집도한 외과과장과 담당의사 간호원모두가 맥을 놓고있었다.

오늘까지 이런 중환자를 맞다든 레가 없는 그들이었다.

원장은 과장급이상 일군들의 비상회의를 조직했다.

새날이 푸름푸름 밝아올무렵까지 원장실에서는 박남철환자를 두고 오랜 시간에 걸쳐 협의회가 진행되었다.

《환자의 생명을 앞에 놓고 주저하거나 맥을 놓는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참된 보건일군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우리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끝까지 우리 집단이 책임지고 기어이 살려내야 합니다. 동무들, 힘과 용기를 냅시다!》

호소하듯 말하는 원장의 목소리는 저으기 갈리었다.

협의회에서는 박남철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한 치료대를 못고 그 시각부터 맹렬한 전투를 벌리었다.

긴장한 전투끝에 보름째 되는날 환자가 구사일생으로 의식을 회복하여 한숨 돌리는 해질녘이었다.

사경에 처한 한 해군병사가 구급차에 실려왔다.

황보영철이라는 19살난 애 어린 해병이었다.

해상경비군무를 수행하고있던 배가 갑자기 인태풍으로 조난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광장 앞 기슭으로 배를 끌고 왔으나 어디다도 붙일수가 없었다.

기슭은 화강석으로 이루어진 유보도여서 배가 와닿는 날엔 선체가 심히 파괴될수가 있었다. 그런데 배는 점점 광장기슭으로 밀려들었다.

아차 하면 배가 화강석에 부딪칠수 있었다.

배를 파손시키느냐? 아니면 자기 한몸 희생되더라도 배를 구원하느냐?

(나는 김정일장군님의 전사이다!)

이런 비장한 각오를 다진 황보영철은 위기일발의 순간에 바다물속에 뛰어들어 화강석에 부딪히려는 배를 몸으로 막았던것이다.

온몸에 심한 부상을 입은 그는 의식이 없었다.

임영재원장은 초급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병원적인 비상소집을 열고 사경에 처한 인민군전사에 대한 치료대책을 협의하였다.

사지정형외과과장 한형수를 책임자로 하는 강력한 치료대를 못하고 곧 환자치료에 달라붙었다.

그 시각부터 임영재는 원장실을 립시 입원실로 옮기었고 전사의 머리맡에서 떠나지 않았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의 전사가 아니라면 어떻게 저런 영웅적행동을 할수 있을것인가? 자기 한몸보다도 배를 더 귀중히 여기는 저 마음, 저 마음이 더욱 귀중하다. 내 육체가 대신 할수 있다면... 아니 어떻게 해서라도 전사를 기어이 살려내야 한다!)

전사의 얼굴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던 그는 뚜렷하게 질려있는 전사의 입술에다 자기 입을 가져다 대고 직접 인공호흡을 시키었다. 그러기를 500여회, 원장자신이 의식이 혼미해졌지만 조금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억척같이 이겨나갔다.

이따금 숨이 몇군하던 전사가 드디어 길게 숨을 내불었다.

(전사가 숨을 쉬기 시작했소.)

마음속으로 이렇게 뇌이는 원장의 눈굽에 물기가 어리었다.

전사는 6,450그램의 피를 수혈받았고 6차에 걸쳐 수천점의 피부를 이식받았다.

120시간만에 의식을 회복한 전사의 침대맡에는 화불처럼 붉게 타오르는 화분이 놓여있었다.

임영재원장이 자기 방에 놓여있던 **김정일**화를 전사의 머리맡에 가져다놓았던것이다.

황보영철은 붉게 타는 **김정일**화의 그윽한 향기에서 최고사령관동지의 따사로운 품을 느끼었고 그이의 은정어린 사랑을 받아안았다.

전사가 의식을 회복한지 며칠 안되는 어느날 그의 호실에 박남철환자가 간호원의 부축을 받으며 찾아왔다. 매일 두세번씩 자기 방에 찾아오던 원장의 발길이 뜸해진 사연을 알게 되었던것이다.

전사의 침대머리에 앉은 원장의 손을 잡고 박남철환자는 말하였다.

《원장선생님, 저는 전쟁에 참가한 로병입니다. 제가 병원의료집단의 지성어린 치료를 받고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저를 위해 조직된 치료대를 이 전사를 소생시키는데 돌려주십시오. 저야 이제 살만큼 다 산 사람인데 뭐랍니까. 어떻게 하나 이 해병을 기어이 소생시켜주십시오. 그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전사가 아닙니까.》

영재는 그의 두손을 꼭 포개여잡으며 《감사합니다.》하고 거듭 사의를 표했다. 의사들도 간호원들도 모두가 눈굽을 적시었다.

박남철환자는 그후에도 자신의 몸보신에 쓰라고 가져온 진귀한 약재들을 황보영철에게 가져왔다. 자신보다 먼저 최고사령관 **김정일** 장군님의 전사를 생각하는 뜨거운 진정이었다.

어찌 그뿐이라. 병원내 의사, 간호원들뿐아니라 어떻게 알았는지 시내의 수많은 사람들이 전사를 위해 떨쳐나섰다. 누구는 집에서 기르던 검정닭, 검정토끼를 곱해서 가져왔고 또 누구는 수십년 묵었다는 산꿀까지 안고왔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임영재원장은 인민은 군대를 먼저 생각하고 군대는 인민을 위하는 이런 좋은 사람들속에 있다는 긍지와 행복을 가슴뿌듯이 느끼었다.

병원에서는 인민들의 이런 사랑과 발 맞추어 치료전투를 따라세우고 밤낮이 따로 없이 치료사업을 해나갔다. 그 기간에 진행된 병원적인 모임과 의사협의회만도 그 수는 헤아릴수 없이 많았다.

그해 10월하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께서는 이곳 병원의료일군들에게 감사문을 보내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아버지사랑속에서 임영재원장을 비롯한 의료일군들과 인민들의 높은 인간애와 지극한 사랑에 의해 황보영철 전사는 완전히 회복되어 9개월만에 다시 대오에 서게 되었고 박남철로병도 완쾌되어 보람찬 삶을 누리게 되었다.

임영재원장은 그후 병원에 《군인호실》, 《군관가족호실》을 내오도록 하고 장군님의 전사들과 그 가족들을 극진히 보살피도록 함으로써 1994년 2월에 또다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장군님의 감사를 받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거듭되는 사랑과 영광을 받아안을 때마다 임영재원장은 더더욱 굳게 결의다졌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뜨거운 사랑으로 보건전사의 본분을 다함으로써 우리 나라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더 활짝 꽃피우겠습니다.)

임영재원장이 거의 40여년에 걸치는 의사생활에서 얻은 결론은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면 돌우에도 꽃을 피울수 있다는것이다.

그는 오늘도 한생의 좌우명이라고도 할수 있는 《사랑 더하기 정성》을 안고 사색하고 또 사색하며 보건일군의 본분을 다해나가고있다.

봄소나기

리창식

벼단같은 구름더미 바스거나
화락하니 들보는 이해의 첫비
들판가득
웃음터친 새파란 젊음이
남먼저 얼싸안은
아하 봄소나기

더운 이마를 서늘하니 적시며
머리우에 들우에 나뭇기는 비살
후두둑
동쪽을 쫓아대는 익살에
논도랑이 야단치는 저 논머리

줄기줄기 비발에도 젊음이 뻗친게다
산도 들도
호물썩 봄비에 젖었나니
어린 모 파랗게 웃는 그제 좋아
청춘아!
대지의 비는 이렇게 좋구나

기빠라
반가워라
물목 툭-터쳐
팔팔 쏟아지는 물을 보는 이 환희
배미마다 풍년이 되고
골짜마다 향기가 되려
쏟아지고 쏟아지는 기쁨의 비

젊음의 비

소원이여라
이 젊음 너와 같이 휘뿌려
사랑하는 대지에 푸르름이 되기를
이 젊음 너와 같이 구울려
풍년가을 살찌우는 노래가 되기를

좌-좌-
소리쳐 날리는 장쾌함
이내 젊음마냥 세차서만
한번 더
너를 얼싸안은 청춘이라

그렇게 쏟아지다 사라져도
내 고향엔 기쁨이 되어 남아있을 소나기
내 젊음 강그리 대지우에 바친대도
너같이 살아살아 한이 없고저
열일곱살 애젊음이
부러워하는 봄비여!

아
내릴적엔 드세차 사내갈더니
그친뒤엔 얼마나 큰 아름다움이 남는거나
새파란 하늘
어머니 대지우에
휘유힌유힌 둥실한 저 무지개를 보아라-

통 일

김철후

통일!
통일을 위해
아낌없이 한생을 바빠 살던
아버지도 이제는 곁을 떠나

쓸쓸한 해풍에 문풍지우는
할머니 제삿다는 남해가의 그 돌집은
아버지의 옛 추억에서
이 마음속에 옮겨진 어렴풋한 표상입니다

쉬며 걸으며
하루길도 안될 길이
이처럼 기나긴 념원으로
오 통일
그것이 세대를 이어야 한단 말인가

아닙니다 내 운명엔
꿈길에도 없습니다
이제 더
고통안고 보낼 세월은
녹슨 철조망이 세월의 비바람에
피같은 눈물을 흘린다고 통일이 오라

하루가 새로운 내 심장엔
참말로 분열을 반세기로 넘기고
펼 박동은 없습니다
아, 그런 피는 피가 아닐것입니다
아버이수령님 유혼으로
몇배로 절박해진 통일이어서
나의 한심장 통일위업에 바치렵니다

속 도

리경명

1

《기사장동지! 하나 소개해주시겠습니까?》

긴급정황을 푸노라 책상위에 놓인 종이장들을 작전문건마냥 들여다보며 한창 머리를 쓰고있는데 왕청같은 소리가 들린다.

머리를 들고보니 철진이가 뒤더수기를 굵적거리며 꾸적꾸적 서있다.

탄광마을에서는 제대군인들이 진출해오면 합숙으로 들여보내지 않고 저저마다 친아들이나 맞듯 손잡아 제 집으로들 데려가는데 철진이 역시 그렇게 되어 작년부터 우리 집에서 함께 살며 한집 안식구가 된 굴진공청년이다.

《뭐, 소꿌 해?...》

골똘하던 생각에서 헤어나 철진이 방금 한 말을 되씹어보니 날보고 색시감을 하나 끌라내라는 소리다.

어지간히 굴진을 땀다 밀다보니 동발이 미처와닿지 못한데다가 5중단 마구리에선 물까지 터져 앉아있는 자리에 바늘이라도 돋힌듯 편치를 앓던차에 축 늘어진 제기를 받고보니 어이가 없다. 그러나 그런 내색을 보일수는 없다.

아무렴... 십수년동안 기사장일을 해오면서 그 어떤 긴급정황이 생겨도 조리있게 앞뒤를 둘러가며 실수없이 일처리를 잘하여 우리 신명탄광에서는 기사장이란 말보다 《작전잠모》로 더 잘 통하는 내가 아닌가!

6장에서 사고가 생겨 온 탄광이 그 복구대책을 세우려 벌컥 뒤집혔을 때 내 한밤을 밝히며 빈틈없이 짜준 작전으로 일을 내민 결과 나조차 믿기 어려울 정도로 사고를 빨리 수습해놓고 받은 싫지 않은 《칭호》!

그런데 이만한 일에 다물려 여유있는 아량을 못보일까부냐! 하물며 제대되어 탄광으로 진출해온지 얼마 안되는 신입굴진공앞에서...

《음, 내 그래보지!...》

나는 턱을 두어번 주억거리보이며 히죽이 웃었다.

《그럼 기사장동지만 믿겠습니다.》

철진이 반죽쫄게 벌죽 웃으며 물러가자 나는 의자등받이에 두팔을 뒤로 감아붙이며 가슴을 껴다.

(음. 팬찮은 녀석이야... 어떤 처녀를 붙여준다?)

철진이 방금 사라진 문지방우에 눈길을 주노라니 거기에 하나의 얼굴이 떠오른다.

...한해전 어느 화창한 봄날인 휴식일이였다.

나는 신명탄광 탄부들이 흔히 《금강산》 경치라고 자랑삼아 말하는 동갱골안을 산책하다가 한 처녀를 알게 되었다.

기암절벽우에 탐스럽게 피어난 봄꽃들, 돌틈을 찢어내리는 옥같은 물, 귀뿌리를 따갑게 울리는 못새들의 우짚음...

매혹적인 자연에 심취되어 나는 옷깃을 풀어헤친채 설계도면우의 얼기설기한 선들처럼 엉켜들었던 피곤을 풀고있었다.

바로 그때 눈앞으로 언뜻 큼직한 나무통 하나가 스쳐지났다.

《영?》

《호... 놀라셨어요?》

돌아보니 스물너덧에 나보이는 고운 처녀가 송골송골 내돋힌 땀을 훔치며 발췌 웃는다.

《동발감으로 꽤 쓸만한게 덩굴고있기에...》

혼자말처럼 하는 소리다.

《이리 주오. 내 메고 내려가지!》

나는 처녀가 기특하여 어깨를 내댔다.

그러자 처녀는 군말없이 통나무를 내 어깨에 메워놓고는 골안을 다시 되짚어 오른다.

《?...》

잠시후 처녀는 또 한대의 나무통을 메고 내려왔다.

《그렇지 않아두 이것까지 못가져가는것이 아까웠는데...》

코마루가 저러났다. 새처럼 좁은 가슴에 산처럼 큰 욕심을 안고사는 처녀...

순간 나는 처녀가 더욱 돋보였다.

동실한 얼굴, 윤기도는 머리칼, 정을 끄는 두눈, 오동통 도드라진 앵두빛 입술, 손가락으로 건드려주고싶도록 귀엽성스러운 발깃한 뺨...

《어마나! 왜 그리 자주 보세요...》

처녀는 귀엽게 생긴 덩이를 드러내보이며 얼굴을 붉혔다...

(맞지! 그 처녀라면... 어디 한번 작전을 해본다?)

긴급정황을 처리하노라 작전을 벌리는 판에 또 하나의 작전감이 끼여든 셈이였다.

그런데 처녀의 이름이 뭐더라? 또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

동발 한두대에 그리도 마음을 쓰던걸 보면 어

느깡 운탄공인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그제서야 나는 처녀의 이름과 일하는 장소를 물어보지 못한것이 후회되었다.

2

《기사장동지! 제가 하나 고르랍니까?》

일에 다몰려 어름어름하는 사이에 어지간히 달아오른 철진이가 두번째 제기를 해왔다.

나는 한생을 꽤 멀리 살아온 선배연해서 한마디 했다.

《이봐! 덤비지 말라구... 매사엔 뛰어들기에 앞서 작전부터 잘해야 하는거여!...》

《원참, 기사장동지두... 우선 뛰어들고 보면 무슨 순돌 생기겠지요 뭐...》

《뭐라구?》

나는 눈을 치떴다.

(허 처녀석 봐라... <작전참모>를 어떻게 보고하는 소리야... 역시 젊은족들이란 술덤방, 물덤방...)

그날 저녁 나는 배탄기열을 지나다가 곱게 차려입은 한 처녀가 허리를 굽히고 무엇인가 줏고 있는것을 보고 무릎 멈춰섰다.

나뉘구는 한개의 커다란 탄덩이를 말없이 탄무지에 가져다놓고 가는 처녀... 그는 틀림없이 내가 철진의 짝으로 점찍어둔 처녀다.

《여 운탄공처녀...!》

따라 걸으며 불렀다.

《...》

또 놓쳐버릴가봐 주먹을 쥐고 따라다.

《여, 운탄공동무!》

《어마나, 전... 운탄공이 아닌데...》

《운탄공이 아니라니? 그럼 그때 그 동발은?》

《호...》

그때에야 처녀는 나를 알아본듯 눈을 반짝 빛낸다. 그렇다면 1년전에 동갱굴안에서 메여내리던 그 동발도 이 탄덩이처럼 자기 갱일도 아닌것을 마음속에서 우리나라와 한 일이었던 말인가?!

《그럼 어디서 무슨 일을 하지?》

《호? 또 그때처럼 물으시네... 무슨 큰일을 했대구요!》

처녀는 살짝 웃어보이며 소리없이 사라져버렸다. 이번 역시 나는 일하는곳도 이름 석자도 못알아낸채 품에 들었던 새를 놓쳐버린듯 처녀를 놓쳐버리고말았다.

얼굴 곱고, 맘씨 곱고...

철진의 짝으로는 안섬맞춤인데 그 처녀를 언제면 다시 만날수 있을까?

3

《기사장동지! 시간 좀 내주십시오... 오늘은 저와 함께...》

바둔 처녀가 있으니 날보고 보러 가자는 소리다.

내가 처녀를 점찍어놓고 여직껏 이름 주소도 못알아낸채 어물어물하는 사이에 당사자인 철진이가 제편에서 먼저 하나 고른 모양이다.

무엇때문인지 딱히는 짝어 말할수 없으나 요즘에 와서 굴진속도가 점점 빨라지는데 따라 나의 작전이 따라서지 못하는듯한 이름할수 없는 위구가 느껴지고있던 때라 책상앞에 놓인 도면앞에서 자리를 뜨지 못하고 시간에 어지간히 다물리고있었으나 세번씩 그것도 진공적으로 해오는 제기를 마다할수가 없어 따라나섰다.

《그래 꼭던가?》

《꼭구 말구요. 막 미칠지경입니다.》

《뭐?... 벌써... 허...》

걸으면서 나는 입을 벌리고 웃었다.

철진도 얼굴이 벌거우리해 따라웃는다.

《이것 봐! 얼굴만 고와선 안돼... 일생 중대산데 심사숙고해야지 일시적인 흥분에 변쩍거리는 결모양에 유혹이 되여...》

《념려마십시오! 전 열과 빛을 품고있으면서도 검은색으로만 나타나 보이는 석탄처럼 얼굴보다도 성실한 그의 속마음을 보고...》

(너석! 어느 영화에서 나오는 멋들어진 대사를 잘도 따라외웠군!)

그런데 그만 우리는 처녀를 볼수 없게 되었다.

예상치 않았던 긴급정황이 생겼기때문이었다.

우리가 막 운반갱 분기점으로 들어서는데 경사진 전차선을 따라 올라가던 공차(탄을 전복장에 부리운 빈탄차를 그렇게 부른다)들이 바람이 나서 이곳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내리달고있다는 야무진 지령원의 목소리가 전주대에 달아놓은 공중전화기의 확성기에서 다급히 울렸던것이다.

《뭐?...》

나의 입에서는 겁질린 웨침이 터져나왔다.

이처럼 경사가 급한 전차선에서 공차들이 바람이 나면 그 속도는 무서운것이다.

탄부들이 흔히 《비행기가 떴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엔 거의 수습대책이 없고 그 결과는 숙명적인것이다.

총알같이 내리달는 공차들의 속도, 거기에 초를 다투며 덧가해지는 가속도...

기필코 탈선이다. 그것도 치명적인 탈선...

그 어떤 기적이 있어 탈선이 안되고 공차들이 예까지 페루에 발을 붙인채 내려온다고 하자!

그런들 그게 무슨 대수랴!

조금만 더 내려가면 급한 굵인돌이요. 거기선 원심력에 의해 공차들이 허공으로 공기돌들처럼 뿌러질것이다. 그러면...

그렇게도 소리있게 매사에 침착하게 정황처리를 잘하던 이 《작전참모》의 머리는 일순 마비가 되어버린듯했다.

시간이 정지된듯 귀전에서 《윙-》 하는 알지 못할 소리가 울렸다. 두발조차 땅우에 풀로 붙여 놓은듯 까딱 움직일수조차 없다.

바로 그때 아래쪽으로부터 전차 한대가 불쑥 나타나더니 무서운 속도로 발을 구르며 달려올라 간다.

《정신이 있어? 죽자구 그래...》

누군가가 소리쳤다.

《작전참모》도 무엇인가 해야 할것이 아닌가!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책상우에 종이장을 펼쳐놓고 들여다보며 앞뒤를 재어보고 따져보고 하는 《작전참모》의 정황처리법은 여기서 아무런 가치도 없었던것이다.

곧 무서운 속도로 버락치듯 내리닫는 공차들은 맞받아 올라가는 전차와 충돌을 일으켜 형체없이 깨져버리고말것이다.

무서운 환영이 번개치듯 눈앞으로 다가든다.

이때 무엇인가 나의 옆에서 피끗하는듯했다.

돌아보니 철진이가 어느 사이엔가 동발 한개를 가슴앞에 모자로 그리안고 방금 전차가 치달아 오른 전차선을 따라 비장한 모습으로 다가서고있다.

나는 입을 딱 벌린채 팔을 허우적거렸다.

무슨 소리가 해야 했으나 말조차 제대로 되어주질 않는다.

《아... 아니 저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갑자기 우에서 사태가 무너져내리는듯한 소리가 났다.

뒤이어 철길이 깎이며 뒤틀리며 녹아떨어지는듯한 아찔러운 소리...

공차들이 서로 마구잡이로 이마를 들이받는듯한 굉음.

나는 눈을 감아버렸다.

이제 곧 무엇인가 불가항력적인 힘이 나를 덮쳐버릴것이다.

《와지곤-!》

《딱-!》

또다시 련속 들이받는 소리...

전차는?... 철진이는?...

겹쳐드는 생각에 굳어진듯 몸조차 제대로 놀려지질 않는다.

《기사장동지! 이걸 좀...》

무엇인가 날아와 내 이마를 탁-하고 후려친다. 웅성대는 소리, 울먹이는 소리...

굵인가? 슬며시 눈을 떴다.

희뿌연 안개속에서 사람들이 영켜돌아간다. 도리머리를 세차게 흔들고 나서 정신을 가다듬었다.

발부리에 떨어져있는 철진의 작업복 상의, 그 옆에 나딩구는 수첩하나.

방금 내 이마를 때리던것이 저 수첩이었던가?

철진이가 어깨에 걸머메고있던 상의를 내게로 집어던질 때 이 수첩이 주머니에서 빠져나오며 내 이마를 때렸던 모양이었다.

나는 수첩을 손에 들고 머리를 들었다.

저쯤에 떨어선 전차, 그렇다면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떨어선 전차에 아무런 일도 없었던듯 길게 련결된채 늘어선 공차들의 편성...

그앞에서 수많은 탄부들이 영켜돌아가며 떠들 어대고있다.

《영웅이다!》

《원참, 그런 용단을 내리다니...》

《당돌하기란... 고추가 맵다더니!...》

이게 무슨 소리들이냐? 다가갔다.

탄부들이 두겹 세겹 둘러선 한가운데 자그마한 처녀 하나가 서있다.

물러선 탄부들은 축축히 물기가 내비치는 눈들을 숨벅거리고있는데 처녀는 반대로 발신발신 웃고있다.

《...공차들이 바람났단 소리를 듣구 전차를 출발시킬 때까지만해두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저 몸으로라도 막아야지 안된다는 그 한생각밖에는...》

《것 보라구, 무슨 일이나 우선 뛰어들구봐야해... 불뽕는 화구를 몸으로 막을 때 리수복영웅도 아마 그랬을거야!》

어느 사이에 끼여들었는지 옷동을 벗어붙인 철진이가 아직도 동발을 비껴든채 한마디 한다.

《어마나! 이만한 일을 무슨 그런 영웅에까지 갖다 비기면서...》

운전공처녀가 활기죽 눈을 흘킨다.

《정말... 그건 너무 와디디 하다야!...》

누군가가 철진의 잔등을 철썩-소리가 나게 후려갈긴다.

《와!...》

웃음이 나졌다.

(아니 저 처녀가?...)

나는 그때에야 처녀를 알아보았다. 레의 그 처녀였다. 내가 그리도 찾던 그 처녀...

그러니까 저 처녀가 전차운전공이었구나...

정말 괜찮은 처녀다!

동갱끝안에서 휴식일에 한두대의 동발이 그리도 마음에 걸려 땀흘려 메어내리던 모습.

곱게 차려입고 길을 걷다가도 길가에 떨어진

탄딩이 하나에 그리도 마음을 쓰던 그 깨끗한 랑심!

말할수 없이 좋은 처녀를 내가 그만 작전작전 하면서 속도를 늦추다보니 철진에게 성사를 못시켜준것이 후회되었다.

철진이는 이미 봐둔 처녀가 있다니... 어떻게 저 처녀를 소개하라...

어디선가 곱게 차려입고 우리를 기다리고있을 처녀를 생각하니 여간 아쉬하지 않았다.

나의 생각을 지워버리며 또다시 처녀의 맑고 청정한 목소리가 노래소리처럼 울렸다.

《정말 바람난 공차들이 저 우에서 사태처럼 내리덮칠 땐 눈앞이 다 까매졌어요. <도라지꽃>에서 쏘아지던 사태생각이 다 나질 않겠어요. 그러나 나는 입술을 깨물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할가?문득 고등중학교에서 물리시간에 배운 관성법칙이 생각나더군요! 제격 전차를 세웠다가 이번엔 반대로 내리달렸지요. 그러자 뒤미처 <짱당>... 생각했던대로 바람난 공차들이 내 전차에 무난히 편결된거예요. 됐구나 하고 생각하며 제동에 점점 더 힘을 주었더니 글썄... 저렇게...》

《허허... 그럴듯해...》

《관성법칙이란 말이지...!》

《것참 팽팽 돈다니께...》

탄부들이 떠들썩 고아대는데 철진이가 또다시 끼여든다.

《것보라구! 우선 뛰어들면 무슨 수가 생기거든... 제동을 제때에 했기망정이지 하마트면 내 오늘 이 동발과 함께 콩가루가 될번했다이...》

《하...》

《하...》

또 웃음이 터졌다.

앗차했더라면 돌이킬수 없는 불상사가 방금전에 있을번했다는 그 모든것을 잊은 사람들처럼 곁곁대며 허리를 젖히고 웃어넘긴다.

(저 사람들 한복판에 지금쯤 저 운전공처녀가 아니라 내가 서있다면?...)

느닷없이 이런 생각이 든다.

빠른 전차에 물린 빠른 공차들...

방금 노래소리처럼 울리던 운전공처녀의 목소리가 귀전을 따갑게 때린다.

날마다 빨라지기만 하는 탄부들의 굴진속도를 공차들의 속도라할 때 작전참모인 나 역시 저 처녀가 본 전차의 속도로 달렸어야 무리가 안생겼을것이다. 속도엔 속도로!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명백한 정비레 관계가 아닌가!

굴진속도가 점차 빨라짐에 따라 무엇인가 이를 할수 없는 불안이 항시 머리속에서 떠나지 않던것은 바로 이때문이었구나!

《천리마속도》, 《비날론속도》, 《새로운 90년

대속도》

이 땅에 무수히 창조된 그 많은 경이적인 속도에 내자신의 속도를 건주어본다.

신심과 락관에 넘쳐 그 어떤 폭풍도 뚫고 나가려는 저 탄부들의 기세에 호흡을 맞추지 못하고 번두리로 밀려나 항상 기사장실의 책상앞에서만 맴돌던 《작전참모》...

그러다보니 자그마한 저 처녀는 고등중학교때 배운 17세기 뉴톤에 의해 발견된 관성법칙하나를 가지고도 막아낸 위험을 나는 높은 형태의 고등수학을 배우고도 찢찢매며 어쩔바를 몰랐던것이다.

마음 다잡고 신심에 넘쳐 뛰어들면 수류탄 한 개로도 갈수 있는 적땅크를 훌륭한 신형포를 가지고있으면서도 뒤걸음친듯한 마음이 되어 나의 등뒤로는 별레같은 땀방울이 서물거리며 기여내리고있었다.

물론 출발점에서는 무리가 없이 《작전참모》의 속도가 은을 냈을것이다. 그러나 시대는 가속도로 속도를 불굴 때 나는 무엇을 했던가...

어느사이엔가 《작전참모》라는 듣기 좋은 《칭호》의 그늘밑에서 저미줄같은 선들에만 포로가 되어있던 자신을 발견하고보니 이제라도 헤어나보자고 몸부림치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 지식인들을 크게 믿어주시며 마치와 낫의 한복판에 붓대를 수직으로 세워주셨는데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번두리로 밀려나있었던것이다.

이 한몸 한가지 동발이 되어 조국을 떠이고 쏘여야 했을 이 책임적인 시각에 나의 머리는 어느덧 줄이 들었구나!

신심과 락관에 넘쳐 더 빠른 속도로!

마음먹고 내밀면 정날뛰는 청암도 물먹은 담벽 같건만 미타해서 주춤거리면 썩은 바위앞에서도 겁을 먹게 된다는 철리가 가슴을 두드린다...

나는 슬그머니 내 이마를 때리던 수첩을 펼쳐들었다.

거기엔 씌여있었다.

... 짐 무거울수록
어깨들이대는 자세
한결같아야 하건만...

누구는 피를 쓰며
키를 낮추고
누구는 굽은길 피하여
에돌아 걸더라...

이마가 얼얼하였다...

《허... 내 오늘 큰 교훈 얻었네!...》

돌아오는 길에 나는 철진에게 상의와 수첩을

넘겨주며 이렇게 혼자생각의 뒤를 달아 한마디 했다.

《아까운 처녀두 놓쳐버리구… 본다던 처녀두 못보긴 했지만서두 교훈만은 아주 커!》

《처녀를 못보다니요? 방금전에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동무두… 그 동무의 수첩두…》

처녀의 수첩을 철진이가 간수했던 모양이었다.

《아니, 그럼 그 운전공처녀?》

《글쎄 맞다니까요!》

나는 눈이 번쩍 띄어졌다.

《됐어! 됐단 말이야… 만점짜리지! 1프로도 반대없어…》

나는 흐뭇한 마음이 되어 철진의 실박한 어깨를 철썩 후려갈겼다.

《제격 잔치를 하자구!》

《것보십시오… 뛰어드니 처녀란것두 뭐 별거 아니더군요!》

뛰어드니 별게 아니다!

철진은 레상사로 변진 말이나 나에겐 무서운 타격으로 가슴을 치는 된주먹이었다.

《그렇지! 작전작전하면서 버리기만 하다가야 총각으로 늙을수밖에… 안그런가?!…》

《하하…》

《하하…》

나도 웃고 철진이라도 웃었다.

웃기는 함께 웃었으나 웃음은 각각 제나름의 것이었다.

살인자는 칼을 놓지 않았다

장원준

하얀 장옷속에 가리운 너인의 얼굴
누구도 본적이 없었더라
왕후라지만
백성에게조차 자태를 드러내지 않던
명성황후…

그만큼 외인을 꺼려한 쇄국의 정치아래
봉건의 담은 높았다
허나
한밤중 궁성문을 마스고
명성황후의 목을 베일 칼을 든
일본사무라이들이 꺾안을 뛰어넘었다

사정없이 찢렸다…
더미로 쌓인 문짝우에
장작처럼 명성황후를 던져놓고
연약한그 너인의 몸에 불을 지를 때
창덕궁뜨락엔 피젖은 락엽들이
빨간새마냥 떼지어 날았더라…

오 이것이 역사에 전해오는 《을미사변》
어느덧 아득한 세월 흘렀어도
후손대대 똑똑히 새겨둔 참극의 실체
그렇다
살인자는 일본정부
희생자는 이 나라의 《국모》!

내 지금
한줌 재로 된 명성황후의 혼을 불러

단죄의 말마디를 더웁히려 함이 아니다
흘러간 백년간을 삭막의 숲으로 하여
력사의 진실을 가리려는 일본
침략을 《해방》으로 락탈을 《번영》으로 날조하며
살인자는 오늘도 칼을 놓지 않았다

일찌기
조선을 겨냥하고
명성황후를 암살한 사무라이정부의 칼날이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에 갈리어
국회의 연락에서 버젓이 버리어지고있는
파렴치한 일본의 현실이어

그래
살인자에 의해 력사가 오도될수 있단 말인가
제아무리 《평화》란 말로 그 흉검을 도금해도
력사의 피는 절대로 지울수 없고
《을미사변》의 교훈을 뼈에 새긴
이 겨레 강의한 녀넌 절대로 용서란 없거니

오 내 똑똑히 선고하노라
진정한 평화는 일본의 허끝에서 유린당할
릉락물이 아니다
수십년 그 긴긴 세월
이 땅을 강점하고 피바다에 잠그었던 범죄
그 시효없는 만고대죄 력사앞에 반성하고
일본은 칼을 놓으라, 칼을 놓으라
살인자는 칼을 놓으라!!

보조금에 비끼는 생각

로창일

산과 들에서 가물가물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자연의 모든것이 새 삶을 펴나가는 봄이 오고있다.

며칠전 어느날 단란한 우리 가정의 저녁시간에 있는 일이었다.

어머니가 하나의 봉투를 우리앞에 보여주는것이였다.

《나라에서 이달에 주는 년로보장금이구나. 어서 봐라.》

안해가 그것을 받아 펴놓았다.

아버지가 받고있는 영예군인보조금에 어머니의 년로보장금이 합쳐진 금액은 너무도 분에 넘친 액수였다.

근심걱정없는 우리 제도하에서 당과 국가의 관심과 배려를 누구보다 크게 받고있는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은 로년기에도 값있게 생을 보내고있건만 어제날의 자그마한 공로를 중히 여겨 나라에서는 공로자로 불러주며 이렇게 달달이 혜택을 베풀어주고있는것이다.

《해놓은 일보다 받는게 더 많으니 이걸 받을 때마다 마음이 송구해 지군한다.》

매번 곱씹는 어머니의 이 말을 들으며 여느때처럼 나도 안해도 감격에 겨워있는데 세살난 아들애가 불쑥 나에게 묻는것이였다.

《아버지, 이거 뭐냐?》

말을 번져 몇달이 잘 흘러 자기와 가까이 있는 물건이며 자기 생활과 밀접해지는 현상들을 곧잘 외우곤하여 온 집안의 감탄을 자아내는 귀염 성스러운 아들애의 띠엄띠엄한 목소리.

우리는 모두 의아해졌다.

보조금이라는 말보다도 돈이라고 한마디의 단어로 말해준대도 아들애는 그것을 아직 모른다.

행복만을 안고 태어나 세상에 부럼없이 자라고 있으니 어찌 그것을 알수 있으랴.

올려다보는 아들애의 또렷한 눈빛을 마주대하고 말문이 막혀있는 나를 안해가 가볍게 건드리며 텔레비죤화면으로 눈길을 이끌어주는것이였다.

거기서는 사회주의를 버린 이전 소련의 어린이들의 가공한 모습이 비쳐지고있었다.

길가에 세워놓은 자동차에 달려들어 싱갱이질하는 장면이였다.

차주인의 청원이 있건없건 딱정벌레처럼 달라

붙어 유리창이며 차체며 부지런히 닦아가는 대여섯살안팎의 어린이들.

추운 날씨에 가드러드는 손을 입김으로 붙여가며 열성스레 팔을 휘젓느라 몸부림친다.

그리고는 차문을 두드리며 손을 내민다.

차창밖으로 튀어나오는 짜그랑돈, 그것을 좇겠다고 허우적이는 모습들.

다시금 심장이 쿵 소리를 내는것만 같았다.

온갖 시름을 잊은 아들애의 눈빛과는 너무도 대조되는 애원과 절망이 비끼는 저 아이들의 눈동자.

이름할수 없는 감정이 순간에 엇갈리며 나의 마음을 흐트러놓는것이였다.

행복과 불행이라는 상반되는 두 느낌이 강하게 교차되는 순간에 내가 앉아있고 바로 이 세계속에서 우리가 살고있다.

돈, 돈이 무엇인지 모르는 아이,

피기도전에 생존경쟁의 그 치열한 마당에 뛰어들어 그것을 벌겠다고 몸부림치는 어린것들.

과연 이 세계에 이렇듯 상반되는 아이들이 함께 자라고있단 말인가.

나는 앞에 놓여있는 봉투에로 다시금 눈길을 돌렸다.

그러자 또다시 나의 머리속에는 지나간 신문들 중에서 읽었던 어느 한 기사내용이 떠오르는것이였다.

이전 소련의 사회주의하에서 전쟁로병으로 떠받들리우던 한 공로자가 사회앞에 터친 하소연을 담은 편지의 구절이였다.

지난날 강력한 나라를 일떠세우고 과시즘으로부터 조국을 지키는데 자기의 한생과 로동을 바친 돈바쓰출신의 로병인 그는 자기 나라 국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나는 돌보아주는 사람이 없는 외로운 늙은이이고 혼자 살아가는 신세이다. 내가 받는 얼마간의 년금은 공공봉사료를 물 돈도 되지 않는다.

몇십배로 뛰어오른 가스사용료를 물어야 하고 적산전력계는 내가 아무리 절약하자고 해도 수십만까르보바네즈를 물게끔 돌아가며 물사용료만도 5만까르보바네즈를 물어야 한다. 보다싶이 년금은 한푼도 남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받는 보조금이라는것도 빵 몇개를 사나마나한것이다. 그러니 이런 조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

르쳐달라, 이것은 그야말로 년금자들에 대한 멸살행위이다.》

그는 자기의 신세를 사회앞에, 후대들앞에 통절히 한탄하며 무시무시한 나날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달라고 부르짖었다.

붉은 기발을 들고 파시즘과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선혈을 바쳐온 혁명의 선배가 오늘날 자기들이 피로 지키고 구슬땀을 바치며 일떠세운 락원을 줄지에 잃고 한지에 나앉아 신세를 한탄하는 기막힌 이 정상.

나의 어머니가 누리는 오늘의 생활과 그 얼마나 대조되는 현실인가.

자기 조국을 위하여 성실한 땀을 바친 아버지, 어머니세대를 혁명의 선배로 내세워주며 온갖 사회적혜택을 끊임없이 돌려주어 여생에 삶의 보람을 마음껏 누리도록 해주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

그 품속에서 전 세대도 우리 세대들도 근심걱정을 모르고 살아간다.

오히려 복속에서 자기들이 누리는 큰 복을 다 알지 못하고 당연히 받아안기만 한다.

이따금 듣게 되는 《생활고》란 말이 설어 그 풀이를 해보느라 사전을 뒤적이는 그런 사람들, 치료비와 세금을 내는 나라가 따로 있는가고 엉뚱한 질문을 하는 조카애들을 뜨문히 대하는 내가 과연 우리 행복의 의미를 다 안다고 할수 있으랴.

온 나라가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사회주의의 한지붕아래서 서로 돕고 이끌며 참다운 인생을 누려가는 내 나라와 도시의 구석구석에 널려있는 오물장에 극빈자들과 거지들이 모여들어 《오물장공동체》생활을 하고있는 사회주의가 무너진 동유럽나라들의 판이한 두 제도가 바로 우리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들이 모여들어 《오물장공동체》생활을 하고있는 사회주의가 무너진 동유럽나라들의 판이한 두 제도가 바로 우리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모습을 가름짓는것이다.

하다면 이 의미는 어디서 갈라지는가.

이에 대한 대답이런듯 텔레비존화면은 바뀌어져 창공높이 휘날리는 붉은 기발의 힘찬 퍼덕임과 함께 기백넘치는 음악이 울려나왔다.

...

지키면은 승리요 버리면 죽음일세
향도성 두리에 더욱 굳게 뭉치세
우리 당이 제일이요 사회주의 제일일세
붉은기 높이 들고 사회주의 지키세

사회주의 기치-혁명의 붉은기!

바로 저 기폭에 행복과 영광의 의미, 고마운 이 제도의 의미가 담겨져있다.

철없는 아이의 물음, 그 애들의 눈빛도 어제날 공을 세운 로세대가 받아든 한봉투의 보조금도 저기발이 날리고있는곳과 사라진곳에서는 다르게 안겨들지 않는가.

유혹의 바람에 홀려 저 기발을 놓아버렸기에 어제날 강성을 뿔내던 나라가 쇠국이 되고 행복이 무르익던 거리거리에는 사람들의 눈물이 흐르고있다.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마중가는 이 봄날에도 그들은 설음을 이기지 못한다.

저 기발을 지켜내지 못하면 나의 아들도 《돈》이라는 말부터 익히며 《돈 좀 주세요.》의 간판을 목에 걸고 길거리에 나서게 될것이고 어머니는 버려진 인생으로 세상밖에 밀려나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을 부르짖는 그 정상들과 달리될수 없을것이다.

생각할수록 우리의 붉은기가 더욱 소중하게 여겨진다. 신념의 맹세도 굳어진다.

나는 아들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에게 해줄 말을 찾아보았다.

그가 알아들을 말이 있으랴만...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지켜주시는 사회주의 붉은 기치가 영원하기에 너의 할머니나 이 아버지처럼 너는 그것이 가져다주는 설움과 불행을 영원히 알수 없노라고.

받아안은 사랑의 높이를 헤아리듯 깊은 상념에 잠겨있는 어머니와 안해에게 나도 마음을 합쳤다.

행복과 불행은 어디에서 오는가.

붉은기에 대한 신념이 확고할 때, 그 신념을 버릴 때.

참으로 명백한 진리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받아안고 사회주의 재생을 위하여 일떠선 수천만 인류의 투쟁이 반드시 승리하리라는것은 움직일수 없는 력사의 법칙이다.

텔레비존에서는 어느새 우리 인민의 영원한 신념의 맹세를 담아 《높이 들자 붉은기》의 힘찬 선율이 울려퍼지고있었다.

한통운의 문학창작과 《님》에 대한 사랑

한중모

1

창작은 새로운것을 창조하는 독창적인 사업이며 독창성은 작품의 생명력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문학작품은 독창적이어야 독자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으며 그들을 형상세계에로 깊이 끌어들이줄 있다. 문학작품의 독창성은 창작적개성이 뚜렷한 작가에 의해서만 나타날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는 언제나 독창적인 창작의 길을 열어나가면서 매번 새로운것을 찾아내야 한다.》

문학사에 이름을 남기고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는 작가들은 누구나 자기의 고유한 창작적개성을 가지고 독창적인 작품을 창작함으로써 시대와 력사의 요구에 대답하고 문학발전에 독창적인 기여를 한 문인들이였다.

우리 나라의 해방전 근대 및 현대 문학의 력사를 돌이켜보아도 그렇다. 오랜 력사적전통을 가지고있는 우리 조선문학은 일제식민지통치의 압박한 사회문화적조건에서도 조국광복과 민족적독립을 위하여 굳세게 살며 싸우는 인민들의 사상감과 생활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반영한 특색있는 작품들을 수많은 내놓음으로써 민족문화유산을 더욱 풍부히 하였다. 만해 한통운의 문학도 이러한 유산의 하나에 속한다.

만해 한통운은 1919년 3.1인민봉기 직전부터 1930년대말에 이르는 20여년동안 시창작과 소설창작, 외국작품번역 등 다양한 문학활동을 전개하여 해방전의 진보적이며 애국적인 문학발전에 독특한 기여를 하였다.

우리가 한통운의 문학작품을 접했을 때 받는 강한 인상과 깊은 감명은 그의 특이한 창작적개성, 형상의 독창성과 관련된다. 한통운은 자기 작품에서 인간생활과 사회현실을 제 눈으로 보고 독특한 기량으로 특색있게 그려냄으로써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이채로운 형상을 창조해낸 문인이다. 그의 작품은 어느 다른 작가의 작품과도 비슷한데가 없으며 비반복적이었다.

한통운의 문학작품의 독창성과 비반복성은 그의 세계관과 생활체험, 미학적견해와 창작적기량이 하나로 결합되어 반영된 결과이다.

한통운의 첫작품은 1918년 9월에 발행된 잡지 《유심》 창간호에 발표된 시 《심(心)》이다. 잡지 《유심》은 한통운이 창간하고 자신이 직접 그 편집인과 발행인으로 되었던 불교잡지였다.

한통운은 1896년에 17세의 청년으로서 의병투쟁에 참가하였다가 거기서 실패한 다음 강원도 설악산에 들어가서 불교승려로서 수도생활을 오래동안 하였는데 통운이라는 이름도 그때에 지은 법명(중이 되는 사람에게 본래 이름대신에 새로 지어주는 이름)이었으며 만해라는것도 불문에서 쓰는 법호였다. 그의 어릴 때의 이름은 유천이었다.

한통운은 청년시절부터 불도를 닦았고 불교적 세계관을 소유하고있었지만 그는 결코 이른바 《속세》를 떠나 절간에 파문혀 넘불이나 외우면서 은둔생활을 일삼는 그런 중이 아니였다.

그는 세계여행을 계획하고 로씨야 원지방까지 갔다는 일도 있었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각지의 사찰과 근대적인 문물을 돌아보기도 하였으며 한때 만주로 망명하여 그곳의 독립운동자들과 접촉하면서 독립운동의 발전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한통운은 또한 불교조직의 창설에 적극 참가하고 그 책임적인 위치에서 사업하면서 《조선불교유신론》을 발표하여 불교를 근대문명의 요구에 맞게 혁신할것을 주장하였으며 불교를 현실에 접근시키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리고 일제가 매국배족적인 불교승려와 야합하여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종교분야에서까지 실현하려고 책동할 때 승려결기대회를 열고 그 조약체결을 반대배격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벌리였다.

한통운은 자신의 생활과정을 통하여 체득한 반일애국사상과 불교에 대한 혁신적인 견해와 관점으로로부터 1919년에는 3.1인민봉기에 적극 참가하였으며 그로하여 3년간의 옥고를 치르게 되었다.

시 《심》은 한통운의 이러한 곡절많은 생활경로와 사상의식의 형성과정에서 태어난 문학창작의 첫 열매였다.

시 《심》은 그 제목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세계의 근원을 《심》이라고 보는 불교적인 관념론의 견해에 대하여 읊은 작품으로서 여기서는 사물현상의 리치를 파고들려는 한통운의 진지한 사색과 탐구는 엿볼수 있지만 그의 시에 일관되어있는 애국적인 사상적지향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시는 그 형식에서 현대시에 바짝 접근한 작품으로서 최남선, 김억, 신채호 등의 시들과 더불어 우리 나라 시문학에서 신시를 거쳐 자유시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선구적인 역할을 한 작품의 하나로 되였다는 점에서 문학사적의의를 가진다.

한통운의 시문학의 진보적인 성격과 애국주의적인 특성을 나타내는데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작품은 시 《무궁화 심으고저》(1922)이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옛나라에 비춘 달아
쇠창을 넘어와서
나의 마음 비춘 달아
계수나무 버혀내고
무궁화를 심으고저

이것은 그의 옥중시 《무궁화 심으고저》의 첫 연이다.

3.1인민봉기때 33명의 민족대표중의 한사람이었던 한통운은 감옥에서 일제놈들의 그 어떤 탄압과 회유에도 애국적의지를 굽히지 않았으며 일제관리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집필한 《조선독립리유서》에서 제국주의와 군국주의는 몰락할수 밖에 없다는것과 함께 조선의 독립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였으며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 하는것은 인류가 공동으로 가진 본성으로서》 이 본성은 남이 꺾을수 없는것이라고 하였다.

시 《무궁화 심으고저》에는 한통운이 옥중에서 더욱 가다듬은 조국의 광복과 독립에 대한 념원이 뚜렷이 반영되어있다.

이 시에서 노래된 《마음》, 그것은 이미 시 《심》에서 노래된 그것이 아니다. 그 《마음》은 쇠창으로 덮인 나라에 무궁화를 심어 무성하게 가꾸려는 념으로 가득차있는것으로서 이러한 마음은 다름아닌 조국광복에 대한 념원과 의지로 불수 있을것이다.

시는 《달아 달아 밝은 달아 님의 거울 비춘 달아》라고 노래한 둘째 연에서 불수 있는바와 같이 서정적주인공 《나》를 상징적의미를 가지는 《님》과 연결시키고있다. 한통운의 시형상의 기본대상, 기본초점으로 된 《님》은 이 시에서 이미 자기 모습을 드러낸것이다.

한통운의 시문학의 진보적인 성격과 애국주의적인 내용, 그 독창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것은 시집 《님의 침묵》(1926년)이다. 시집 《님의 침묵》은 한통운의 작가의식과 문학정신, 창작적 개성이 하나로 종합되고 집약된 결정체와도 같다.

시집 《님의 침묵》은 한통운이 설악산에 들어가서 쓴것으로서 시인 자신이 밝힌바와 같이 1925년 10월 16일(음력 8월 29일)밤에 탈고하여 1926년에 출판한것이다.

시집 《님의 침묵》은 한마디로 말하여 《님》에 대한 시이며 《님》에 대한 《나》의 사랑의 노래이다.

한통운의 시에서 중요한 시적계기를 이루는 《님》과 《나》의 관계는 이미 시 《무궁화 심으

고저》에서 이루어진것으로서 시집 《님의 침묵》에서는 그것이 여러 측면과 각도에서 심화되어 전개되고있다.

한통운에게는 시집 《님의 침묵》외에 이미 언급한 《심》, 《무궁화 심으고저》를 포함하여 20여편의 시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님》을 노래한 시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시 《산거(山居)》에서는 《티끌 세상을 떠나면 모든것을 잊는다 하기에》산을 깎아서 집을 짓고 돌을 뚫어 샘을 파서 구름을 손님으로 맞이하고 보내며 달을 문지키는 파수군으로 삼고 살아도 《님》에 대한 근심으로 잠못 이루는 서정적주인공의 심정을 노래하였다.

님 그리워 잠못 이루는
오고 가지 않는 근심은
오직 적은 베개가 알뿐이다

시에서 《님》을 근심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서정적주인공의 애절한 심정, 이것은 곧 빼앗긴 나라의 운명을 두고 안타까이 모대기는 시인의 심정의 형상적구현이었다. 그러기에 그는 붓을 들면 먼저 《님》에 대한 사랑의 노래부터 지었던 것이다.

한통운의 시문학에서는 시조가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그가 시조에 관심을 가지고 수십편의 작품을 써낸것은 일제의 식민지민족문화말살정책에 맞서 전통적인 민족시가형식을 살려나가려는 문학정신, 작가의식의 표현으로 보아야 할것이다.

한통운의 시조에서 주목되는것 역시 《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읊은것이다.

대실로 비단 짜고
술잎으로 바늘 삼아
만고청청 수를 놓아
옷을 지어 두었다가
어즈버 해가 차거든
우리 님께 드리리라

시조 《우리 님》에서 절절하게 노래된 《님》을 못잊어하고 《님》을 만드시 만날수 있다는 송죽같은 절개는 꿈속에서도 《님》만을 생각하고 못내 그리워하는 간절한 마음을 노래한 시조 《추야몽》에도 잘 드러나있다.

시조 《무제(無題)》에 묶여져있는 다음의 시조는 한통운이 자기 시에서 《님》을 어떠한 위치에 놓고 노래하였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물이 깊다해도
재면 밑이 있고
뫼가 높다 해도
헤아리면 우가 있다

그보다 높고 깊은것은
님뿐인가 하노라

한통운의 시에서 《님》은 가장 숭고한 존재이고 심원한 세계였으며 그러기에 《나》는 언제 어디서나 그 《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고 사무치게 그리워하며 기어이 찾으려고 애쓰는것이다.

리순신 사공삼고
을지문덕 마부삼아
파사검 높이 들고
남선북마 하여볼가
아마도 님찾는 길은
그뿐인가 하노라

시조 《무제》의 이 작품은 한통운의 시를 해석하는데서 여러가지 면에서 실머리를 열어주고있다

시조는 우선 《님》이 단순한 사람의 대상이 아니라 일제에게 빼앗긴 조국이라는것을 형상적으로 암시하고있으며 조국을 광복하기 위하여서는 무력항쟁을 벌려야 한다는 사상을 예술적으로 천명하고있다.

한통운은 한자시도 많이 창작하였는데 그것은 사상에술적가치에 있어서 시집 《님의 침묵》을 비롯한 우리 말로 된 시에 따르지 못한다.

시인으로서의 한통운의 개성적특성과 그의 시문학의 독창성은 우리 고유어의 능숙한 구사에서 도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가갸로 말을 하고 글을 쓰셔요
허끝에서 물결이 솟고 붓아래서 꽃이 피여요
그속엔 우리의 향기로운 목숨이 살아움직입니다.
그속엔 님의 사랑의 실마리가 풀리면서 감겨있어요.
굳세게 생각하고 아름답게 노래하여요....
가갸날, 오오, 가갸날이여.

이것은 한통운이 1926년 12월 신문 《동아일보》 지상에 발표한 《가갸날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인용한것이다.

애국적인 조선언학자들을 비롯한 일련의 지식인들은 훈민정음 발포 480돐을 맞으며 《가갸날》을 정하여 기념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일제의 압박한 민족문화말살책동이 감행되는 가운데서 민족어를 고수하고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의의있는 일이었다.

한통운이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한 시기에 시창작에서 고유한 우리 민족어를 잘 살려쓰며 《굳세게 생각하고 아름답게 노래》할데 대하여 주장

한것은 진보적이며 애국주의적인 사상적내용을 아름답고 우아한 민족적형식으로 표현하여야 한다는 미학적견해와 창작태도를 표명한것이였다.

한통운의 시가 사람들속에 그윽한 여운을 남기고 그들로 하여금 깊은 사색에 잠기게 한 비결의 하나가 바로 우리 민족어의 능숙하고 세련된 구사로서 뜻깊은 내용을 감명깊게 드러낸데 있었다.

한통운은 창작활동의 전반기에 시를 썼다면 후반기에는 주로 소설창작에 많은 관심을 돌렸다.

그리하여 여러편의 장편소설을 세상에 내놓았는데 만해의 소설작품 역시 작가로서의 그의 개성적특성과 그의 문학의 독창성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한통운은 시집 《님의 침묵》을 집필발표하기에 앞서 이미 1924년에 장편소설 《죽음》을 탈고한것으로 알려져있으나 그것은 세상에 나오지 못한채로 파묻혀버렸다. 한통운이 세상에 내놓은 첫소설은 장편소설 《흑풍》(1935~1936)인데 이것은 그의 작가적면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소설작품이다.

장편소설 《흑풍》은 청나라말기의 중국현실을 사회력사적배경으로 주인공 왕한을 비롯한 다양한 인물들의 성격과 호상관계를 통하여 나라를 위하여 혁명에 참가하는것이 참답게 사는 길이라는것을 예술적으로 천명하고있다. 가난한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난 왕한은 생활의 우여곡절을 거쳐 《혁명당》의 간부로 되지만 검거선봉으로 혁명운동이 침체상태에 들어가게 되자 아름다운 안해 창순에 대한 애정에 빠져 사랑이 최고리상이라고 하면서 소상강반에서 《신선》같은 생활을 하는것으로 자족한다. 그러나 봉숙의 적극적인 권고와 특히는 자살한 창순의 유서에서 자극을 받아 한평생을 나라를 위하여 혁명에 몸바칠 맹세를 다지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

작품에서는 혁명자금을 마련하는데 꽃다운 청춘을 내던진 봉숙이가 남편이 죽은 뒤에 남은 청춘을 《님》을 위하여 바치겠다는 결심을 다지는 대목이 있는데 여기서 《님》은 나라를 위한 혁명을 의미하는것이다.

작품은 청나라말기의 복잡다단한 현실속에서 갖은 곡절과 시련을 뚫고 나라를 위하여 혁명에 몸바쳐나선 다양한 인간형상들을 통하여 당시의 조선사람들에게 조국을 광복하기 위한 혁명의 길에 나서야 한다는것을 예술적으로 암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장편소설 《흑풍》은 젊은 사회주의자를 등장시켜 가난한 소작농민들이 지주의 횡포때문에 불행과 고통을 겪게 되는 근본원인이 사회제도가 틀린데 있다는것을 밝히고 그러자면 사회제도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을 력설하게 하였으나 이야기줄거리를 사회주의적리상을 구현하는데로 일관하게 지향시켜나가지 못하였으며 주인공 왕

한을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인물로 형상하지 못하였다. 소설이 가지고있는 이러한 제한성은 한통운의 불교적세계관과 민족주의사상에서 나온 필연적결구이었으며 그것은 비단 이 작품뿐 아니라 그의 문학에 공통적인것이였다.

한통운은 장편소설 《흑풍》을 집필하여 발표한 데 이어 장편소설 《후회》(1936)를 창작하여 《조선중앙일보》에 연재하다가 작품을 싣던 신문이 폐간됨에 따라 중도반단하게 되였으며 그후에는 장편소설 《철혈미인》을 잡지 《불교》에 발표하다가 역시 중단하고말았다. 그후에도 한통운은 창작의 붓을 놓지 않았으며 1938년에는 가련한 운명을 가진 녀주인공 순영이 빈궁에 시달리어 타락한 남편을 순결한 애정과 정성으로 회개시키는 내용의 장편소설 《박명》(1938)을 창작발표하였다.

일제침략자들의 최후박약으로 진보적인 문학작품을 창작하는 길이 막혀버린 식민지통치의 마지막시기에 한통운은 중국고전소설 《삼국지》를 번역하여 신문에 연재하는 일을 하였으나 이것마저 끝까지 계속할수 없었으며 일제의 패망직전에는 문학창작의 붓을 놓지 않으면 안되였다.

2

한통운은 시도 쓰고 소설도 썼지만 작가로서의 만해의 창작적개성과 그의 문학의 독창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있는것은 시문학 특히 시집 《님의 침묵》에 실려있는 시들이다. 일반적으로 한통운이라고 하면 시집 《님의 침묵》에 대하여 생각하리만큼 이 시집은 만해의 문학창작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시집 《님의 침묵》에 대하여 한마디로 특징짓자면 《님》에 대한 서정적주인공-《나》의 사랑의 노래라고 할수 있다. 시집에 실려있는 시 《님의 침묵》을 포함한 90편의 시들은 서정시로서의 자기의 독자성을 가지면서도 주제사상에서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

그러면 만해의 시집에서 《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만해의 시집이 《님》에 대한 《나》의 사랑으로 일관되어있는것만큼 《님》이 가지는 시적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것은 시집의 주제사상적내용과 사회적가치를 과학적으로 해명하기 위한 관건적고리로 된다.

한통운은 시집 《님의 침묵》의 머리시에 해당하는 시 《군말》에서 <<님>만 님이 아니라 기다리는것은 다 님이다. 중생이 석가의 님이라면 철학은 칸트의 님이다. 장미화의 님이 봄비라면 마찌니의 님은 이탈리아다. 님은 내가 사랑할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니라>>고 썼다.

이것은 한통운의 시가 다름아닌 《님》에 대한 사랑의 노래라는것을 언명한 대목인데 《님》에

대한 사랑의 노래의 사상적내용을 정확히 해독하려면 《님》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것부터 해명하는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한통운의 시에서의 《님》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한 해석이 주어져왔는데 대개 그것이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는것으로 리해하였다. 한통운 자신이 《님》이 무엇인가 하는것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경우를 들어 설명한것처럼 《님》이 단순히 애인을 가리키는것이 아니며 어느 한 대상만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라는것을 알수 있다. 그러나 《님》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우에서 인용한 시구절에 대한 단순한 어구해석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철학이 칸트의 님이니가 한통운에게 있어서는 문학이 님으로 되며 장미화의 님이 봄비이므로 다른 모든 꽃들에게 있어서는 한통운의 시에서의 《님》의 본질적의미가 무엇인가 하는것을 옳바르게 리해할수 없다. 시집 《님의 침묵》에서 《님》이 가지는 시적의미를 똑바로 해독하기 위하여서는 서정적주인공-《나》의 《님》에 대한 관계가 중생에 대한 석가의 관계, 철학에 대한 칸트의 관계, 봄비에 대한 장미화의 관계, 이탈리아에 대한 마찌니의 관계와 같이 못견디게 그리워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라는것을 옳게 리해하는것이 중요하다. 석가에게서 불교적의미에서의 《중생》을, 칸트에게서 그가 한평생 전심전력을 기울여 연구한 철학을, 장미화에게서 꽃이 봉우리를 맺고 활짝 피어나게 한 봄비를, 오스트리아의 지배로부터의 나라의 독립과 통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한 19세기 이탈리아의 애국지사 마찌니에게서 조국을 떼어놓을수 없듯이 《님》을 떠나서는 《나》의 존재가 무의미해 지리만큼 《나》에게 있어서 《님》은 더없는 사랑과 그리움의 대상인것이다.

시집 《님의 침묵》에서 《님》과 《나》는 불가분리의 밀접한 관계에 있다. 《나》에게 있어서 《님》은 오매에도 잊지 못하고 목마르게 그리워하며 모든것을 다 바쳐 사랑하는 대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님》은 《나》에게 존재의 의미와 생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는 근원이며 삶의 보금자리이다. 여기에 《님》과 《나》의 땔래야 땔수 없고 가를래야 가를수 없는 관계가 있다.

그러면 한통운의 시에서 《님》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미 앞에서 만해의 창작활동과정과 그 특성을 분석하면서 일정하게 언급하였고 시집 《님의 침묵》을 보면 짐작이 가는것처럼 《님》이 가지는 기본적인 시적의미는 조국이라는 데 있다.

그러면 한통운이 왜 자기 시에서 조국을 《님》에 비유하여 노래하였으며 조국을 상징하는 《님》의 시적의미가 명백히 안겨오지 않도록 아리송하게 형상하였겠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만해의 예술적사고방식과 시적기교의 특성으로 설명될수

있을 것이며 이와 함께 진보적이며 애국적인 문학 작품에 대한 일체 침략자들의 가혹한 검열과 탄압과도 관련된 것이라고 볼수 있을것이다.

그러면 시집 《님의 침묵》에서 《님》에 대한 《나》의 사랑, 서정적주인공의 조국애는 어떻게 노래되고있는가.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라는 시구로 시작된 시 《님의 침묵》은 다음과 같이 끝을 맺었다.

아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 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나》의 사랑의 대상인 《님》은 갔지만 그것은 결코 보내여서 떠나간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님이 보내지 않았음에도 떠나가서 뜻밖의 리별을 하게 되었기에 님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고 견잡을수 없는 슬픔에 싸인 《나》의 사랑의 노래는 그 침묵을 휩싸고 도는것이다.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도는 슬픔에 잠긴 《나》의 사랑의 노래, 이것은 잃어버린 조국의 비운을 두고 몸부림치는 서정적주인공의 비통한 심정의 소리없는 울부짖음이다.

한용운의 시에서 떠나간 《님》에 대한 《나》의 사랑과 그리움, 그로 말미암은 슬픔이 말할수 없이 크기에 《늑고 병들고 죽기까지라도 당신때문이라면 나는 싫지 않아요.》(시 《당신이 아니더면》)라고 노래하는가 하면 《당신의 사랑의 동아줄에 휘감기는 체험도 사양치 않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의 흑범아래에 일만가지로 복종하는 자유형도 받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에게 의심을 주시면, 당신의 의심의 허물과 나의 슬픔의 죄를 맞비기고 말겠습니다.》(시 《의심하지 마세요》)라고 읊었던것이다.

《님》에 대한 《나》의 사랑과 그리움이 얼마나 순결하고 열렬한가 하는것은 시 《복종》에서도 뜨겁게 노래되고있다.

남들은 자유를 생각한대지마는,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싶어요.

복종하고싶은데 복종하는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그것만은 복종할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당신》-《님》에 대한 복종을 아름다운 자유보

다도 더 달게 여기며 거기에서 행복을 찾는 《나》의 깨끗한 마음은 서정적주인공이 지닌 열렬한 조국애에 대한 시적표현이다. 《당신》-《님》에 대한 《나》의 복종심은 그 어떤 다른 사람에게도 복종하는것을 허용하지 않는것이며 여기에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서정적주인공의 굳센 지조가 있다. 시는 자유와 복종을 대치시켜 《님》에의 복종을 자유보다 더 높이 내세움으로써 조국밖에는 다른것을 모르는 서정적주인공의 순결한 애국심을 시적으로 강조하고있다.

《님》에 대한 《나》의 사랑은 떠나간 《님》을 그리워하고 슬픔에 잠겨있는데만 그치지 않는다. 한용운의 시에서 《님》에 대한 《나》의 사랑은 《님》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과 련결되어있다. 그의 시에서의 《나》는 결코 떠나간 《님》을 사무치게 그리며 슬픔에 잠겨 눈물만 흘리는것이 아니다.

시 《가지 마세요》에서 《아아 님이여, 위안에 목마른 나의 님이여, 걸음을 돌리세요, 거기를 가지 마세요, 나는 싫어요.》라고 노래한 한용운은 시 《오세요》에서 《오세요. 당신은 오실 때가 되었어요. 어서 오세요.》라고 절절하게 부르짖는다.

당신은 나의 죽음속으로 오세요. 죽음은 당신을 위하여의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있습니다.

만일 당신을 쫓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은 나의 죽음의 뒤에 서십시오.

보내지 않는 《님》이 가서는 안될 길을 떠나갔으니 무궁화강산에서는 《대지의 음악》이 잠들어 버리고 《광명의 꿈》은 검은 바다에 잠겨버렸다.

이것은 《님》이 와야 한다는 《서술이 푸른 교훈》을 내리였다. 그러나 《님》은 스스로 오는것이 아니며 저절로 와지는것도 아니다. 그것은 《님》을 쫓아오는 사람이 있기때문이다. 그러기에 《님》이 오게 하려면 죽음도 서슴지 말아야 하는것이다.

죽음으로써 《님》을 오게 하고 맞이하겠다는 《나》의 불같은 마음, 이것이야말로 조국광복을 위하여 한몸바치려는 서정적주인공의 열렬한 애국심의 발현이 아니겠는가.

조국을 광복하는 투쟁에 헌신하려는 서정적주인공의 자기희생정신은 시 《나의 길》에서도 뜨겁게 노래되고있다.

의있는 사람은 옳은 일을 하여서는 칼날을 밟습니다.

서산에 지는 해는 붉은 노을 밟습니다.

봄아침의 맑은 이슬은 꽃머리에서 미끄러집니다.

그러나 나의 길은 이 세상에 돌박에 없습시다.
 하나는 님의 품에 안기는 길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죽음의 품에 안기는 길입니다.
 그것은 만일 님의 품에 안기지 못하면, 다른
 길은 죽음의 길보다 험하고 피로운 까
 닙입니다.

옴은 일을 위하여 칼날을 밟는 의있는 사람처럼 붉은 노을을 밟는 서산의 지는 해마냥, 꽃머리에서 미끄러지는 봄아침의 맑은 이슬과도 같이 뜨겁고 깨끗한 《나》의 희생정신, 이것은 조국광복을 위하여 생명이 기꺼이 바치려는 서정적주인공의 숭고한 정신세계에 대한 시적일반화이다.

《나》에게 있어서 《님의 품에 안기는 길》과 《죽음의 품에 안기는 길》은 서로 다른 방향인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의 길이다. 그것은 죽음의 품도 서슴지 않고 안기는 길을 걸을 때 님의 품에 안기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죽음을 통하여 《님》의 품에 안기기를 바라는 《나》는 《님》과 《나》가 하나가 되기를 절절히 회귀한다.

님이며, 나의 마음을 가져가려거든 마음을 가진
 나까지 가져가세요.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님에게서 하나가 되게 하세요.

그렇지 아니하거든 나에게 고통만을 주지 마시고
 님의 마음을 다 주세요. 그리고 마음을 가
 진 님까지 나에게 주세요. 그리하여 님으
 로 하여금 나에게서 하나가 되게 하세요.

시 《하나가 되어주세요》는 《님》은 《나》를 가져가고 《님》까지 《나》에게 줌으로써 량자가 하나되는 경지를 노래한다. 《님》과 《나》가 하나를 이루게 될 때 《나》는 드디어 고통을 없이고 자기가 바라는 행복을 찾게 되는 것이다.

《님》과 《나》가 하나가 되는 날, 바로 그것은 조국이 광복되고 서정적주인공이 해방된 조국의 품에 안기는 날일 것이다.

한용운은 시집 《님의 침묵》의 맺음시라고 할 수 있는 시 《독자에게》에서 자신은 시인으로 여러분앞에 보이는것을 부끄러워한다고 하면서 《나는 나의 시를 독자의 자손에게까지 읽히고 싶은 마음은 없습시다. 그때에는 나의 시를 읽는 것이 늦은 봄의 꽃수풀에 앉아서, 마른 국화를 비벼서 코에 대는 것과 같을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한용운이 시집 《님의 침묵》을 쓴 목적과 의도가 시창작 그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룬데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그러면 그 다른 목

적과 의도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한용운이 시를 통하여 《님》에 대한 사랑, 조국애를 형상적으로 표현하는데 주요하게 관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용운이 독자의 자손들이 자기의 시를 읽는 것은 늦은 봄의 꽃수풀에서 마른 국화의 냄새를 맡으려고 하는 것과 같을는지 모르겠다고 한 것은 후일에는 이미 자기 시가 때늦은 것으로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여 한 말이다. 그러면 왜 만해가 자손의 대에 가서는 자기 시가 때늦은 것으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겠는가. 그것은 시집 《님의 침묵》의 시들이 떠나간 《님》-잃어버린 조국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나라를 되찾으려는 열망과 의지를 담은 것들이기 때문에 조국이 광복된 다음에는 작품의 주제와 사상적 지향이 사람들에게 창작당시처럼 절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다음의 시구절은 한용운이 조국광복의 날이 멀지 않음을 예견하고 확신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밤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설악산의 무거운 그림자는 엷어갑니다.
 새벽종을 기다리면서 붓을 던집니다.

설악산의 무거운 그림자가 엷어져가는 깊은 밤에 새벽종을 기다리는 시인-서정적주인공의 절절한 마음에는 깊은 밤처럼 어두운 일제강점하의 조국강산이 새벽이 다가옴에 따라 희미해지는 가운데서 조국광복의 려명을 알리는 종소리에 대한 애타는 기다림과 그것을 멀지 않아 반드시 듣게 되리라는 믿음이 자리잡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시집 《님의 침묵》은 사랑의 노래라는 형식을 취하였고 시형상이 전반적으로 상징적의미를 가진 것만큼 주제사상을 명백히 밝히는데서 일정한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또 한용운이 불교적 세계관과 민족주의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만큼 그의 시에 종교적 색채가 일정하게 비끼지 않을 수 없었고 사회적 문제를 취급하는데서 자기의 사상적 계선을 넘어설 수 없었다.

하지만 한용운의 시는 결코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신비주의적인 것이 아니며 또 애상적이며 감상적인데만 머무른 것도 아니다.

시집 《님의 침묵》은 고유한 민족어의 능숙한 구사를 통하여 그윽하고 은근한 정서속에서 《님》-조국에 대한 사랑을 불처럼 뜨겁게 노래하고 그것을 되찾으려는 념원과 의지를 뚜렷이 나타냄으로써 한용운의 시문학의 독특한 면모를 선명하고 생동하게 드러내보이였다.

농민영웅의 고향에서

리수덕

사람마다 태줄을 묻은 고향이 있고 고향을 못 잊는 마음이 있다. 고향은 삶의 첫기슭이며 영원히 마를줄 모르는 추억의 샘터이다.

하기에 고향앞에 죄만 짓지 않았다면 한생을 두고 잊지 못하는것이 고향이다.

나에게도 그러한 고향이 있으니 그곳이 바로 한 농민영웅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김제원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제원농민은 토지개혁을 한 해에 맨 선참으로 나라에 애국미를 바친 애국적인 농민이며 농민영웅입니다. 그는 조국해방전쟁시기 공화국을 지켜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적들과 용감히 싸우다 공화국의 농민답게 장렬하게 희생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영원히 잊을수 없습니다.》

내 고향마을의 평범한 농군이었고 마음씨 무뎠던 이웃이었던 김제원농민.

그가 해방직후 나라의 식량사정이 어려웠던 그때 쌀 30가마니를 나라에 선참 바친것을 애국충정의 장거로 당력사의 한페지에 아로새겨주시고도 두고두고 잊지 못해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이신 뜻을 되새겨볼 때마다 나는 한 농민영웅의 운명과 더불어 조국땅위에 새로 생겨난 지명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곤한다.

누구에게나 태줄묻은 고향이 있듯이 김제원농민에게도 태어난 고향이 있었다.

무릇 사람들은 그가 태어난 땅이 오늘의 김제원리여서 이곳을 그렇게 명명해 부르는것으로 생각할수 있는데 결코 그런것이 아니다.

그가 출생한곳은 황해북도 봉산군 만천면 길성리(오늘의 봉산군 만금리 별포동)이었다.

빈농민의 가정에서 맏아들로 출생한 김제원농민은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게 되자 철부지 두남동생을 데리고 지주집, 량반네 집으로 떠돌아다니며 소꼴배기, 아이보개로 갖은 천대와 멸시 속에 슬픔의 세월을 보냈다. 차츰 잔뼈가 굵어지자 행여나 해서 산길을 찾아 여기저기 부평초처럼 떠다니다가 겨우 뿌리를 내린곳이 재령나무리 벌이었다.

하지만 그에게 차례진것은 지주집고용살이뿐이었다.

오늘의 재령나무리는 세세년년 풍년이 들어 먹고 남아 나무리, 쓰고 남아 나무리이지만 위대한 수령을 모시지 못해 나라잃고 땅이 없어 신음하던 당시의 불쌍한 농민들에게 있어서 재령나무리

벌은 토지없는 설움이 넘쳐 나무리였고 나라잃은 원한이 넘쳐 나무리였다.

김제원농민은 일제의 악착스러운 농촌수탈기구인 《동척》의 울가미에 묶이워 소작살이를 하던 그 나날에 때로는 왜놈들의 살인적인 략탈과 민족적멸시를 참을길 없어 마을농민들과 함께 《동척》사무실에 달려가 기물을 들부시며 항거도 해보았고 찰거마리처럼 피땀을 짜내는 악질지주놈들의 착취와 전횡을 반대하여 울분을 터치기도 했다.

그러나 나라잃고 주권이 없어 상가집 개신세만도 못한 그에게 차례진것이란 더더욱 숨길줄 모르는 압박과 원한의 피눈물뿐이었다.

이러했던 그에게 드디어 참삶의 광휘, 인생의 봄이 도래했으니 그것은 곧 위대한 장군님께서 눈보라만리 혈전만리를 헤치시고 안아오신 조국광복이었고 한없이 은혜로운 신생의 빛발이었다.

해방되던 그해에 영웅의 나이 56살이었다.

나는 지금도 내가 동요시절이던 해방직후의 그 나날 김제원농민이 우리 집에 마실을 와서 이웃사람들앞에서 자주 이런 말을 하던 일이 생생히 기억된다.

《해방전 두더지만도 못하던 인생이야 썸을 해서 뒹가겠나. 난 해방과 함께 이 좋은 세상에 갱소년했소. 장군님의 은덕으로 이 대홍탕(김제원리의 그전 이름)에 새로 태여났단말이요.》

그때엔 비록 철이 없어 무심히 들었던 그의 말을 나는 오늘에 와서 심중히 되새겨본다.

나는 생각한다. 고향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단지 태줄을 묻어서만이 고향이고 나서자라사만이 고향이겠는가. 아니다, 자신의 참된 삶이 꽃피어나고 자기의 신념이 뿌리내린곳 또한 어찌 고향이 아니라.

만약 영웅을 다시 깨워 그에게 고향을 묻는다면 그에게서 어떤 대답을 들을수 있으리란것을 나는 영웅의 옛 이웃의 자격으로 확인하고싶다.

김제원영웅은 필경 이런 대답을 하리라.

- 장군님의 은정속에 내가 다시 태어나 보람찬 생을 누렸고 그이께서 나를 영생의 언덕에 세워주신곳, 여기가 바로 내 고향이요!

바로 얼마전 취재차로 김제원리를 찾았던 나는 마을한복판에 세워진 영웅의 반신상앞에 점도록 서있었다.

들끓는 농장벌의 일터들을 돌아보고 방금 마을에 들어선듯 벼포기 설레는 논머리에 서있는 영

웅의 모습.

어언듯 50여년간의 세월이 흘러갔건만 해방직후의 그 모습 그대로 늘 입고 다니던 저고리와 조끼차림에 막머리를 하고 수북히 자란 코수염을 가쁜히 가다듬은 농민투의 우둥부둥한 그 얼굴을 눈여겨 보노라니 내 가슴속엔 봄비맞은 대지우에 움트는 새싹인양 영웅에 대한 갖가지 추억이 머리를 치여들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조국이 그처럼 소중한 곳 꽃을 땅이 없던 자기에게 3,300평의 옥토를 거저 주신 장군님의 그 은정이 사무치게 고마와 애국미를 가득 실은 달구지를 끌고 새벽 안개 흐르는 동구길을 선잠 나서던 김제원농민의 그 모습이 떠올랐다.

뒤늦게 그 사연을 알게 된 이웃들이 김제원농민을 에워싸고 어떻게 그런 장한 일을 결심하게 됐는가고, 이런 좋은 일을 왜 결집엔 알려주지 않았는가고 지청구를 할 때 그가 하던 말이 나옴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뭐 소문내고 할일도 못되지요. 지난날 우리 농민들은 비록 지리지 못살 때도 이웃에서 초상이 나면 팔죽 한두동이쯤 부조로 안구 가는걸 웅당한 도리로 여겨오지 않았소? 그런데 해방은 되었지만 아직 나라의 식량이 푼푼하지 못해서 우리에게 땅을 거저 주신 장군님께서 걱정이 막심하시다는걸 알구서야 어떻게 가만 있을수 있겠소.》

땅처럼 순박하고 소박한 그 말속에, 받아안은 은혜에는 성실한 로력과 땀으로 보답해야 한다는 꾸밈없는 진정이 어려있었고 못사람의 마음을 틀어잡는 뜨거운 감화력이 깃들어있었다.

하기에 동네이웃들은 저저마다 애국미헌납에 떨쳐나섰고 그것은 순식간에 온 나무리벌에 봄불처럼 번져갔다. 마침내 애국미헌납운동은 료원의 불길마냥 전국을 휩쓸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된 조국의 한 농민이 발휘한 애국심과 혁명적자각을 높이 평가하시여 그를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의 기수로 내세워주시고 1947년 2월에 평양에서 열린 력사적인 북조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 김제원농민을 북조선인민회의 상임위원으로 선거되도록 비길데 없는 믿음과 은정을 안겨주시었다.

그러시고도 아버지수령님께서 기회를 있을 때마다 그를 만나시여 나라일과 농사일을 의논도 해주시고 해방된 새 조선의 역군으로서, 인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원으로서 그가 해야 할 일들을 일일이 깨우쳐주시기도 하시었다.

이처럼 장군님의 각근한 보살피심과 극진한 사

랑속에서 참다운 삶과 무상의 영광을 누리게 된 그였기에 그는 자신의 운명을 전적으로 장군님께 의탁하고 그이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는 일이라면 몸과 마음을 다 바쳐갈 드림없는 신념과 의리로 직심스레 일했다.

하지만 그가 살아생전에 바쳐온 지성과 충성은 두더지갈던 인생을 건져 행복과 영광의 상상봉우에 세워주신 장군님의 그 은정과 사랑에 비추어볼 때 무변광야 한기슭의 한줌흙에 불과했다.

그런데 아버지수령님께서 김제원농민의 애국적소행을 두고두고 외우시며 한량없는 믿음과 배려를 베풀어주시었다.

그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시기에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는 소식을 아시게 된 아버지수령님께서 그의 희생을 못내 애석해 하시며 그를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대홍리를 김제원리로 고쳐부르도록 사랑의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그리고 김제원농민의 애국의 피와 땀이 스며있는 마을 한복판에 영웅의 반신상을 세우도록 해주셨으며 마을의 고등중학교와 인민학교에도 영웅의 이름을 붙이도록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었다.

그리하여 그전엔 내 고향의 수수한 농민으로 이웃에서나 그 이름을 기억하던 김제원농민이 오늘날은 세상이 다 알고 조국이 잊지 않는 영웅으로 천만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생하는것이다.

은혜로운 사랑의 빛발아래 고향은 영웅을 낳았고 영웅은 고향을 빛내고있는것이다.

진정 고향의 품은 역적은 살아있어도 돌아올수 없지만 애국자-충신은 죽어서도 안기여 영생하는 그런 고귀한 품인것이다.

최근에 우리 당에서는 해주농업대학을 《김제원대학》으로 이름을 고쳐부르도록 또다시 사랑의 조치를 취해주었다.

비록 영웅은 우리곁을 떠나갔지만 그의 고결한 녀은 세월과 더불어 더욱 빛나며 영생하는것이다.

어찌 김제원영웅뿐이라. 조국땅우에는 광휘로운 태양의 빛발속에 보석처럼 빛나는 사랑어린 지명들과 대학이름들, 기관명칭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가끔 고향땅을 찾거나 고향이름을 되새겨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군한다.

한없이 숭고한 덕망과 의리로 인민의 운명과 삶을 빛내주시던 아버지수령님과 꼭 같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기에 그 품에 오늘도 미래도 다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인민들보다도 더 행복한 인민은 세상에 없다고.

일군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추석을 비롯한 민속명절의 유래를 잘 알고 그와 관련한 우리 인민의 민족적인 풍습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음력설과 추석을 비롯한 여러 명절들은 우리 인민들이 즐겨 쇠오던 민족적인 명절이다.

예로부터 정초에는 음력설을 쇠고 씨불임을 끝내고는 봄명절을 쇠었으며 한해 농사를 해놓고는 추석명절을 쇠었다.

명절때에는 씨름, 그네뛰기, 널뛰기, 윷놀이 등 여러가지 민속놀이를 하였다.

일군날도 우리 인민이 예로부터 쇠오는 날의 하나이다.

일군날이란 한해농사에서 첫 시작으로 되는 밭갈이를 알리는 날로서 음력 2월 초하루날이었다.

이날에는 모든 농민들이 떨쳐나서 집안팎을 거두고 농쟁기들을 준비하면서 다음날부터 밭갈이를 한다는것을 알리는 의미에서 일련의 행사들을 하였다.

리조초기에 이르기까지의 자료들에는 일군날에 대한 기록이 남지 않은것으로 보아 이 명절은 그 이후시기에 생긴것으로 볼수 있다.

일군날에 대하여 18~19세기의 기록에는 《노비일》이라고 전하고있으나 민간에서는 《일군날》이라고 하였다.

노비일이라는 노는 남자중, 비는 녀자중을 말하는것으로서 통치배들속에서 자기 종들에 대하여 일러온 말이였고 일군날은 인민들이 부르던 날이었다. 지난날 봉건량반지주놈들은 온 한해동안 머슴중, 행랑살이 등 일군들을 착취하고 략탈하였다. 그러다가 농사일을 시작해야 할 계절이 되면 노비일이라고 하여 송편이나 몇개 해먹이는 방법으로 《선심》을 쓰는척하면서 체놈들의 교활한 착취적본성을 가리켰다.

이렇게 봉건관료통치배들과 지주들은 일군날을 악용하여 종과 머슴들을 얼려넘기고 속을 《뉘》구는 좋은 계기로 삼았다. 그리고는 다음날부터 그들을 또다시 교역으로 내몰았다.

그러나 일군날을 맞는 인민들은 통치배들과는 달리 농사를 시작하기전에 하루를 쉬면서 집손질도 하고 새해 밭갈이차비를 하는 날로 맞이하였다.

농민들은 2월 초하루가 되면 정월 대보름날에 세웠던 난가리를 내리워 거기에 달아매었던 얼마 안되는 난알을 털어 《천석이요, 만석이요》 하면서 가마니에 넣었다. 그때까지 돌아가던 바람개비도 이날에는 내리워졌다.

이것은 또 한해 풍년이 들라는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농민들의 하나의 소박한 행사였다. 이렇게 한 다음에는 털어낸 얼마 되지 않는 쌀로 송편을 만드는데 그 량이 적기때문에 다른 쌀을 거기에 보탰다.

송편은 콩을 불कु어서 소를 만들어넣고 빚은 떡을 솔잎을 겹겹이 깔아놓은 시루안에 넣고 찌는 방법으로 만들었다. 송편을 꼭 익힌 다음에는 그것을 꺼내어 물로 닦고 기름을 발랐다. 이렇게 만든 송편은 향기있고 먹음직하였다. 그런데 일군날에는 송편을 흔히 자기 나이수자만큼 먹는다는 풍습이 전해지고있었다. 이러한 풍습은 낱알이 풍족하지 못한데도 있고 나이많은 사람들이 많이 먹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하여 일군날의 송편은 크지 않게 만든것이 특징이었다. 그러나 나이 어린 아이들의 송편은 수자에 따라 먹으리만큼 크기를 조절하여 빚었다.

일군날 낮에는 농민들이 한곳에 모여서 농악을 울리며 노래와 춤으로 한바탕 흥겹게 놀았다.

다음날부터 밭갈이를 시작하면 여름내 집손질을 할 짬을 내기 어려웠기때문에 이날 벽도 바르고 겨울동안 어지러운곳들을 손질하였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이날 벽을 바르면 농가에 흔히 생기는 노래기를 없앨수 있다고 하였다. 함경도 일대에서는 이날을 《구력달기날》이라고 하면서 청소를 하였다. 이렇게 하여 밭갈이에 들어가기 위한 만단의 준비를 갖추었다.

이와 같이 일군날은 농사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의 날로서 농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날이었다.

나는 부럽지 않아

박두전

하고싶은 일도 많아
가보고싶은 고장도 많아
추억의 바다우에 언제나 날아에는 갈매기야
부러운것은 너였다
두다리를 잃은 나에겐...

휘뿌려지는 격랑이 오히려 시원해
내달는 함선의 갑판에 오르면
어느때나 습관처럼 나래 억센 너를 찾던
나는 해병이었다
네가 없는 바다를 나는 몰랐어라

푸른 숲에 새들이 하 많이 우짚어도
청춘의 첫시절
총잡은 나날에 정들은 새여서
그리도 인연깊어 꿈에도 너를 보았더라
허나 바다를 타고왔은 조국수호의 나날엔
부럽지 않았다
너와 나는 날바다를 함께 정복했기에

내가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는
죽음보다 더한 선고를 믿어야만 하던
피터지게 침대를 내리쳐야 했던 그 순간엔
문득 환각의 바다인지
뿌연 눈앞에 흰나래 한껏 편 네가 떠올라
눈물이 나도록 부러웠다
못견디게 못견디게...

조국을 위해
할일을 했다는
그래도 자신의 몸 한부분이라도
조국을 위해 바쳤다는 한가닥의 위안이
실망의 뇌리를 달래일 때

왜 그리도 부러운지
너의 그 억센 나래가

파도의 세찬 노호에도
굽힘없이 날아에는 동경의 흰새
오랜 나날 나의 침상에
눈만 감아도 날아예던 그 바다새

갈매기야
오늘도 추억의 바다우에서
네가 날아예건만
나는 부럽지 않노라
폭풍에도 아니접고
불에도 타지 않는
위대한 사랑이 내 심장에 한껏 펼쳐준
그 나래가 있어

희망을 안은새
부풀던 꿈을 지닌채
내 침상에서 움직일수 없는 몸이건만
조국을 위해 산 그 한순간을 귀중히 여겨
우리 장군님은 더 깊이 나를 품에 안아
희망도 꿈도 다 꽃피워주고
시대의 하늘가에
나의 나래도 한껏 펼쳐주었으니

처음엔 눈물도 헤쳐졌더라
해풍에 길든 사나이답지 않게...
대학의 창가는 왜 그리도 밝았으며
혈육같은 이웃들은 왜 그리도 많은지
내 정녕 사랑의 바다우에서 다시 깃을 다듬고
희망의 하늘가에 높이높이 날아오른
아 오늘의 나에겐

부럽지 않아
네가
부럽지 않아
정다운 나의 갈매기야

풍자시

발같이하는 농민들에게
땅이 분여된 그날밤
담높은 골방에 들어앉아
우리 마을 민지주 꿈만 청했다오

호화롭던 지난날로
잠시나마 되돌아가는데는
꿈밖에 없어
낮에도 두툼한 이불을 쓰고

민지주의 꿈

황승명

억지로 잠을 청하고
억지로 꿈을 불러들이고

허나 운명은 야속도 하지
바라던 그 꿈조차
시원치 않아
그전날 빼앗은 보패네 산장발이
《욕심쟁이》, 《욕심쟁이》
발고랑까지 소리치며
막돌을 휘뿌리고

빛값으로 빼앗은 쇠돌이네 황소가
뿔을 휘두르며
가슴팍을 들이받아
악, 소리치며 깨어나는 꿈

눈을 떠도 무서운 꿈인듯
눈을 감아도 사나운 꿈자리
하루사이에 합지갈던 배는 폭 꺼지고
개기름이 흐르던 볼따귀는

우묵하니 패이고

보다못해 মানুষ라는 또
신경을 돋구는 푸념질
한 넝쿨에 달린 두 호박처럼
한세상 둥굴둥굴 의종게 살자더니
이 무슨 꼴인가고

두어라 이년이
타고난 그 팔자야 어데 가라
꿈에서 흥조는 생시에 길조라
이전처럼 틀차리며
마누라를 위안하자니
꿈도 생시도 너무나도 엄혹하니

이제 제상에 오른 저 삶은 암탉이
세번 회를 치고
서쪽에서 해가 뜨는 날이 오면
어제날의 천석군 민지주
만석군이 될지...

풍자시

감방맛이 어때?

박세일

태우, 두환이
너희들 요즘
감방맛이 어때?

진수성찬 차려놓고
부귀영화 누리더니
정말이지 감방맛이 어때?

광주인민 살륙할 때
하늘땅을 뒤덮었던
그 포연보다 어때?

재벌놈들 호출하여
강짜 뺏아먹던
돈맛보다 좋아?

《청와대》에 틀고앉아
온갖 전횡 다 부리던
권력맛보다 좋아?

뭐, 좋기는커녕
죽을맛이라구?
헛참, 모를 소리...

이봐 태우, 두환이
그 감방맛은 사실말이야
네놈들이 아주 애착을 가진 맛이야

화염맛!
돈맛!
권력맛!

이 세맛이 합치여
감방맛이 된거야
네놈들 식성과 체질에 딱 맞는거야

아무렴! 태우, 두환이
너따위들은 그 감방맛을
죽을 때까지 장복하는게 좋아

더 좋기는 네놈들 못지 않은
도적왕초 영삼이까지 아예
감방으로 초청하는게 어때?

아무렴, 그 좋은 맛을
네놈들만 독점하면 안되지뭐
삼형제가 사이좋게 나눠줘야지

웨벨의 경악

누구나 다 잘 알고있는것이지만 1895년 10월 8일 일제가 명성황후를 살해한것은 참으로 세계 역사상 류례없던 참극이었다.

얼마전에 우리 나라 《로동신문》과 일본의 《마이니찌신보》에서 발표한 웨벨(이 참극을 목격했던 당시 서울주재 로씨야공사)의 새로운 증견자료들은 오늘 우리 인민들과 세계인민들로 하여금 한세기전 그날 일제가 저지른 야수적죄행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금할수 없게 하고있다.

로씨야공사 웨벨은 우리 나라를 두고 각축전을 벌려오던 렬강들중 한대방의 외교관으로서 명성황후살해에 대하여 것처럼 놀라면서 일제의 죄행을 만천하에 절규한것은 당시의 리해에서도 일제의 죄행을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만행으로 여겼다는것을 알수 있게 하고있다.

×

명성황후가 살해되던 날 아침, 웨벨은 문두드리는 요란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아직 날이 밝지않아 창가는 어슴푸레하였다.

《공사님, 공사님, 큰일났소이다.》

다급한 소리에 웨벨은 잠옷바람으로 출입문을 열고 내다보고 저으기 놀래였다.

《공사님, 대궐에서 란이 터졌소이다.》

이렇게 소리치며 웨벨앞에 다가서는 사람은 형클어진 머리에 하인복차림을 한 사나이였다.

웨벨이 자세히 보니 그는 농상공부대신 리범진이었다. 그는 국왕의 신임을 받고있는 대신으로서 얼마전에 농상공부대신으로 임명받았다.

웨벨은 나라의 중신이 이런 차림으로 나타난것을 보아 궁궐에 터진 란이 보통이 아님을 대뜸 짐작이 갔으나 오랜 외교관의 체질로 하여 좌중한 어조로 그를 맞았다.

《어서 들어오시오. 무슨 란입니까?》

《일본군사들이 궁궐에 쳐들어와 란동을 부리며 왕후를 내놓으라고 야단이읍니다.》

《일본군사들이?》

《그렇소이다. 그래서 폐하께서 저를 보내여 공사님을 비롯한 각국의 공사들이 속히 달려와 수습하여줄것을 청하였읍니다.》

《일본군사들이 무엇때문에 란을 일으켰으며 왕후를 찾는 목적은 무엇이라 합니까?》

《그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소이다. 너무도 뜻밖의 일이읍니다. 저는 란이 터지자 급히 달려오는 길이읍니다.》

농상공부대신은 당황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고

는 방금전까지 궁궐에서 자기가 당한 상황을 설명하였다.

국왕과 왕후가 차린 연회에 참가하였던 농상공부대신은 연회가 새벽 2시가 넘어 끝났으므로 집으로 나오지 않고 수직청에서 잠시 눈을 붙이려 하였다.

그가 잠자리에 누워 뒤적이고있을 때 궁궐 파수군대장이 수직청에 와서 하는 말이 궁성벽을 순찰하던 파수군들의 보고에 의하면 성문마다에 이상한 일본군사들이 얼른거린다는것이였다.

이 말을 듣고 궁궐친위대 부대장이 궁성을 돌아보겠다고 나간뒤 요란한 총소리가 사방에서 울리고 기와장이 깨지는 소리가 궁궐을 흔들어놓았다.

이 소리에 놀라 그곳에서 뛰쳐나온 농상공부대신은 국왕이 넘겨되어 국왕의 처소로 향했다. 그런데 벌써 일본군사들이 궁궐들에 달려들어 《왕후를 내놓으라》고 소리치며 총을 쏘아대고있었다.

농상공부대신이 놈들을 피해 국왕의 처소에 이르니 국왕은 란간에서 관리들과 대렬들의 소동을 바라보며 어찌할바를 몰라하였다. 그러한 때 농상공부대신이 그앞에 나타나자 국왕은 그에게 곧 로씨야 공사에게 찾아가 이 란을 수습해줄기 바란다고 전하라고 분부하였다.

그가 궁성밖으로 나오려했으나 일본군사들이 곳곳에서 대렬안의 사람들을 끌어내어 치고 찌르는통에 관복을 입은 그대로 그속을 벗어날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하인복을 바꾸어입고 간신히 빠져 달려왔던것이다.

농상공부대신의 설명을 들던 웨벨은 자못 심중해지였다.

웨벨은 1885년 서울주재 로씨야공사로 부임되어 온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궁궐에서 일어나는 변란을 한두번만 보아온것이 아니였다.

그러나 일본군사들이 왕후인 명성황후를 목표로 일으킨 이 변란은 웨벨에게서 큰 자극으로 되지 않을수 없었다.

그것은 근대에 와서 조선왕국이 모든것을 로씨야에 의탁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추이는 조선왕국의 실권자인 명성황후의 의도였기때문이었다. 명성황후가 근래에 와서 로씨야에 의탁하는 길을 택한것은 그가 조선왕국을 두고 벌린 렬강들의 각축전속에서 시달려오던 과정에 얻은 결과였다.

명성황후가 지난날 렬강들의 각축전속에서 처음에 기대를 둔것은 일본이었다.

그러나 왕국에서 《임오군란》, 《갑신정변》, 《갑오농민전쟁》 등의 동란이 일어날 때마다 일본은 명성황후보다 실권쟁탈의 대상인 대원군을 더 내세우려 하였던 것이다.

이에 반감을 가진 명성황후가 다음으로 기대를 둔 것은 청나라였다.

그런데 청나라는 1894년 8월~1895년 3월까지 일본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여 료동반도까지 잃게 되었다.

이런 판국을 관망하던 명성황후는 이제 기대를 걸 대상은 로씨야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명성황후의 의도를 간파한 로씨야 외무성에서는 웨벨에게 명성황후에 대한 외교전을 적극 벌리어 로씨야세력권에 의지하려는 그의 뜻을 더 굳히게 하며 그 어떤 세력도 명성황후에게 손을 뻗치지 못하게 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웨벨은 지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제도 명성황후를 찾아가 만났던 것이다.

웨벨이 명성황후를 만난 목적은 명성황후가 일본교관이교련시키는 훈련대를 좋지 않게 여기고 그것을 해산해버리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적극 지지해주기 위해서였다.

훈련대를 없애버리는 것은 조선왕국에 미치고 있는 일본의 손길을 끊어버리는 것으로 되기 때문이었다.

《조선이 완전한 독립국으로서의 체모를 보이는 데서 외국인인 교련하는 훈련대와 같은 군대를 궁궐가까이 두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두고 안두고 하는 것은 독립국의 권한에 있는 것이니 무엇이 주저되었습니까. 우리 로씨야는 적극 지지합니다.》

웨벨의 이런 권고에 명성황후는 매우 만족해하였다.

《오답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생각해주는 공사는 오직 로씨야공사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주 찾아와 우리를 도와주기 바랍니다.》

함께 있던 국왕도 매우 기뻐하며 웨벨의 조언은 언제나 자기들에게 큰힘으로 된다고 하였다.

국왕과 명성황후에게서 이러한 믿음의 말을 들은 웨벨의 기쁨은 컸다. 이것은 조선왕국에 대한 로씨야외교에서 하나의 승리였다.

웨벨은 이 기쁜 소식을 그대로 로씨야 외무성에 보고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조선왕국에서 훈련대를 해산한다는 칙령이 내린 다음에 보고할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어제밤을 보내었다.

그런데 로씨야와 조선과의 관계개선에서 중요한 존재인 명성황후가 일본군사들의 반란에 목표로 되고 있다는 것은 웨벨에게서 무시할 수 없는 문제였다.

명성황후에게 그 어떤 자그마한 화라도 미치게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웨벨은 농상공부대신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궁궐을 향해 트랙에 나섰다.

날이 밝기 시작하여 트랙은 흰하였다.

웨벨이 트랙을 지나 공사관 대문으로 나서려는 순간이었다.

《웨벨공사, 큰일났습니다.》

궁궐에서 목수로 근무하는 로씨야인 싸바찐이 대문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나도 아오, 어서 궁궐로 가시오. 왕후를 보호해야 하오.》

웨벨은 싸바찐더러 따라나서라고 손짓하며 걸음을 옮기려 하였다. 그러나 싸바찐은 웨벨의 손을 잡아 멈춰세웠다.

《웨벨, 왕후는 살해되었습니다.》

《뭐라구?》

웨벨은 돌아서며 다우쳐 물었다.

《그게 사실이오?》

《제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직접 보았다고? 어디서? 어떻게?》

웨벨이 오랜 외교관답지 않게 리성을 잃은 듯 다급히 묻는 말에 싸바찐은 자기가 겪은 일을 순서없이 말했다. 그는 일본군사들에 의해 란이 터지는 시작부터 명성황후를 살해하고 정원에서 그 시체를 불태우는 등 모든 만행을 모두 목격했다는 것이다.

싸바찐은 전날저녁 수직으로 궁궐에 들어갔다. 궁궐에는 외국인들을 위해 지어놓은 별채가 있으므로 그는 미국인 다이와 함께 누워 잠들었다.

새벽 4시경에 궁궐친위대 부대장인 리학균이 그들을 깨우면서 궁성이 반란군에 의해 포위되었으니 급히 나가 지키라 하고는 자기는 국왕에게 알리려 간다고 하였다.

이 말에 싸바찐과 다이는 일어나 별채가 가까이 있는 북쪽성문으로 갔다. 성문에는 아치로 된 작은 문이 있었다. 여기서 밖을 내다보니 달빛에 칼을 찬 일본군사들이 성문벽에 붙어있는 것이 보였다.

이를 본 싸바찐과 다이는 가슴이 섬찝했다. 큰 반란이 터진다는 직감에서였다. 그들은 이런 때 자신들이 의거하고 행동할 곳은 수직청이라는 생각에 그곳으로 향했다.

이럴 때 대궐남쪽문에서 총소리와 비명소리, 고함소리가 터지더니 동시에 궁성좌우측에서 일본군사들이 사다리와 통나무를 타고 대궐뜰로 쳐들어왔다.

싸바찐은 열걸에 어느 건물 모퉁이에 몸을 숨겼다가 일본군사들이 총질하며 수색하는 바람에 그를 피해 대궐의 후원으로 달려가서 나무뒤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군사들에게 끝내 붙들리우고말았다.

일본군사들은 싸바찐이 궁궐에서 일하는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고 왕후가 있는 곳을 대라고 하였

다.

짜바짚이 모른다고 우기자 일본군사들은 칼을 뽑아친 한 군사더러 짜바짚을 꼼짝하지 못하게 지키라 하고는 왕후를 찾으러 미친듯이 돌아쳤다.

이리하여 짜바짚은 여기서 수많은 궁녀들이 총에 맞고 칼에 찔려 쓰러지는 아찔러운 비명소리를 들었으며 나중에 그앞에서 명성황후의 시체를 내다가 불에 태우는것까지 목격하게 되었다. 짜바짚의 이런 말을 듣고난 웨벨은 머리를 저었다.

《아니요. 그럴수 없어. 왕후를 죽였다는것은 거짓말이요.》

웨벨은 명성황후의 살해를 믿고싶지 않은 마음에 이렇게 부정한것은 아니었다. 그는 진정으로 믿지 않았다.

매 나라들의 법에서나 국제법에서도 한 나라의 왕후는 그 누구도 명색없이 함부로 범접할수 없는 존재인것이다.

그런데 전쟁도 아닌 평화시기에 외국의 군사들에 의하여 한나라 왕후가 어느한 시골필부의 아낙네와 같이 유린되고 피살되었다는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평화시기에 외국군사가 평범한 시골의 한 아낙네에 대하여서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것이다.

웨벨은 이런 생각에서 명성황후의 살해를 믿지 않았을뿐아니라 명성황후의 살해가 사실이라고 우기는 짜바짚을 더 설득시킬 필요도 없다고 여기었다.

짜바짚은 한갓 목수로서 나라의 법과 국제법에 대하여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치부되어서였다.

웨벨은 한시바삐 변란에 의해 명성황후에게 불리한 정황이 조성되지 않게 수습하는것이 급선무라 여기고 대결로 향했다.

웨벨은 궁궐로 향하는 길에서 먼저 미국공사관에 들리었다. 미국공사관에는 공사 쌀고가 휴가차로 일본에 가있었으므로 립시대리공사 알렌이 있었다.

알렌도 미국인 다이에게서 모든 사실을 듣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물라하고있었다.

웨벨은 알렌을 데리고 일본공사에게로 갔다.

일본공사관에는 한달전에 전 공사 이노우에와 교체된 미우라 고루가 공사로 있었다.

그는 무관출신으로서 자기는 외교에 전혀 무식하다면서 부임된 때부터 오늘까지 근 한달동안 자기 방에서 소설책이나 읽고있었다.

웨벨은 이번 사변이 일본군사가 일으키었다고 하니 전적으로 일본공사가 모든것을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를 찾아갔던것이다.

그런데 미우라공사는 벌써 궁궐로 가고 없었다.

웨벨은 사변을 수습할 시간이 떠지는것 같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공사들에게는 차후에 알리기로 하고 미국립시대리공사 알렌과 함께 궁궐에 이르렀다.

웨벨은 드디어 명성황후의 살해가 허황한것이 아니라 엄연한 사실이라는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웨벨이 만나는 관리들마다 명성황후의 살해가 사실이라고 말했으며 국왕자신도 웨벨에게 이 사실을 부정하지 못하였다.

《왕후의 불행은 그 누구를 탓할게 없습니다. 오직 왕후의 미덕한 탓인가 합니다.》

국왕은 어느날과 달리 뻔뻔하고 침울한 태도로 말하였다.

《네?!》

웨벨은 명성황후의 살해가 더는 부정할수 없는 사실이라는 국왕의 말에 매우 놀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국왕주위에 있던 관리들도 모두 머리를 숙이고 묵묵히 서있을뿐 머리를 젓는 사람은 없었다.

그가운데 머리를 들고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다름아닌 대원군이였다. 그를 본 웨벨은 저으기 의아해졌다.

대원군은 왕후와 실권쟁탈에서 실패한 뒤에 그의 손자가 또한 반란죄로 기소되어 강화도에 귀양가게 되었으므로 지금 서울교외에 있는 공덕거리에서 연금생활을 당하고있는중이였다.

그러한 대원군이 어찌하여 이런 때 궁궐에 나타났는가 하는것은 의혹을 주는 일이었으나 웨벨은 그에 대해 더 생각해볼 경황이 없었다.

왕후가 어떻게 일본군사들에게 살해되었는가 하는 의혹이 그의 머리를 치고있기때문이였다.

하여 웨벨은 곧 일본공사 미우라를 찾아갔다.

미우라는 대궐뜰에서 일본군사 몇명에게 뒤리고 혼시를 하고있었다.

웨벨은 미우라에게 다가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각하, 왕후가 어찌되어 살해되었습니까?》

《그 내막을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도 미처 왕후를 구원하지 못한 죄로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미우라의 대답은 너무나 태연하였고 거침이 없었다.

《그러나 각하, 사변의 목격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번 사변이 일본군사들에 의하여 시작되었고 일본군사들에 의해 왕후가 살해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알고있습니까?》

《그것은 오해입니다. 오늘 사변은 일본군사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혼련대와 군영의 군사들사이의 충돌로 하여 발생된것입니다.》

《군사들의 충돌로?》

웨벨은 처음 듣는 말이어서 반문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 군부

대신이 한 말입니다.》

《군부대신의 말이라구요.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군부대신이 우리 공사에 찾아와 하는 말이 혼련대와 군영의 군사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국왕폐하께서 우리 일본군사들이 와서 수습해주기를 청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체없이 우리 군사들을 출동시켜 진압했을뿐입니다.》

《...》

웨벨은 더 말을 못했다.

(혹시 이 사변이 군사들의 충돌로 하여 일어난 것이 아닐까?)

웨벨은 그 순간 국왕결에 있던 대원군이 떠올랐다.

대원군은 그전에도 왕정의 실권을 두고 왕후와 다투어온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이것을 알고있는 웨벨은 이 사변도 미우라의 말대로 그런 다름에서 생긴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웨벨은 아직 대원군의 출현도 일본공사의 모략에 의한것이라는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므로 웨벨은 머리를 젓고나서 미우라에게 청했다.

《하지만 공사각하께서 이번 사변이 일본군사들에 의해 발생되었고 일본군사에 의해 왕후가 살해되었다는 혐의를 저에게만 아니라 여러 공사들에게 밝혀주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혐의를 받을 근거도 없거니와 지금 저에겐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혐의가 있는 이상 그것을 밝히는것은 일본측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런 혐의에 대하여 저도 조사하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언제 만나주실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여기 일을 돌보고 점심때 공사관으로 돌아가겠으니 그때 우리 만납시다.》

《그사이 우리도 사변진상을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웨벨은 일본공사와의 면담을 약속한후 오전 한것 사변의 진상을 더 밝히기 위해 사변의 목격자들을 찾아다니며 만났다.

웨벨은 목격자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번 사변이 군사들의 충돌로 하여 일어난것이 아니라 농상공부대신 리범진과 로씨야인 짜바진의 말대로 일본군사들에 의해 시작되었고 일본군사들에 의해 왕후가 살해되었다는것이 더욱 확증되었다.

웨벨이 만나본 궁궐친위대 부대장 리학균이나 궁궐 파수군대장의 진술도 그러했다.

궁궐 파수군대장은 사변이 터지기전에 일본군사들이 새벽부터 궁성을 포위하고있었것이 더는 부인할수 없는 일이며 궁궐포위습격이 일시에

진행된것으로 보아 일본측의 면밀한 계획과 지

휘밀에 진행된것이 틀림없다고 하였다.

궁궐 친위대 부대장 리학균은 궁성주변을 일본군사들이 포위하고있다는 보고를 듣고 대응하려 하였으나 일시에 사방에서 성문을 깨고 달려드는 일본군사를 막아낼수가 없었다. 그는 결사의 각오로 국왕과 왕후를 지키려 그쪽으로 달려갔는데 벌써 그곳에서 너인들의 비명이 려이어 들리더니 왕후가 살해되었다는 소리가 터져나왔던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리학균은 궁궐을 침입한 일본군사들이 궁궐친위대와 얼마 싸우지 않고 곧바로 왕후를 찾아가 살해하였으니 이번 사변이 어찌 왕후를 살해하기 위한 사변이 아니라 하겠는가고 하였다.

웨벨은 그에 이어 대원군출현의 흑막도 밝혀내었다.

그는 프랑스공사를 찾아왔던 프랑스기독교교사 구스파브 뮈엘의 말을 들을수 있었다. 그 교사는 대원군의 집에서 사는 하녀의 진술을 가지고왔던것이다.

그 하녀의 진술에 의하면 일본인들이 며칠전부터 대원군의 집에 자주 드나들며 쑥덕공론을 하여왔으며 사변 전날밤에 찾아온 여러명의 일본인들이 장시간 대원군과 이야기를 하였다는것이다.

그리고 웨벨은 그 진술에서 사변이 날났기 시작하던 무렵에야 터지게 된것은 대원군이 처음에 일본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있다가 국왕만은 무사하게 한다는 일본인들의 약속을 받고서야 움직이다보니 일본인들이 작전했던 시간보다 늦어 지였기때문이라는것도 알아낼수 있었다.

웨벨은 이러한 진술들을 가지고 공사관으로 돌아와 아침점 점심을 먹으면서 사변의 전후진상을 간주려보았다.

청일전쟁후 로씨야로 쏠리는 왕후정사의 변화, 때를 같이하여 일본공사를 무관출신인 미우라로 교체, 일본교관이 교련하는 혼련대해산문제가 일정에 오른 시기에 대원군의 강제호송과 왕후의 살해.

웨벨은 아무리 추리해보아도 이번 사변의 발생은 로씨야로 쏠리는 조선왕국을 일본쪽으로 돌려 세워놓기 위한 모략의 산물로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에 이른 웨벨은 경악을 금할수 없었다.

자기의 욕망과 야욕을 위해 외교관제도 무시하고 교전국도 아닌 평화시기 한 독립국의 내정을 이리도 간섭할수 있으며 왕후까지 살해하는 참극도 서슴없이 감행할수 있단말인가.

이것은 나라법도 국제법도 안중에 없는 야수들만이 저지룰수 있는 만행으로 전세계력사에서조차 찾아볼수 없는 일이 아닌가.

과연 엄연한 이런 혐의를 일본공사 미우라가

변명할수 있단 말인가, 피할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면 어떻게 변명하겠는가, 어디 두고보자.

웨벨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미우라와의 면담에 나섰다.

이날 낮 12시 30분으로 약속했던 미우라와의 면담은 오후 3시 30분에야 진행되게 되었다.

궁궐의 사변소식을 뒤늦게 알게 된 영국과 독일공사들이 국왕을 만나보고 사변의 진상을 조사하는 일로 제시간에 올수 없었다.

면담은 일본공사관 1층 면담실에서 진행되었다.

면담에는 로씨야의 공사 웨벨을 비롯하여 미국의 림시대리공사 알렌, 영국공사 힐러, 독일의 공사 크리인, 프랑스의 공사 레페브로 등이 참가하였다.

면담장에 여러 공사들이 다 모여오자 2층에서 일본공사 미우라가 서기들인 스키무라, 히오끼 등을 데리고 내려왔다.

미우라는 관례대로 외국의 공사들과 악수로 인사를 나누고 먼저 말하였다.

《여러 각하들이 허락하신다면 우선 제가 먼저 이번 사변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말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허두를 댄 미우라는 아침에 웨벨과 나눈 말을 장황하게 되풀이만 하였다.

자기들도 이번 사변이 발생한것을 뜻밖의 일로 생각하고있다는것과 군부대신이 새벽에 찾아와서 사변을 수습하여줄데 대한 국왕의 청원을 받고야 드디어 이번 사변에 관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번 사변의 발생은 혼련대와 군영의 군사들과의 충돌로써 일어난것이라고 하였다.

웨벨은 미우라의 장황설을 듣다못해 중도에서 저지시켰다.

《각하, 우리가 이 면담을 요구한것은 이번 사변이 일본군사들에 의하여 발생되었고 왕후의 살해도 일본군사들에 의해 실행되었다는 혐의에 대한 각하의 견해를 듣자는데 있는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각하의 견해를 밝힐것을 바랍니다.》

그러면서 웨벨은 먼저 이번 사변이 혼련대와 군영의 군사들의 충돌로 일어난것이 아니라는것을 까밝혔다.

당시 궁궐에는 군영의 군사들이 없었으므로 궁궐에서 사변이 일어날수 없었다는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있는것인데 오직 일본공사측에서만 군사들의 충돌로 주장하는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음엔 일본공사의 말에는 일본군사가 사변이 일어난 다음에 현장에 출도하였다고 하나 궁궐과 수군대장을 비롯한 여러 목격자들은 사변이 일어나기전인 새벽 2시부터 일본군사들이 궁성을 포위하고있었다고 진술하고있으며 궁궐친위대, 부

대장 리학균을 비롯한 여러 목격자들은 궁궐문을 지키는 친위대군사를 살해하고 뒤이어 왕후를 살해한것이 일본군사들이라고 진술하였다는것을 상기시키면서 이에 대해 일본공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고 물었다.

일본공사는 어이없다는듯 웃어보이며 대답하였다.

《그것은 모해입니다. 그런 진술을 한 사람은 평시 우리 일본에 대하여 좋지 않게 보고있던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진술을 인정할수 없습니다.》

그러자 영국과 독일공사들이 반박하였다.

《아닙니다. 우리의 동료들뿐아니라 사변의 목격자로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모두 평시에 일본에 대하여 좋지 않게 본 사람들로 보아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궁궐안에는 모두 일본만 좋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로만 차있단 말입니까?》

《하하-》

이 말에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

미우라는 얼굴이 붉어져 대답을 못하였다.

뒤이어 프랑스공사는 미우라에게 이번 사변에 대원군의 출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고 물었다.

이에 미우라는 한가닥의 출로를 얻은듯 기세를 돋구며 대답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되는것이 있습니다.

두패거리 군사들의 충돌을 계기로 대원군이 실각된 자기 지위를 회복하려고 시도한것인지 아닌가 봅니다. 대원군의 그러한 기도로 이번 사변이 일어나고 나중엔 왕후까지 살해되지 않았겠는가고 생각합니다.》

프랑스공사는 그의 말을 받아 한술 더 떴다.

《그러니 이번 사변은 대원군의 계책에 의하여 실현된것으로 보는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미우라는 이 말에 적극 찬성했다.

《웁습니다. 각하께서 이번 사변의 원인에 대해 가장 정확히 판단한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모두 이 각하와 같이 이번 사변을 이해하는것이 옳으리라 봅니다.》

미우라는 얼굴에 화색을 띠고 여러 공사들을 둘러보았다. 그렇지 않는가 하는 궁정의 대답을 받으려는 뜻이었다.

이것이 바로 미우라를 내세워 집행케 한 일본의 각본이었으며 이런 각본으로 세상을 속이고 자기들에게 눈에 든 가시와 같은 명성황후를 제끼고 대신 대원군을 내세워 조선왕정을 로씨야편에서 떼내여 자기손에 넣으려 한것이였다.

그러니 미우라에게 있어서 프랑스공사의 말은 대단히 기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프랑스공사는 히물거리며 머리를 저었

다.

《그런데 제가 한 목격자의 진술을 들었는데 의하면 대원군이 자칭 나섰것이 아니라 뒤에서 그 누가 시켜서 나섰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번 사변의 음모자는 대원군보다 대원군을 부추기고 데려온 사람들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옳습니다. 공사각하의 판단이 명철함에 저는 놀랄뿐입니다. 저도 진술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원군이 나서게 된것은 혼련대에 있는 조선군사들이라고 합니다. 혼련대의 군사들은 군영의 군사들의 업심을 받던 때라 대원군을 내세워 자기들을 늘 좋지 않게 보는 왕후도 없애려고까지 한것 같습니다.》

미우라는 이제야 일본측이 짜준 각본을 여지없이 드러내놓고야 말았다. 차마 내놓기 꺼려했던 이 말을 프랑스공사로 하여 자연스럽게 표현한데 대해 미우라는 자못 흐뭇하게 여기었다.

이때 프랑스공사는 야유조로 말했다.

《미우라각하, 그런데 저에게 진술한 그 사람은 대원군을 부추기고 호송해온것은 혼련대 조선군사가 아니라 일본사람이라고 하였으니, 이 사변은 결국 일본의 모모한 사람에 의해 꾸며지고 실천한것으로 생각하여도 무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뭐라구요?》

미우라는 그만 얼굴이 새까매지었다.

순간에 가면이 발각 벗겨여지고 본색이 드러나격이 아닐수 없었다.

《미우라각하, 왜 놀라십니까. 제가 보는 견해도 알렌을 비롯한 여러 공사들의 견해와 같이 이번 사변이 일본군사들에 의하여 발생되고 일본군사에 의하여 왕후가 살해되었다는것이 일치된다고 봅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일본에 대한 모해입니다.》

미우라는 리성을 잃은 사람처럼 발광을 하였다.

웨벨은 오랜 외교관답게 좌중한 어조로 말했다.

《공사님, 우리는 일본을 모해할 권리도 없고 이번 사변을 외곡할수도 없는 외교관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각기 자기본국에 사변의 진상을 사실대로 보고할 권리밖에 없습니다.》

미우라각하, 각하가 우리가 수집한 목격자들의 진술에 대하여 옳게 해명해주지 않고 부정만 한다면 우리는 그대로 본국에 통고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우리 그 누가 어떻게 보더라도 우리 일본군사들은 국왕과 군부대신의 청에 따라 사변을 제때에 저지시키고 질서를 바로 잡는데서 자기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였음을 뽐냈이 자랑할수 있습니다.》

미우라는 이렇게 말을 내뱉듯이 하고는 면담을 끝내려고 일어섰다.

웨벨은 그에게 손을 들어 멈춰세웠다.

《가만, 우리의 말은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

다. 한마디만 각하에게 더 하겠습니까.》

미우라는 또 무슨 말인가고 눈이 울퉁해서 바라보았다.

《미우라각하, 지금 국왕은 일본군사들에 대하여 고맙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왕폐하는 저와 알렌을 만났을 때 우리더러 일본군사들이 궁정에 더 있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를 각하에게 전합니다.》

순간 미우라의 얼굴은 새파래졌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각하들은 국왕을 반란자들에게 내맡기고 우리가 물러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왕의 신변을 위해 절대로 그럴수 없습니다. 그리고 각하들은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권고할수 있지만 강요할수 없다는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럼 물러설수 없단 말입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나의 뜻이며 조선국왕을 위한 우리 일본의 뜻입니다.》

미우라는 그만 이 말이 실수라는것을 느끼지 못하고 내뱉었다.

웨벨과 여러 공사들은 미우라의 신경질적인 말 한마디로 하여 이 사변의 음모와 계책은 일본측과 미우라의 계획적인 행동에서 나왔다는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국왕의 의도도 아랑곳없이 조선국왕의 궁궐에서 자기 군사를 철수할수 없다는것은 바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사변을 일으켰다는 말이 아니였는가.

웨벨과 여러 공사들은 이제는 미우라와 더 나눌 말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러하여 그들은 미우라에게 다음의 두가지 문제에 대하여 다시한번 완벽한 조사를 할것을 상기시키면서 면담을 끝냈다.

첫째문제는 일본인들에 의하여 사변이 발생되고 왕후를 비롯한 궁궐의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한 행위들이며

둘째문제는 일본군에 의하여 대원군이 호송된 사실에 대한것이였다.

여러 공사들이 이런 문제를 마지막으로 다시 조사해줄것을 미우라에게 상기시킨것은 이 사실 그대로 각기 본국에 통고하겠다는것을 미우라에게 시사해주기 위한것이였다.

그러나 외교에 전혀 무식한 미우라는 아무생각없이 그러하겠노라고 면담을 끝내고는 쫓기는듯 자기 서기들을 데리고 옷층으로 올라가버리고 말았다.

하기야 그로서 더 달리 대답할 말도 없었다.

미우라가 면담실에서 사라졌으나 여러 공사들

은 인차 자리에서 뜨지 못해하였다.

일본이 조선왕국에 저지른 죄행은 참으로 상상할수 없었던 일이었기때문이다.

웨벨도 그 면담자리에서 그냥 뜰수 없어 여러 공사들에게 한마디 하였다.

《여러 각하들, 조선속담에 자루안에 든 송곳은 숨길수 없다고 합니다. 자루속의 송곳과 같이 일본측이 오늘 저지른 죄악은 이 면담에서도 숨길수 없지만 한달전에 일본공사를 군부출신인 미우라로 교체한 사실 하나만을 놓고도 알수 있다는 것을 미리 각하들앞에 확인합니다.》

《웁습니다.》

여러 공사들이 머리를 끄덕이였다.

여러 공사들도 한달전에 갑자기 이전 일본공사 이노우에 대신으로 군부출신 미우라 고루가 임명되어온것을 잘 알고있는바였다.

미우라가 한달전인 9월 1일에 서울에 와서 신임장봉정시에 국왕에게 《저는 오래동안 군대에 복무하면서 군공도 세우지 못한 무능한 군인입니다.

외교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릅니다. 앞으로 국왕폐하께서 초청이 없으면 관저에서 책이나 읽으면서 이 땅의 산천이나 즐기려 합니다.》라고 말했다는데 대하여도 생생히 기억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러한 참혹한 사변을 빚어내기 위한 모략의 서곡인줄은 그 누구도 예감하지 못했던것을 모두 뉘우쳤다.

《참으로 상상못하였던 참극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사변은 전세계력사에서 류례없는 비렬하고 야수적인 만행이었다는것을 우리 모두 온 세계에 규탄하지 않을수 없다는것을 호소합니다.》

《웁습니다.》

모든 공사들은 일본의 죄행에 대하여 한결같이 저주규탄하였다.

이날 저녁 웨벨은 이날 조선궁궐에서 일어난 사변과 명성황후의 살해에 대한 진상을 전보로 로씨야외무성에 날렸다.

웨벨은 전보보고문의 끝에 이렇게 썼다.

《본 보고서를 마치면서 저는 이번 사변이 전세계력사에서 류례가 없는 범죄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평화시기에 다른 나라 사람이 자기의 군대를 출동시켜 독립적인 왕국에 침입하여 왕후를 살해하고 불래워버리는 이런 비렬한 폭력만행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을것입니다.》

이 시각에 서울주재 각국 공사들은 자기의 본국에 이러한 내용으로 역시 전보를 날리였다.

웨벨은 그 이틀후인 10월 10일에 일본이 조선왕궁을 습격하고 명성황후를 살해한것이 로씨야로 쏘리는 조선왕국을 자기 손에 돌려세우기 위한 비렬한 음모에서 감행한 만행이었다는것을 다

시금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한것은 이날 각국 공사들에게 보내는 조선외부대신의 각서와 그 뒤를 이어 받아보게 된 관보에 실린 《폐후조칙》이었다.

각국 공사들에게 보내는 조선외부대신의 각서는 이러하였다.

《나는 어제 국왕폐하께서 다음과 같은 칙령을 내리었다는것을 귀하에게 알리는 영광을 가집니다.

인생에 그토록 중요한 리혼을 국왕폐하께서는 대신들앞에 표명하였습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진실로 친선적인 관계와 조선의 평화와 복리에 대한 귀하의 념려와 동정을 고려하여 상기내용을 귀하께 알려드림을 마땅한 의무로 여기는바입니다.》

이 글을 읽는 웨벨은 너무나 허무한감을 금할수 없었다. 어찌 국왕이 이럴수 있느냐하는 생각이였다.

비록 왕후가 일본측의 모략에 살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죽은지 이틀도 못되어 그에게 이처럼 혹독한 처결을 내릴수 있는가 하는 생각에서였다.

웨벨이 이러한 마음으로 앉아있을 때 리범진이 찾아와 관보에 실린 《폐후조칙》을 보이였다.

그 내용은 국왕의 칙령으로 왕후의 칭호를 폐지하고 그를 천한 신분으로 떨어뜨린다는것이였다.

웨벨은 국왕이 내린 《폐후조칙》을 직접 보고 나서 리범진에게 한숨을 내쉬며 물었다.

《국왕이 이런 결론을 어찌 이렇게도 빨리 내릴수 있습니까?》

그러자 리범진은 머리를 저었다.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폐하의 진심이 아닙니다.

제가 바로 전날 공사님을 찾아왔을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에 와있던 사이에 일본공사 미우라가 대원군과 함께 우리 폐하에게 왕후의 칭호를 박탈하고 천민녀성으로 떨어뜨리는 칙령을 곧 내리라고 강박하였답니다.

이때 임금님께서서는 그들의 강박에 단호히 거절하시면서 <이 손을 잘라서 당신들이 요구하는것을 수표할수 있다면 해보시오. 그렇게 하기전에는 짐의 손으로 그런것을 절대로 할수 없소.>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찌 이런 칙령이 세상에 나왔습니까?》

《그것은 일본측이 조작하여 낸것이옵니다. 이 칙령미를 보시오이다. 어디 폐하의 인장이 있소이까? 오직 대신 몇명의 수표만이 있지 않소이까.》

웨벨은 그 말에 다시 칙서내용을 들여다보았

다.

분명 대신들의 수표만 있고 국왕의 인장은 없었다.

《세상에 어찌 이렇게도 험악한 조작이 있단 말인가?》

《대신들도 모두 반대해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탁지부대신 심상훈은 차마 그곳에 수표할수 없어 벼슬을 버리고 시골로 내려갔으며 내부대신 박정악은 그 모임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웨벨은 이 일을 두고 가만 앉아있을수 없었다.

그는 미국의 임시대리공사 알렌과 함께 궁궐로 찾아갔다.

국왕은 병풍으로 둘러져있는 통상에 앉아있고 그 병풍뒤에 대원군과 몇몇의 대신들이 서있었다.

《국왕폐하, 우리는 뜻밖에 <폐후조칙>을 보고 놀라움을 금할수 없어 왔습니다.》

국왕은 일어나 마주와서 악수를 하면서 말했다.

《이미 공포한 칙령이니 그대로 아시는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자리에 돌아가 앉았다.

그러자 통역원이 다시 더듬거리며 통역하여주었다.

웨벨은 통역원이 통역하는 사이에 국왕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웨벨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웨벨은 마주보는 국왕의 눈길에서 모든것이 진심이 아니라는것을 느끼고있었다.

그것은 병풍뒤에 서있는 대원군과 몇몇 대신들 모르게 자기의 뜻을 알리는 국왕의 의도임을 웨벨은 느끼자 기가 막혔다.

《세상에 이런 희비극이 어데 있단 말인가?》

웨벨은 눈길로 국왕에게 모든 진상을 다 알겠으며 이 사실도 세상에 밝혀보이겠다는 뜻을 알

리고 물러나왔다.

웨벨과 알렌은 이 사실을 각국 공사들에게 알리였으며 공사들은 각각 본국에 전보로 날리어 다시 세상이 끓게 하였다.

서울장안에서도 인민들이 《폐후조칙》으로 들끓어서 왕정에서는 다시 국왕의 칙령으로 《왕태자의 지극한 효성과 정을 고려하여 서민으로 폐한 민씨에게 <빙>호를 특사한다.》고 발표하지 않을수 없었다.

웨벨을 비롯한 각국 공사들이 날린 전보들로 하여 세계각처에서 일제의 귀족같은 만행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세차게 일어났다.

이런 규탄에서 피할길 없었던 일제는 할수없이 미우라와 함께 명성황후살해에 가담하였던 모든 일본인들을 본국에 불러다가 히로시마재판소에서 재판놀음을 벌리었다.

그러나 그후 어느 한사람도 법적처벌을 받지 않았을뿐아니라 명성황후살해의 집행자의 두목이었던 미우라는 제명으로 죽을 때까지 추밀원 고문직에까지 있었다.

이러한 사실로 하여 일제가 명성황후살해를 조작한 음모는 인류력사속에서 더욱 숨길수 없었던 것이다.

×

과거의 일제는 바로 이러하였다.

만약 아직도 일본땅에 그러한 후예들이 있다면 과거에 웨벨과 세계인민들을 경악케 한것처럼 앞으로 그 누구를 다시 경악케 할지 어이 알수 있으랴.

김정설